

## 기호학 연구 제65집



기호학 연구 제65집  
Semiotic Inquiry No. 65



**한국기호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2020



## 차례

김휘택 : 보드리야르 이론과 기호학,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7
선미라 : 지배권력에 잠재된 프레임 구조의 표층과 심층구조	35
송태미 :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	49
오세정 : 전설 서사론 연구 - 3항성에 기초한 서사 분석 모델 기획	71
표정옥 : 한국 근대 질병에 나타난 문명 충돌과 교환 상상력의 신화성과 종교성 연구 - 이해조 <구마검>의 ‘천연두’에 대한 기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97
홍정표 : 황순원 단편소설 「학」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123



# 보드리야르 이론과 기호학,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김휘택\*

## 【 차 례 】

- I. 서론
- II. 관점으로서의 기호학과 의미의 층위 분화
- III. 보드리야르와 함축의미
- IV. 사물의 기능으로부터의 해방
- 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보드리야르Jean Baudriard의 이론들을 기호학의 의미작용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보드리야르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이론을 자신의 초기 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호학적 사고에도 매우 정통하다. 그의 시뮬라시옹 이론은 우리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보드리야르가 의미의 층위 분화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는 데 주목했다. 보드리야르는 사물을 주체에게 인식되는 과정을 기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사물의 인식 방식이 그 실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의미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드리야르는 사물에 대한 의미작용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누지만, 이 의미작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연구는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을 기술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그 의미작용이 개인적인 함축의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미작용은 집단적인 것으로서 개인은 그 의미작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은밀한 사회적 의미작용의 확인은 바르트가 주장한 신

---

\*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전공, 조교수, [kimhuitek@cau.ac.kr](mailto:kimhuitek@cau.ac.kr)

화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신화는 제국주의, 이념과 같은 거대 담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드리야르는 그 신화가 우리의 일상에 개인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사회적 성격의 의미작용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욕망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개인은 유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러한 욕망을 집요하게 강요받고,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 욕망을 아낌없이 소비하고 있다.

열쇠어 : 장 보드리야르, 기호학, 의미작용, 사물의 체계, 본질적, 비본질적

## I. 서론

기호학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선언 이후로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차분히 발전해왔다. 물론 구조주의의 대표적 학문으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여러 사상가의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호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쉬르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sup>1)</sup>이라고 기호학을 규정했으며, 언어학 역시 기호학의 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대의 사회생활은 너무나도 복잡하다. 이 복잡한 사회생활은 텍스트<sup>2)</sup>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텍스트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1)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16, p.33.

2)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 텍스트의 개념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어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바르트의 논의들을 제시하는 데, 이것으로 분석의 기본 조건으로 텍스트의 개념을 정리하려면 개념사나 개념의 망을 종합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최용호의 논의가 가치 있는 것은 연구의 전제인 텍스트 정의의 난점들을 잘 고려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 로트만 이후 문화를 이처럼 텍스트로 간주하려는 입장은 문화 기호학의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우리는 키워드가 지시하는 사건들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의 놀이의 장으로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은 비단 방법론적일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우리는 ‘텍스트’란 표현을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를 역시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말해진 것이든, 쓰여진 것이든, 그려진 것이든, 공연된 것이든, 특정한 매체 말, 글, 그림, 동작 등-의 도움으로 표현된 것은 모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범위가 이처럼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컨대 사건 사고 그 자체는 텍스트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이 말해지거나 노래로 불리거나 공연될 때 비로소 그것은 텍스트로 존재하게 된다.” 최용호, 『광고, 커뮤니케이션,



를 수궁한다면, 예전의 장르 분류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를 접하는 기술적 환경, 즉 플랫폼의 변화로 전통적인 장르 자체도 그 형식과 내용이 빠르게 계속 변모하고 있다. 아당Jean-Michel Adam이 텍스트의 속성을 ‘복잡성complexité’과 ‘혼질성hétérogénéité’<sup>3)</sup>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e는 소쉬르 언어학을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 2세대 기호학을 예언했다. 그는 다음 세대의 기호학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텍스트, 작품의 탈경계언어적 translinguistique 분석에서 발화행위의 의미론sémantique de l'énonciation을 바탕으로 구성될 메타의미론métasémantique을 발전시키는 것”<sup>4)</sup>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탈경계trans’라는 말은 랑그와 언어행위를 벗어나 실질이 무엇이든지 분절을 통해 기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발화행위의 의미론’은 분석 대상 전체를 발화체énoncé로 상정하고, 그것들의 의미작용signification,<sup>5)</sup> 즉 세미오시스sémosis로 파악하는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표에 기의가 결합되는 과정을 ‘기호화 과정’이라 하며, 기호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 기호의 체계와 그것들의 결합과정을 드러내 주는 데 있다.”<sup>6)</sup> ‘의미론’이라는 부분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분절될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의미론의 과제이다. 다음 윌리엄슨Judith Williamson 예를 보자.

---

문화마케팅』, 인간사랑, 2005, 103~104쪽.

- 3) J.-M. Adam, *Linguistique textuelle: Des genre de discours aux textes*, Nathan, 1999, p.17.
- 4)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p.66.
- 5) 백선기는 기표와 기의 결합의 역동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signification을 ‘의미화 과정’으로 번역하였다. “사물이나 대상을 지시하는 기표와 기표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미, 이른바 기의와의 상관성을 통해 세상 모든 사물과 대상의 의미화signification을 추구하고 있다.” 백선기, 『미디어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ix~x쪽.
- 6)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15쪽.

우선 광고는 의미의 구조를 창조해낸다. 우리에게 물건을 판다는 광고의 명백한 기능에서조차 의미과정이 개입된다. 광고는 그것이 팔고자 하는 상품의 질적 속성뿐 아니라 그와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말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광고는 사물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진술을 번역해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1갤런 당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번역되어야 한다. 이것은 절약의 관점에서 번역될 수 있다.<sup>7)</sup>

위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표에 기의가 결합하는 과정’은 광고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제를 보여준다. 이 의미작용의 기제를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론으로서 기호학이 지향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론으로서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드리야르Jean Baudriard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유명한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어적, 자연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을 다룬다. 아래에서 우리는 시뮬라시옹이나 시뮬라크르 같은 보드리야르의 대표적 개념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기호학적 시각에서 의미의 층위들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작업을 그 첫 저서인 『사물의 체계Le Système des objets : la consommation des signes』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기호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역사적 진화에 따른 사물의 기능적·형식적·구조적 분석”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 분석들이 “사물이 어떻게 존속하게 되는지, 사물이 기능적인 욕구 이외에 어떤 다른 욕구에 따르게 되는지, 어떤 정신적 구조가

---

7) 주디스 윌리엄슨, 『광고의 기호학: 광고 읽기, 그 의미와 이데올로기』, 박정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4쪽.

기능적 구조와 뒤엎히고 어긋나는지, 사물의 일상성이 어떤 문화적(하위 문화적 또는 초문화적)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지의 문제에는 답하지 않기” 때문이다.<sup>8)</sup> 그의 문제제기와 기호학이 연구방식은 정확히 일치한다. 장르는 생물학에서 유래해서 인류의 인식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역사라는 시간의 힘을 바탕으로 이 장르의 질서는 모든 사물의 소속을 정해왔다. 한 사물은 일단 분류되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시대나 상황,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종의 고정관념에 둘러싸인다.<sup>9)</sup>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기호학적 관점을 사물의 체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적 목적을 위해 사물이 구분되는 범주나 기능에 따라 정해진 사물에 관여하는 대신, 사람들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행위와 관계의 체계에 관여할 것이다.<sup>10)</sup>

보드리야르는 기호학의 기본적인 기제를 제공하는 언어학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물의 영역에서 기술적 차원이 자율적이 되고 구조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언어행위의 영역

8) J. Baudrillard, *Le Système des objets : la consommation des signes*, Editions Gallimard, 1968, pp.8~9.

9) 송효섭은 관점으로서의 기호학이 의미작용으로서 그런 기존의 틀을 깨는 도구라고 평가한다. “기호학은 모든 것을 기호로 치환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서로 연관 짓게 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 기호학은 기호로서 이들의 공통된 성질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의 좋은 점은 문학, 그림, 음악, 영화가 같은 원리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용된다는 논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기호학에는 이런 사유[장르론적 사유]를 근본부터 해체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본질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 본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에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무엇인가 귀속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호는 그것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의미가 생성될 뿐, 기호 자체에 근본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호학은 본질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도전적 사유가 바탕을 이룹니다.”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25~29쪽

10) J. Baudrillard, *op.cit.*, 1968, p.9.

과 관련된 조건과는 다르다”<sup>11)</sup>는 지적이 그러하다. 보드리야르의 언급은 언어학에서 제기된 여러 개념들의 대립구조와 사회생활이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의 형태적 상동성homologie의 발견보다는 대상의 추상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호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현실에서 사물의 체계에 관한 연구는 결국 의미작용의 체계에 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사물들을 기능적으로 묘사 전체가 아니라 추상화abstraction된 한 차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아래에서 보드리야르의 연구들을 통해 사회생활을 기호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의미작용의 층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지도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 II. 관점으로서의 기호학과 의미의 층위 분화

### 1. 기호학으로 보는 사회

관점으로서의 기호학은 메타언어로서 우리의 사회의 의미작용을 설명하는 한 방식이다. 이 기호학은 사회생활 속에서 ‘기호들’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연구하기보다, 복잡한 사회의 여러 현실을 의미작용이라는 분절된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준다. 기호학은 관점이다.<sup>12)</sup> 기호학자들은

---

11) *Ibid.*, p.15.

12) 소쉬르의 관점에 대한 견해는 물론 언어학에 대한 것이지만, 보편적인 지침으로서 일종의 인식론으로 받아들일만하다. 이 견해는 기호학에도 적용된다.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다른 과학들은 그 연구 대상이 미리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 대상들은 여러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분야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 누가 불어 단어 *nu*를 발음하면 피상적인 관찰자는 거기서 하나의 구체적인 언어 대상만을 볼 것이다. 그러나 더 주의 깊게 검토하면, 완전히 다른 서너 가지의 현상을 잇달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말이다. 즉 소리로, 개념의 표현으로, 라틴어 *nudum*의 해당하는 단어로 등등. 대상이 관점을 선행하기는커녕 관점이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더구나 문제의 현상을 고찰하는 이 여러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나머지도 다 선행하거나 우월하다고 예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16, p.23.

이 관점을 통해 세상을 재편한다. 물리학자가 세상을 볼 때 ‘힘’이 중심이 되듯이, 기호학은 메타언어로서 ‘세미오시스Sémiosis’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유리 로트만Yuri Lotman은 ‘기호계Sémiosphère’를 “중심과 주변으로 위계화 된 하나의 계열로서 문화기호학적 공간”<sup>13)</sup>으로 규정했다. 다음 최용호의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은 기호학이 관점으로 세상을 재편하는 논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기호학적 공간인 기호계는 내부와 외부로 나뉘고, 내부는 다시 중심과 주변으로 세분화된다. 그런데 이 기호계의 중심에는 기호계의 작동원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기호학적 용어로 ‘세미오시스’semiosis라고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격언을 기억하는가? 이는 로마라는 기호계 안에 로마의 법이라는 세미오시스의 작동원리가 엄연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기호계의 중심은 객관적 제도이면서 동시에 내면화된 주관적 인지체계로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호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해석가들은 이러한 중심의 원리,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고범주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기호계 밖에는 비기호계가 아닌 또 다른 기호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당연히 한 기호계에 머무르던 사람/해석가가 자신이 속했던 기호계를 떠나 다른 기호계로 이동/횡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sup>14)</sup>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호계간의 이동·횡단은 앞서 제시했던 방브니스트의 ‘텍스트, 작품의 탈경계언어적translinguistique 분석’과 일맥상통한 주장이다. 두 학자들은 모두 다양한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단일한 기제로서의 기호학을 추구하고 있다. 로트만의 기호계는 ‘세미오시스의 작동원리’로 우리의 세계를 재조직한다. 이 역시, 방브니스트의 ‘발화행위의 의미론’과 유사하다. 세미오시스는 이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

13) 최용호·신정아, 『노랑 신호동: 포스트모던 비평의 지점』, 인간사랑, 2012, 11쪽.

14) 위의 글, 11쪽.

이다. 이 관점에 따라, 분석가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기호학적 방식에 따라 대상을 연구한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기호들의 삶에 관한 연구는 다시 곱씹어 보면, 언어학조차 기호학에 종속되고, 이 사회의 모든 비 기호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기호학의 관점이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근저에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논의를 지향하는 일이다.

## 2. 의미의 분화

세미오시스가 문제라면 기표 혹은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의 혹은 의미의 문제이다. 주체가 대상에 의미 부여하는 양상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호학의 주요한 목적이다. 언어 기호는 그 기제를 모델과 같이 보여준다. 언어 기호의 한 개인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약이기 때문에 기표와 비교적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작용은 사회 속에 일어난다. 다음 로트만의 언급을 보자.

세미오시스를 제 1의 관심사로 하는 방법은 의미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기호학적 접근법의 본질은 의미의 「의미」, 전달행위의 본질과 그 사회적 역할이라는 문제들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의 내용, 그 사회적 역할, 그리고 예술과 인간행위의 비예술적 측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면 훌륭한 의도, 진부한 진리의 반복으로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사회의 생활방식이 예술의 면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sup>15)</sup>

개인은 사회 속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수용하면서 ‘전달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이 의미의 여러 층위를 주체적으로 완전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의미들을 모두 판별 혹은 선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sup>16)</sup> 사회 차원의 의미 전

---

15) 유리 로트만,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역, 고려원, 1991, 56쪽.

달과 수용은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고, 개인은 이 의미 교환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다. 때로 사회적으로 목적이 분명한 의미가 우리에게 수용되고, 그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대상에 대해 편향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sup>17)</sup> 기호학에서는 의미 연구를 위해 전달행위의 본질은 언어 기호의 기의로,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문화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함축의미connotation로 구분하여 다룬다.

이런 의미작용의 분화는 바르트Roland Barthes를 통해서 조명 받은 바 있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 자의성 논의를 통해 의미의 한 존재 양상을 밝혔다. 바르트는 랑그라는 체계 내에서가 아니라, 텍스트와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주체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의 층위 상정하면서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 
- 16) 김정용은 이와 관련하여 기어츠Clifford James Geertz의 예를 드는데, 기어츠는 상징의 수용을 삼투작용에 비유했다. 다음을 보자. “인간은 상징의 세계에 태어나서 상징의 삼투작용을 체험하며 성장한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체형하여 체화된 상징들의 보고이다. 그래서 많은 상징이 우리에게 어떤 의식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는 뜻은 우리의 이성애 앞서, 먼저 일어났던 기호의 작용이 이미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다. 상징의 자의성이나 규약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상징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념과 인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어머니>라는 세 음절의 말이나 세 개의 글자 자체에는 <어머니다움[母性]>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우리에게 온갖 정념을 일으킨다. 시구들은 상징들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고 음악은 상징들의 흐름인데도 우리를 열광하게 한다.” 김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44쪽.
- 17) 이 부분은 그 실례를 들기보다, 원인 중 하나를 주목해보자. 박정순은 이와 관련하여 ‘영상 이미지의 일방성과 각인성’을 강조한다. 이 성격들은 영상이라는 근본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다음 언급을 보자. “텔레비전의 유상기호는 [...] 카메라와 기타 필름의 편집 행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약호화된 기호coded signs이다. 이런 점에서 영상 역시 실재와 일치하게 쓰고, 읽을 수 있는 ‘단계제로degree zero’의 언어는 아니다. 영상 이미지의 ‘자연성’과 ‘현실성’은 높은 기호동기로 인한 표상 능력의 ‘선명성’과 이미지의 각인성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이 같은 표상의 ‘선명성’ 자체가 영상의 ‘일의적 의미(monosemy)’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영상의 의미작용은 지시의미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의미적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며, 영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주관적 경험이 함축된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한 영상의 읽기를 위해서는 자연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상의 약호에 대한 학습→약호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담론적 지식discursive knowledge’의 습득이 요구된다.”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273~274쪽

바르트는 대상 언어활동langage-objet과 메타 언어활동méta-langage을 구분한다. 대상 언어활동은 랑그의 차원에 대한 것이고, 메타 언어활동은 신화mythe 자체이다. 여기서 기호학자는 메타 언어활동에 집중하여 연구를 전개하면 된다. 바르트는 기호학의 관점을 어떤 대상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8)</sup> 그는 메타 언어활동, 즉 함축의미를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랑그 차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신화의 차원에서 기표가 될 기호만을 다루면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의미작용<sup>19)</sup>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미지이전, 문자이전 간에 메타 언어활동에서는 기호가 되고 여기에 기의가 결합하면서 의미작용이 수행된다. 이 지점에서 소쉬르의 관점론은 더욱 부각된다.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의미작용으로 환원하여 연구한다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발화행위와 그 결과인 발화체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연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 언어활동의 단계에서는 기표까지만 고정된 것이고, 여기가 기의가 결합하는 것, 즉 의미작용은 매우 자유롭다. 다음 언급을 보자.

그러므로 기호학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층위에서만 단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호학의 영역은 한정된 것이다. 기호학은 언어활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하는 작업은 읽기 혹은 해석뿐이다.<sup>20)</sup>

18) 바르트의 다음 언급은 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화의 모든 재료들matériaux이 표상적인 것이든 문자적인 것이든 그 재료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conscience signifiante)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료와는 무관하게 그 재료들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질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이미지는 확실히 문자보다 과정 없이 직접 다가오기 때문에, 이미지에는 그것을 분석하거나, 흐트리지 않고도 한순간에 의미작용이 부과된다. 그러나 더 이상 [대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지는 그것이 의미하는 순간부터 문자가 된다. 따라서 이미지는 문자처럼 일종의 판단(lexis)을 요청한다.” R. Barthes, *Mythologies*, Editions du Seuil, 1957, p.195.

19) 바르트는 랑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의미sens로 규정하고, 메타 언어작용에서 기표(랑그 차원의 기호)와 기의의 결합을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고 칭한다. *Ibid.*, p.202.

20) *Ibid.*, p.199.



김경용은 메타 언어활동 차원에서 의미작용이 함축의미와 신화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 구분은 신화의 작동방식을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함축의미가 특수하고 자의적이며 객관성이 모자란 개인적 성격을 띠는 반면, 신화는 시작이 어떻든 이미 사회적인 것이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다.<sup>21)</sup> 따라서 다음 바르트의 말은 다른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의미 차원으로 환원하고 의미의 층위를 구분하는 모든 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랑그의 체계내에서 그것은 기호이다. 그러나 이 단어를 모호하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신화만의 주요한 특징이다) 알다시피 신화에서 기표는 이미 랑그의 기호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신화의 세 번째 항을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 부르겠다. 여기서 그 이 [의미작용이라는] 용어는 신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신화가 이중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신화는 지칭하면서désigne 통고하고notifie, 이해시키면서 fait comprendre 받아들여지게 한다impose.<sup>22)</sup>

위 인용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후 논의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보자. 첫째는 메타 언어행위에서의 기호를 랑그의 기호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가 의미의 문제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의미작용’이 랑그 기호의 ‘의미sens’와는 다르게 이중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의미작용은 의미와 같이 사회적 규약으로서 고정된 뜻을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작용은 기호의 역할도 하지만, 랑그 차원과 다른 의미, 사회·문화적 의미를 통고하고, 받아들여지게 한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드리야르의 논의를 위치시키고 연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최효찬의 다음 언급을 보자.

21) 김경용, 앞의 글, 1994, 167~168쪽.

22) R. Barthes, *op.cit.*, 1957, p.204. 이탤릭 강조는 책의 저자.

보드리야르는 [...] 사물을 기호로 파악하고, 또 사회를 의미작용의 체계로 해석한다.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지칭하면서 현대인은 생산된 물건의 기능을 따지면서 아울러 상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위세와 권위, 곧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드리야르는 인간의 욕구를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차이’에 대한 욕구, 즉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망으로 해석한다.<sup>23)</sup>

인용문의 첫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사물을 기호로 파악했다는 것과 사회를 의미작용의 체계로 보았다는 것은 바르트의 메타 언어행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보드리야르와 함축의미

외시의미와 함축의미에 대한 견해를 보면, 보드리야르는 바르트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다만, 바르트의 후기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 바르트의 언급을 보자.

외시의미와 함축의미의 두 체계 가운데 하나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드러내는데, 다른 아닌 외시의미의 체계이다. 외시의미는 의미들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지만 첫 번째인 척한다. 이러한 환상 속에서 그것은 결국 함축 의미들 중 *마지막* 의미(독서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마감하게 하는 것 같은 의미)에 불과하며, 텍스트가 언어의 본성으로 자연으로서의 언어로 되돌아가는 척하게 해주는 고차원적 신화이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 자신이 발화체가 되면서 이후에 풀어놓는 의미가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단순하고, 글자그대로이며, 원초적인 무엇 요컨대 사실인 무엇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sup>24)</sup>

23) 최효찬, 『보드리야르 읽기: 시뮬라크르의 유혹과 하이퍼리얼의 리얼리티』, 세창미디어, 2019, 18쪽.

24) R. Barthes, *S/Z*, in *Oeuvres complètes III*, Editions du Seuil, 2002, p.126. 이탤릭 강조는 책의 저자.

여기서 외시의미로 명명된 기의는 바르트가 보기에 함축의미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의가 함축의미로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바르트는 외시의미와 함축의미가 일종의 유희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그 자체가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sup>25)</sup> 현실과 다른 차원에 있는 함축의미는 이미 자연의 차원을 벗어난 사회·문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이다. 문제는 외시의미인데, 외시의미는 함축의미의 하나로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장치를 통해 외시의미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sup>26)</sup>. 보드리야르는 이에 따라 대상 언어행위의 외시의미 역시 ““객관성objectivité”의 신화에 의해 유지되는 것”<sup>27)</sup>이라고 단정한다. 외시의미도 일종의 신화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다음과 같이 외시의미와 함축의미의 관계를 설명한다.

우리는 외시의미의 전개과정이 함축의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즉 외시된 기의, 이 객관적인 ‘실제’는 코드화된 형식일 뿐이다. ‘이데올로기’ 함축의미뿐만 아니라 외시의미에서도 완전한 형태를 갖추며, 결국 외시의미는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정교한 함축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8)</sup>

외시의미에도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은 결국 바르트가 초기에 신화라고 불렀던 의미작용이 대상 언어행위의 단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후기 바르트의 이론을 따르면서, 대상 언어행위의 차별적

---

25) *Ibid.*, p.126.

26) 김인식, 『바르트 기호학의 해체: 물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형2』, 『기호학연구』 2, 한국기호학회, 1996, 138쪽.

27) J. Baudriard, *Pour une critique de l'économie politique du signe*, Gallimard, 1972, p.191.

28) *Ibid.*, p.192.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의미의 문제를 모두 의미작용의 기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드리야르는 사물이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은 하나의 신화라고 단언한다.<sup>29)</sup>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사물은 신화로서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과 의미작용들에 지나지 않는다. 사물은 의미작용의 대상으로서 소비와 관련되었을 때, 신화와 같이 두 가지 의미작용의 대상이 된다. 첫 번째, 주체가 개인적인 감정을 사물에 투사함으로써 사물은 객관적인 용도 차원의 의미에서는 벗어난다. 두 번째, 사물은 상표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사물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화론에서 보았던 대상 언어행위 차원의 의미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드리야르의 예를 보면, 냉장고와 자동차는 소비의 대상으로서 이들이 냉장이나 이동이라는 의미들과 맺는 객관적 관계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의미작용과 같이 그들이 가진 기능으로부터 탈문맥화(décontextualisé)된 사물로서만 언급될 뿐이다.<sup>30)</sup>

메타 언어행위를 통한 의미작용은 ‘여론’이라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를 도식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 속에서의 의미의 교환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드리야르는 “대중매체는 영원히 응답을 금지하며, 모든 교환과정

29) *Ibid.*, p.60.

30) 소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집중된 관심, 매력, 열정, 경험의 투사와 같은 개인적인 의미작용 역시 사물의 의미작용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음 배영달이 든 예는 소비의 대상으로서 사물의 의미작용이 신화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소비는 상품이 즉각 기호로 혹은 기호 가치로 생산되고 기호가 상품으로 생산되는 단계를 규정한다. 달리 말하면 소비는 기호 가치가 두드러지게 소비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튼튼하고 건강한 몸매를 지닌 연예인 설현이 광고하는 <스프라이트>를 마실 때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건강함’, ‘다이내믹함’ 혹은 ‘쿨한 매력’이라는 기호 가치, 이미지 가치이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고급스런 분위기에서 브랜드 가치의 상징을 기호 가치, 이미지 가치로 소비하는 것이다.” 배영달,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읽기』, 세창미디어, 2013, 76쪽.

을 불가능하게 만든다”<sup>31)</sup>고 단언한다. 즉, 의미작용으로서의 신화는 권력화되어 있으며, 일방적으로 대중에 강요될 뿐이다.<sup>32)</sup> 개인은 그 의미작용에 개입할 수 없고, 강요받을 뿐이다. 보드리야르가 신화 차원의 의미작용만을 인정하고, 미디어의 일방향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바르트의 프티 부르주아의 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논의를 이와 관련하여 발전시키기보다, 다음에서는 보드리야르의 이론에서 기호학 기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 초기의 저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 IV. 사물의 기능으로부터의 해방

### 1. 사물, 노동, 소비

보드리야르의 『사물의 체계』는 『현대세계의 일상성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을 쓴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의 지도하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된 저서이다. 보드리야르의 여러 용어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사물의 체계』와 『소비의 사회』를 바탕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31) J. Baudriard, *op.cit.*, 1972, p.208.

32) 송태현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마셜 맥루언 *Herbert Marshall McLuhan*의 유명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주장과 연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는 신화의 의미작용이 가지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엔첸스베르거의 주장처럼 대중매체의 내용물을 민주화하고 권력자에게서 대중매체의 지배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 보드리야르는 현행의 미디어 구조 전체를 전복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이론이나 전략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텔레비전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사회 통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텔레비전 비판자들은 흔히 그것이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체제가 파견한 전망경 *望鏡*-밀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보드리야르는 텔레비전이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말하지 않고 응답 없는 일방적인 발언에 마주하여 결정적으로 유리되어 있다는 확실성의 증표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태현, 「맥루언과 보드리야르: ‘미디어는 메시지다’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해석」, 『외국문학연구』 제26호, 외국문학연구소, 2007, 217쪽.

할 수 있다. 특히 ‘사물objet’의 개념을 통해 그의 연구는 ‘탈근대 문명에 관한 탐구’라고 평가받게 된다. 그가 사물이라는 평범한 언어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물은 그냥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드리야르는 사물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에서 해왔던 일과 하는 일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사물이라는 단순한 용어에, 보드리야르는 노동과 소비를 대조적으로 연결한다. 근대와 현대를 서로 다른 문명으로 구분할 때, 이 두 문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상적 사물의 존재 방식과 향유 방식”<sup>33)</sup>이다. 사물은 노동과 연결되면서 다음과 같이 근대라는 문명을 보여준다.<sup>34)</sup>

안정된 연금과 상속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정 경제에서, 소비는 결코 생산을 능가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도덕적 논리에서 원인이 결과에 선행하듯이, 노동은 언제나 노동의 산물에 선행한다. 이 금융적 축적 방식은 개인의 긴장을 통해 예상과 희생과 흡수를 욕구로 만든다. 이 절약으로 점철된 문명 전체는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20세기에는 전통적인 경제적 계산과 도덕적 허영심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가난한 금리생활자의 시대착오적 초상으로 끝난다. 자기방식에 따라 살려고 한 나머지, 몇몇 세대를 전체가 자기 방식 안에서만 살고 말았다. 소유의 개념이 절정에 달한 한 시대의 노동, 가치, 축적과 같은 이 모든 미덕은 그것을 증언하는 사물들을 통해서 여전히 감지될 수 있지만, 이 미덕을 상실한 세대는 프티 부르주아의 실내를 자주

33) J. Baudrillard, *op.cit.*, 1968, p.223.

34) 보드리야르는 르페브르의 이론과 일상의 개념과, 이 일상이 가장 사소한 사물의 의미 작용에서부터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한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 레인Richard J. Lane이 인용한 르페브르의 언급은 두 학자의 관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정한 비평은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를 틀 짓는 인간 ‘세계’, 우리가 보고 행하는 일상적인 것들, 보잘것없는 사물과 (외형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심오한 의미를 숨기고 있는 감각, 이러한 일반적 현실 아래에 은폐되어 있는 인간적 현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보드리야르는 이처럼 “진정성이 결여된 가상적 현실unreality” 개념을 르페브르와 공유한다.” 리처드 J. 레인, 『장보드리야르 소비하기』, 앨피, 2004, 127쪽. 르페브르 인용 부분의 서지는 H. Lefebvre, *Critique of Everyday Life*, trans. John Moore, London, Verso, 1991, p.168.

드나들고 있다.<sup>35)</sup>

보드리야르는 근대가 노동과 생산은 순환의 관계로 그 밖을 이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소비 역시 그 자체로 본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sup>36)</sup> 부차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는 소비가 우선시 되는 시대이다. “구매하고 나중에 노동으로 빚을 갚는다”<sup>37)</sup> 시대에 소비는 지금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제 사물은 소비와 연결되며, 소비가 단순히 용도의 결여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면 된다. 보드리야르는 이 소비가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동인이며, 또 의미작용을 통해 소비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의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소비는 근대의 능동적 주체 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이제 사물의 기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차이의 욕구’<sup>38)</sup>로 인해 소비한다. 예를 들어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여타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에는 배타적이다. 제품의 기능상 차이가 없거나 타제품의 성능이 좋은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플의 제품을 소비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제품을 쓰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위해 이 제품군들을 구매한다. 애플에서도 제품의 디자인을 철저하게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하려고 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의미작용의 논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주체나 제품이 그 자체로 의미를 얻지 못하고, 차이에 의해서 의미를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기호학적 의미작용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

35) *Ibid.*, p.223.

36) 최효찬, 앞의 글, 2019, 32쪽.

37) J. Baudrillard, *op.cit.*, 1968, p.224.

38) 최효찬은 이에 대해서 슬라예보 지젝Slavoj Žižek이 제기한 ‘잉여쾌락’ 개념을 보충한다. “욕망은 대상의 고유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액인 ‘잉여쾌락’에 의해 지속된다. 인간은 결코 닿지 않는 욕망을 향한 추구를 멈추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대상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실체는 텅 빈 껍데기로 남아 욕망의 결핍을 낳는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이 곧 ‘잉여쾌락’이다. 지젝은 이것이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라며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차이의 욕구가 재생산된다고 강조한다. 주체들이 ‘차이의 소비’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잉여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효찬, 『장 보드리야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7쪽.

기제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최효찬의 언급을 보자.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소비란 자율적인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와, 또한 상품의 상대적인 사회적 위세 및 가치를 결정하는 의미작용의 질서에 지배받고 있다. 개인은 사물의 지배를 받으며 그 결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한 사물과 같은 존재다.<sup>39)</sup>

이제 의미작용은 주체의 몫이 아니라, 거대자본이나 정치가 이미 만들어 놓은 차이를 당연한 것과 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한다. 위에서 주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했다’라는 언급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물과 의미작용

보드리야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대적 사물의 ‘진리’는 무엇에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작용을 한다는 데 있다. 사물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기호로 취급된다.”<sup>40)</sup> 다시 말해서, 사물의 존재 양식은 기호학적 방식으로 이해된다. 기호학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 과정, 즉 세미오시스로 전개된다. 전동열에 따르면, 기의 부분이 의미부여 encodage 혹은 의미해독d  codage의 대상이 되든 상관없이, 기호는 결국 “문화적 단위로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sup>41)</sup>. 이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의미작용에는 집단의 강요된 욕망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이

---

39) 위의 글, 2쪽.

40) J. Baudrillard, *La soci  t  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Editions Deno  l, 1970, p.180.

41) 전동열, 앞의 글, 2005, 15쪽.



‘투영’은 보드리야르가 주장한 하이퍼리얼hyperréal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체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 주체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완성된 사물에 대한 의미작용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의미작용에 대한 반응은 의미작용을 수행한 누군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소비로 나타난다. 이는 세미오시스 과정이 이른바 담론의 조작과정이라는 단정에 수긍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 조작의 가능성은 예코에 의해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완결된 의미론적 구조의 창안invention이 단지 통제적 가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sup>42)</sup>한다. 의미론적 구조는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에는 일종의 조작이 개입할 수 있다.

규칙 또는 코드의 유동성은 담론의 조작을 더욱 용이하게 허용해준다. 서양 문화의 전통에서 수사학의 이름으로 알려진 수많은 말하기 기법들은 모두 특정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담론 조작 기술을 가리킨다. 특히 역설이나 아이러니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뜻이 서로 다르으로써, 발화의 양면성을 뚜렷이 부각시킨다.<sup>43)</sup>

대중은 그 조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다. 정치세력, 거대 기업, 미디어 권력 등, 우리 사회에 의미작용에 개입하고 자기의 뜻을 대중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집단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가짜라고 판명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대중들의 의미작용에 대한 수동적 입장도 한몫한다.

결국, 사물은 그것의 역사, 그것의 당연한 기능이나 성질로 분석되지 않는다.<sup>44)</sup> 사물은 사회 차원의 의미작용을 거치게 되며, 이미 담론이 투

42) 움베르토 예코, 『기호학 이론』, 서우석 역, 문학과 지성, 1985, 145쪽

43) 신현숙,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월인, 2006, 21쪽.

44) 배영달은 이를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된 사물과 세계는 이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상실한다. 사물의 세계는 자체의 구속력을 상실하고 정보를 정보로써 생산하는 매개의 형식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이

영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물은 실체 혹은 실재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로서 주체에게 접근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를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대조로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비합리성에 관심을 둔다고 밝힌다.

사물의 지각할 수 있는 물질성을 넘어서 일관성 있는 기술적 체계가 끊임없이 변형되고 방해받는 그러한 압박의 형태를 이루는 현실에까지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방해다. 사물의 합리성(*rationalité*)이 어떻게 욕구의 비합리성(*irrationalité*)과 어긋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순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작용의 체계를 나타나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따라서 근본적인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술적 모델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때, 사물에서 경험한 현실은 끊임없이 이 기술적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sup>45)</sup>

기호학을 통한 분석은 이 비합리성과 관련된 의미작용을 탐구한다. 여기서 합리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 합리성은 사물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의미작용의 한 경우로 축소된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의미작용의 단계를 추상화로 설명하는데, 이 추상화는 그 자체로 사물에서 가장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추상화 작업이 ‘객관적 구조의 진화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sup>46)</sup>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 그것이 기계라고 할 때, 사물을 기술 영역에서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essentiel*)이고, 욕구와 관

---

미지와 기호가 된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물은 내면적 실체성, 즉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인 실재를 상실하게 된다.” 배영달, 앞의 글, 2013, 101~102쪽.

- 45) J. Baudrillard, *op.cit.*, 1968, pp.13~14. 이와 관련하여 배영달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사물과 욕구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글자 그대로의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호로서 사물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데 이는 무한히 계속된다.” 배영달, 「소비 사회의 기호학 또는 사물의 기호학」, 『한국프랑스학논집』 28권, 1999, 379쪽. 그의 논의는 결국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투영된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며, 욕구를 발생시킨 사물의 의미작용은 주체 자신에 의해 자연 발생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46) *Ibid.*, p.9.

행이라는 심리적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연구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inessential 것이다. 보드리야르의 연구는 비본질적인 것에 속하지만, 본질적인 성격도 사물의 성격 중 하나로 연구 스펙트럼에 포함한다.<sup>47)</sup> 이는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외시의미가 함축의미의 하나일 뿐이라는 바르트의 후기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논리와 비논리, 본질과 비본질은 대상에 대한 의미작용 중 하나이지, 대립 관계를 통해 다른 층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음 박정자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어떤 실재와도 교환되지 않으며 그저 둘레선 없고 참조도 없이 무한한 회로 속에서 자신만을 지시하는 것이 시물라크르이다. 그러므로 시물라시옹은 재현과 대립되는 것이다. 재현이란 기호와 실재 사이에 등가성이 있다는 원칙 위에서만 성립이 되는데, 시물라시옹은 가치로서 기호를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물라시옹을 가짜 재현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재현 안으로 흡수하려 하는 데 반해 시물라시옹은 재현 그 자체를 시물라크르로 간주해 그것을 자기 안에 포섭하고 무력화시키고 만다.<sup>48)</sup>

시물라시옹은 사회 속에서 사물에 대해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메타 언어행위이다. 이 과정은 신화의 세미오시스와 같이 한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자연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 해석하게 만드는 방해 perturbation와 강요의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재현représentation은 시물라시옹과 다른 기제에서 수행된다. 재현은 말 그대로 대상을 다시 그려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재현의 결과는 외형이나 의미에서 대상 자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합리성이나 본질적 성격을 가진다. 시물라시옹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대상과의 비합리적·비본질적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전자 제품의 제조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한다든지, 자동차를 통해 사회적 신분이나 권위를 확인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

47) *Ibid.*, pp.9~10.

48) 박정자, 『시물라크르의 시대』, 기파랑, 2019, 267쪽.

한다.<sup>49)</sup> 이제 대상과 관련된 소비와 같은 사회적 행위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의미작용에 의해 좌우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물라시옹은 대상 언어행위, 랑그 차원의 기표와 기의 결합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현과 시물라시옹은 서로 다른 방향의 의미작용으로서 대립적인 항목들이 아니다. ‘시물라시옹 재현을 포섭하고 무력화 한다’는 박정자의 말은 위에서 바르트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재현이 시물라시옹의 한 단계에 위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가 시물라시옹 이전에 사물의 체계를 연구한 것은 소비의 대상인 사물이 실체가 아닌 기호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그 기호의 의미작용 차원이 바르트의 신화와 유사하다고 했을 때, 실체로서 사물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조차도 모두 기호가치에 흡수되어, 이제 주체의 인식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49) 최장순이 제시하는 다음 예들은 사물과 그것에 대한 의미행위가 사물의 실재를 의미를 감춘다는 점을 보여준다. “티파니Tiffany는 반지가 아니라 ‘청혼’의 의미가 더해졌고, 한때 여성들에게 타다Tada는 커다란 택시가 아니라 ‘안심이동’ 혹은 ‘쾌적한 이동’을 의미했다. BMW는 ‘자동차’에 ‘자수성가’를 더해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CEO’들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원래 경쟁 상대인 벤츠Benz는 ‘자동차’에 ‘성공’이라는 알파를 더해 ‘성공한 자들의 자동차’를 뜻했다. 그런데 벤츠를 견제하던 BMW는 벤츠의 소비자를 ‘물려받은 재산으로 성공한 사람’, BMW의 소비자는 ‘자기 능력만으로 성공한 젊고 능력있는 CEO’로 포지셔닝 해버렸다.” 최장순, 『의미의 발견: 물건이 아닌 의미를 파는 법』, 틈새책방, 2020, 130쪽.

## V. 결론

본 논문은 보드리야르Jean Baudriard의 이론들을 기호학의 의미작용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보드리야르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이론을 자신의 초기 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호학적 사고에도 매우 정통하다. 그의 시뮬라시옹 이론은 우리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보드리야르가 의미의 층위 분화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는 데 주목했다.

보드리야르는 주체의 사물 인식 과정을 기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의 이론은 이 방식이 그 실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의미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드리야르는 사물에 대한 의미작용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누지만, 이 의미작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연구는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을 기술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그 의미작용이 개인적인 함축의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미작용은 집단적인 것으로서 개인은 그 의미작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은밀한 사회적 의미작용의 확인은 바르트가 주장한 신화 존재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신화는 제국주의, 이념과 같은 거대담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드리야르는 그 신화가 우리의 일상에 개인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사회적 성격의 의미작용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욕망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개인은 유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러한 욕망을 집요하게 강요받고,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 욕망을 아낌없이 소비하고 있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는 제품들을 그 용도에 맞추어 소비하기보다, 제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그것에 맞

지 않는 제품들을 배척한다. 이른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소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기능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망설임 없이 같은 회사의 신제품으로 바꾼다. ‘재구매 의사’보다 ‘충성도’가 소비 사회에서 더 흔히 들리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은 실재가 없고, 하이퍼리얼만 존재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설명할 때 이 주장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에서 선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하이퍼리얼 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후, 보드리야르를 기호학자로 규정하고 그의 논의들을 재검토하는 일이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호학은 메타언어로써, 사회 현상, 개인의 사회적 행동방식 등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으며, 그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해왔다. 보드리야르는 보통 철학자, 사회학자, 미디어 이론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기호학이 다른 학문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정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이어지는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 김인식, 「바르트 기호학의 해체: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험2」, 『기호학연구』 2, 한국기호학회, 1996, 138쪽.
-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박정자, 『시뮬라크르의 시대』, 기파랑, 2019.
- 배영달,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읽기』, 세창미디어, 2013.
- 배영달, 「소비사회의 기호학 또는 사물의 기호학」, 『한국프랑스학논집』 28권, 한국프랑스 학회, 1999, 369~383쪽.
- 백성기, 『미디어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송태현, 「맥루언과 보드리야르: ‘미디어는 메시지를 다’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해석」, 『외국문학연구』 제26호, 2007, 209~228쪽.
-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 신현숙,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월인, 2006, 21쪽.
-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 최용호, 신정아, 『노랑 신호등: 포스트모던 비평의 지점』, 인간사랑, 2012.
- 최용호, 『광고, 커뮤니케이션, 문화마케팅』, 인간사랑, 2005, 97~185쪽.
- 최장순, 『의미의 발견: 물건이 아닌 의미를 파는 법』, 틈새책방, 2020.
- 최효찬, 『보드리야르 읽기: 시뮬라크르의 유혹과 하이퍼리얼의 리얼리티』, 세창 미디어, 2019.
- 최효찬, 『장 보드리야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리처드 J. 레인, 『장 보드리야르 소비하기』, 앨피, 2004.
- 움베르토 에코, 『기호학 이론』, 서우석 역, 문학과 지성, 1985.
- 유리 로트만,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역, 고려원, 1991.
- 주디스 윌리엄슨, 『광고의 기호학: 광고 읽기, 그 의미와 이데올로기』, 박정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Adam J.-M., *Linguistique textuelle: Des genre de discours aux textes*, Nathan, 1999.
- Barthes R., *Mythologies*, Editions du Seuil, 1957.
- Barthes R., *S/Z*, in *Oeuvres complètes III*, Editions du Seuil, 2002.
- Baudrillard J.,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Editions Denoël, 1970.

- Baudrillard J., *Le Système des objets : la consommation des signes*, Editions Gallimard, 1968.
- Baudrillard J., *Pour une critique de l'économie politique du signe*, Gallimard, 1972.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16.



# Jean Baudriard's Theorie and Semiology, a Study of Signification

Kim, Hui-Teak

This article examines Jean Baudriard's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ignification in semiotics. Baudriard is also very versed in semiotic thinking as he actively uses the theory of Claude Lévi-Strauss in his studies. His theory of simulation deals with the process of signification occurring at the level of our daily life. This article noted that Baudriard recognized the layered differentiation of signification and developed his theory by utilizing it.

Baudriard describes the process of recognizing Objects by the subject in a semiotic way. His theory shows that the way of human perception of objects is not through their substance, but through the signification of them. Baudriard divides the signification of an object into essential and non-essential, but does not select and judge either of these signification for his study. In other words, his research can be seen as describing the signification processes that occur in a society.

Baudriard believes that the meaning is not limited to personal connotation. The significations are collective, and the individual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se significations. The confirmation of this secret social signification revealed the existence of the myth of Barthes. The myth of our society does not happen only in grand discourses such as imperialism and ideology. Baudriard clearly showed that the myth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ividual practice in our daily lives.

Keywords : Jean Baudriard, Semiotics, The System of Objects, Essential, Non-essential

투고일: 2020. 11. 14./ 심사일: 2020. 12. 09./ 심사완료일: 2020. 12. 10.



# 지배권력에 잠재된 프레임 구조의 표층과 심층구조\*

선미라\*\*

## 【 차 례 】

- I. 서 언
- II. 권력의 프레임
- III. 권력 프레임의 표층구조
- IV. 권력 프레임의 심층구조
- V. 결 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배권력에 잠재된 프레임 구조의 표층과 심층 구조에 대한 연구다.

권력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생성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통제와 감시 그리고 처벌을 위주로 하는 모순된 구조 속에서는 이 관계를 역행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자발적 참여가 결여되고 표층적 구조의 생산물 위주로 전체주의적 틀 속으로 빨려드는 형상을 초래하여 기의는 사라지고 기표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통제는 권태와 허무를 생산하고 이데아의 세계를 꿈꾸며 행복하려는 출구를 찾으려는 의지가 생성된다. 이 의지를 통해 이데아의 다리를 만들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소통할 장치를 찾게 된다. 이것을 사회적 담론에서 찾으려 하며 심층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이데아의 상징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열쇠어 : 표층구조, 심층구조, 권력 구조, 프레임, 파놉티콘

\* 이 논문은 한국기호학회 2020. 11. 7. 13시-18시, 5.18서울사무소 회의실,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충 완성함.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전 연구원, mptop12@gmail.com

## I. 서 언

이 논문은 지배권력에 잠재된 프레임 구조의 표층과 심층 구조에 대한 연구다.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삶의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문명에 있어서 권력화된 시스템에서 이 팬더믹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권력 구조의 허점에서는 이런 인류사적 대재앙 앞에서 그 어떤 논쟁이나 방향 제시 자체가 그 어떤 합리성이나 이성적 판단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하려는 사고 자체를 마비시키는 장애물로 등장한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권력 구조의 프레임 문제와 연결된다. 이 프레임의 작동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 디지털 구조를 타고 전파되며 그 방법은 비유 상징 페러디 등과 같은 간편 약식으로 기호화되어 빠르게 확산된다. 이 확산 속도는 권력 구조의 프레임을 검토하고 담론화하고 심의하고 숙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현실에 직면하면 이런 프레임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삶의 그물망들은 그 관계성을 잃게 되고 구성원 자체를 위협에 빠트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 구조의 프레임은 매우 위험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식 제시가 이 논문의 초점이며 권력 구조의 프레임과 그 표층구조 그리고 심층구조<sup>1)</sup>를 통해 살펴봄으로서 구조적 모순과 그 모순의 진행과정을 진단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의 모순에서 구조적 해결점을 이 논문에서 찾고자한다.

---

1)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2, Klincksieck, 1985.

## II. 권력의 프레임

권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그 어떤 생산성을 요구한다. 스스로의 구조를 가지기 위해 인위적인 그 어떤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그것’ 즉 권력의 생산성이다. 그래서 권력은 그 무엇을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진리 의식을 생산한다.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권력이 생산하는 것<sup>2)</sup>이고 주체와 대상 또한 생산된 산물이 된다.

권력과 생산은 일종의 자본화된 사회 권력의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 프레임 속에서 주체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이고 이 주체에 저항하는 ‘저항의 주체’ 또한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가 된다. 대상 역시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이며, 이 대상에 저항하는 ‘저항의 대상’ 또한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저항의 대상이다.

이런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권력이 작동하면 억압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식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지식 창출의 명분 아래 권력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 지식과 권력은 억압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사회 분야별 통제 시스템을 격자화 하는데 이것이 프레임이고 권력 하에서 감시되고 처벌되는 파놉티콘 형상의 현실화된 모습이다.

‘격리자’ ‘처벌자’ ‘감시자’가 발생하고 ‘보여지기’ ‘수동적’ ‘나는 죄수’ ‘감시받고 있다’ ‘정보가 없다’ ‘보이니 책임 있다’ ‘대상’ ‘여성’ ‘노예’같은 isotopie 계열들이 시각화되고 내면화되어 자동기계나 정보화 혹은 책임화나 존재 방식화 그리고 성차별이나 계급 차별화로 고정되어서 권력 프레임 구조 속에 갇히게 된다. 이런 권력 구조에 갇히게 되면 통계적 인간으로 수치화되고 권력의 장치 속에서 하나의 구조물로 장식품이 되어 간다. 자발적인 순종자가 되어 복종이나 추종이 내면화되고 학

---

2)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중에서 권력생산 구조적 문제에 관한 요지.

교 같은 집단 공동체에서는 성적 위주의 수치나 공간 분리 그리고 학생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이런 자발적 순종의 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이미 통치자나 권력 군주의 권위를 위해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위해 신체형의 형벌을 가하는 보여주기식 처벌을 통한 권력의 권위화가 점점 그 모습을 바꾸면서 ‘가시화하지 않는 다른 방법’ 즉 숨겨놓은 처벌법 감옥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스펙터클 위주의 권위가 더 간교해지고 교묘해져서 그 구조적 프레임 또한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가려진 공간들이 탄생되고 ‘숨기기’ ‘위장하기’ ‘왜곡하기’ 등의 어지러운 현상들이 사회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본 것’에 대한 말하기가 필요하다. 이것의 사회화가 공개적 토론이며 ‘나’ 이외의 존재와의 소통이 필요해진 것이다. ‘가려지고’ ‘감추어진’ 존재들에 대한 흔적은 그래서 담론을 통해 제시되고 사회로 알려진다. 알려진 것으로부터 역으로 숨겨진 역사를 통해 또다시 밖으로 표출되는 순환의 역사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분절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담론을 개발한 것이다.

새로운 해결 방식이 담론을 통해 제시되고 담론 형성과 사물의 규칙을 규정하는 지식의 고고학 시대를 맞이하면서 권력은 모든 사회에서 이 담론을 통해 통제되고 선별되고 조직되며 재분배되기까지 한다. 신은 죽었고 개인도 죽었으며 오직 사회적 담론만이 해결인 듯 이 권력 구조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계속한다.

데카르트의 사유 방식으로 이 거대 권력의 프레임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며, 오직 자유만이 이 권력 구조의 프레임에 대해 반성하는 철학적 기회를 제공한다. 감시와 처벌은 감옥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면화되어 나타나며 이 두 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체와 대상의 현상은 파놉시스 분석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규율은 복종 되고 훈련된 신체를 만들며 또한

순종하는 신체<sup>3)</sup>를 만들어 낸다.

이때 규율은 신체와 능력을 분리시키고 기능적인 대상으로서의 인격체를 요구한다. 학교에서는 아침 등교부터 시간표로 분리시키고 공간을 제안하는 현상에서 이 통제된 공간에서 적응하게 된다. 공간분할 또한 근대적 공장이나 군대 등에서 발생한다. 감옥형 파놉시스가 공간을 조정하게 되며 머릿속에 통제자가 없어도 스스로 내면화되어 감시자 없는 감시를 받게 된다.

이런 식의 규율의 내면화는 신체의 내면화로 이어지고 단순화되어 일상에서 공포와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신체적인 규율은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자유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이며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된 주체는 마치 자동인형 같은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사고나 발전은 불가능하다. 데카르트식 사고에서 이제는 저항으로의 담론 탐구가 필요하며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새로운 담론이 형성된다. 현실의 억압과 감시 그리고 규율에 대해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 Ⅲ. 권력 프레임의 표층구조

권력은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판단과 결정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게 된다. 관계에서 규명되는 순환적 고리 현상에 대해 니체는 ‘영원한 회귀를 위한 창조와 파괴의 반복된 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디오니소스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 운명론의 수금자로서 아모르 파티를 인정한다. 반복된 프렉탈 구조 속에서 구조의 의미와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비해 플라톤은 ‘인생은 반쪽을 향해 향해’하는 이상적 방법을 제시하여 이데아의 시스템 구축을 펼친다.

---

3)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의 방식에서 사회적 통제구조를 모순을 악용하여 어떻게 내면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통찰.

꿈속에 그리는 이데아의 복사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며 복사물 그것은 이데아의 내재성이 된다. 사물과 개념에 대해 모든 것은 꿈속의 반쪽으로 실행해야 할 주체의 의무가 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역사적 시민은 최소한 2천 년 동안 권력 프레임의 순응자였다. 이유는 권력의 프레임 내부에서 저항했기 때문이다. 저항하면 할수록 권력의 프레임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모순의 소용돌이로 휘몰리게 되는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 프레임은 이렇게 저항을 통해 강해지는 사회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와 파괴라는 반복적 행위를 겪는 동안에 자신의 구조를 복제하면서 그 규모를 확장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 프레임은 비유 상징 패러디로 형상화되며 경제적이며 최대의 효율성을 누리면서 권력 사회 구조의 기본 프레임의 요소를 충족하는 사회적 확인을 통해 지배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몇 가지 대표적인 현상으로 정치, 미디어, 교육이 있으며 이는 세뇌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나타난다<sup>4)</sup> 이는 집단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되기 쉽고 단순 구조에서 그만큼 단순하게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세뇌의 가장 중요한 형식은 네러티브다<sup>5)</sup>. 승자 위주의 네러티브는 기의는 없고 기표만 난무하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성찰이나 지혜와 용기 절제 같은 이성적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의미가 없고 메마른 그래서 상징성을 찾을 수 없는 기표의 세계로 표상화되기 쉽다. 인간 내면에서 찾고자 하는 기의의 세계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내면의 네러티브는 통제 속에서 움츠리거나 생략되며 혹은 기타 등등으로 처리된다. 세 번째로는 대중이 결코 빠져 나올 수 없는 네러티브의 유형은 권선징악이다<sup>6)</sup>. 선과 악의 프레임은 세뇌의 핵이다. 권선징악이라는 것

4) Carroll Quigley, *Tragedy and Hope: A History of the world in our time*, USA: Macmillan, 1966.

5) Faye J.-P., *Theorie du recit*, France: Hermann p. 43., *Langages totalitaires: Critique de la raison, l'economie narrative*, France: Hermann. 1972.



은 ‘권력은 선하다’라는 승자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파놉티콘의 또 다른 표층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세뇌의 본질인 네러티브를 파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도구인 정치, 미디어, 교육과 대등하게 담론화하지 않으면 어떤 혁명적인 움직임이라도 순응하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독교 네러티브 자체가 순응하는 종교현상이라고 보는 René Girard가 있으며 권력 구조를 위한 ‘희생양 찾기’ 혹은 ‘낙인찍기’가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 권선징악 네러티브와 ‘낙인찍기’ 혹은 ‘호명’ 행위는 유대 금융가들, 근대 자유주의, 맑시즘, 파시즘, 급진적 페미니즘의 거친 패러디였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신종권력 또한 바로 이 네러티브를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게 된다. 복제의 효과와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 패러디를 확보하는 시스템이 권력 구조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것이다.

Jean Pierre Faye는 승자의 네러티브를 정리했다. 진선미는 동일하며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며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역사가 우리 편이다”라는 역사주의적 관점이다. 이 네러티브 형식은 정치, 교육, 미디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권력 유지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에 따라 정치, 외교, 전쟁 프로파간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대만 살펴보더라도 공화국, 자본주의, 금융패권, 양극화, 시장 통폐합, 바이오 및 AI의 세계, 앵글로색슨 제국주의, 유대 금융 제국주의 등이 모두 권선징악, 선한 승자의 네러티브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선한 사람이 이긴다는 권선징악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선한 자는 결코 승자인 적이 없었다. 이런 차원을 분석해보면 기호학적 네러티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처하게 된다. 극복해야 할 하나의 이념이 된다. ‘악(당)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결핍을 만든다’- ‘어디선가 주인공이 나타나 악(당)을 저지하려 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시련에 처

---

6) Girard R.,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US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한다'. '주인공은 어떤 선지자를 만나 교훈을 얻거나 비법을 배운다'- '결국 악(당)을 물리친다'- '결핍이 해소되거나 나 선했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악당은 처벌받는다'는 권력의 선했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악당은 처벌받는다는 권력의 프레임은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며 꿈의 세계로 묘사된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복제한 것이다.

결핍과 시련의 네러티브는 권력자의 생산-통치-재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에게나 통하는 거짓말이다. 생산-통치-재생산 수단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이 네러티브는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미디어 조작에 불과하다. 결핍과 시련의 네러티브 안으로 들어간 시민은 "시련 없는 성공은 없다."라든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으며 자식들에게 그런 노예의 전술을 가르쳤다. 남들은 하지도 않을 시련과 실패를 수십 차례 겪으면서 고작 작은 과실 하나 따먹는 것으로 인생을 마친다. 권력과 권력의 후계자들은 실패라는 isotopie를 생산하지 않는다. 권력은 성공의 생산을 목표로 하기때문에 모순적 관계에서 그 표층의 의미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 프레임의 표층적 의미로 인해 사회 구조가 유지하고자 하는 체제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 그 전략은 사회적 담론을 통해 나타나며 사회적 교육을 통해 네러티브를 확보한다. 먼저 권선징악이 권력의 패러디라는 것을 교육하고 선했 정치 권력은 없다는 것을 상징화 한다. 그러면서 진선미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담론화하며 모든 종류의 낙인찍기는 권력 프레임의 언어 전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작은 성공을 이루도록 아이들과 네러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조적 시스템을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극복 방법이다.

## IV. 권력 프레임의 심층구조

권력의 심층구조는 그 표층구조와 양면성을 이룬다. 그래서 권력의 프레임은 내면화에서 작동한다. 파놉티콘은 이 내면화의 과정을 작동화하여 스스로 세뇌시키는 제3의 행위자로 작용한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사유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 강제 시스템은 새로운 인류의 장애물이다.

권력의 프레임 구조에서 인간은 권태와 허무를 겪게 된다. 기의가 부재되고 기표만 난무하는 권력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프레임 안에는 ‘아모르 파티’나 ‘그것’ 그리고 ‘르 피에르 악땅’ 같은 자유로운 사고의 범주를 발견할 수가 없다. 자유로운 사고의 확장을 가로막는 권력의 프레임은 건축공간학과 인간 행동학을 통제하는 파놉티콘의 반복된 현상에서 경제성과 교화성 그리고 안전의 원칙이라는 기표적 성격 때문에 표층구조에서는 유용하게 보인다. 하지만 심층구조에서는 결핍 현상으로 나타난다.

표층구조의 허무와 권태의 공간에서 벗어나려면 이데아 다리를 건너야 한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의미와 상징 가득한 프렉탈 구조에서 자신의 내재성과 담론을 펼쳐야 한다. 거기에 비로소 의미와 상징이 가득한 기의적 심층구조가 생성되어 새로운 권력 구조의 존재 의미가 함께할 수가 있다.

감시화되고 자동 기계화되며 내면화되어 현실의 권력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밝은 불빛’과 ‘비대칭성’ 그리고 ‘원형 공간’의 디지털 파놉티콘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심층구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흐름의 단절을 인식하고 모든 부조리나 모순들을 네러티브 하는 것이다. 표층구조의 구조적 모순이나 승자 위주의 역사적 네러티브를 사회적 담론으로 전환하고 그 주체와 대상이 승자나 패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다양한 극복의 방법이 제시된다. 불완전한 현실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 절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sup>7)</sup>는 표층과 심층의 상징성으로 볼 수 있다. 동굴 벽의 그림자 같은 환영과 이데아의 그림자인 현실이라고 하는 *isotopie*는 이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투영되기 때문에 감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현실계 즉 가짜세계는 지혜 용기 절제라는 선의 세계를 구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표만 난무하는 동굴 안의 형상을 만들수 밖에 없다. ‘이데아의 다리’는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 그 자체로 표출된다. 장 끌로드 꼬계의 모달리떼<sup>8)</sup>는 인간 의지의 표상으로 표출되며 바로 이 모순되는 이상과 감각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표층구조의 권력 구조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실과 이데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사회적 담론의 의미이고 심층구조에서 생성되는 권력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폴 리코르의 담론<sup>9)</sup>과 네러티브를 통한 극복 방법 또한 권력의 심층구조를 이해하는 지혜를 제공받는다. 장 끌로드 꼬계의 르 띠에르 악땅<sup>10)</sup>을 통한 극복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네러티브와 디스꾸르라는 주체와 대상 간의 담론을 통한 새로운 이데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 프레임의 구조적 모순은 극복될 수 있는 그 무엇임을 시사 받는다.

- 
- 7) 플라톤의 공화국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공화국의 기본 프레임을 위해 제시한 이데아의 개념 정리.
  - 8)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4』, 봉봉2, 220~230 쪽.
  - 9) 폴 리코르는 권력 구조의 파괴를 실천하는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실천론과 일맥 상통하며 개별적 행위 모델을 통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 10) 장 끌로드 꼬계는 행위자 모델에서 제 1 제 2 그리고 제 3 행위자를 설정하여 권력 구조의 기표적 현상에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갈등들을 제 3 행위자를 등장시킴으로서 그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방법론으로 4가지 모달리떼를 제시한다.

## V. 결 언

이 논문에서 제기된 권력 구조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의 문제들은 심층구조에서 제기하는 인식 꼬그니시옹의 차원에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다.

불행하게도 권력 구조의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현상에 대해 현대인은 더 이상 수용할 논리나 이성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의학이나 물리 혹은 생의학 부분에서도 코로나19의 제어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재현되고 있다. 기존의 논리나 의식체계로는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다. 사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충돌되고 이 충돌 현상에서 해결 방법은 보복을 택한다. 이때 보복의 방식은 신체형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형벌을 가함으로서 권력의 위력을 유지하고 계승해왔다. 이런 가혹한 처벌행위에 대해 인간의 인식능력은 더 이상 수용을 거부하고 변화를 요구하자 교정의 방식으로 권력 유지의 수단을 변형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시간과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며 관리자들과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또 다른 패턴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 사회에서 파생되는 보복과 교정 그리고 처벌의 양식은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 처벌의 물질적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합리성과 이성의 시대를 돌고 돌아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보복도 하지 않고 교정이나 처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하는 법을 시스템화 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인식 꼬그니시옹의 사유 아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파놉티콘처럼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고 부분이 전체를 리더하고 육체의 통제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통제하는 기술력이 권력의 지표가 된 것이다. 비유 상징 패러디는 더 이상의 이성적 범주에서 통제되지 않으며 인식의 범주에서 심층구조의 재결합으로 새로운 인식체계를 재구성할 때이다.

## 참고문헌

-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김인순 역, 열린책들, 2015.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사, 2020.
- 선미라 외, 폴 리콴트 삶의 의미들, 동문선, 2005.
-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 \_\_\_\_\_, 대동학세계사상 3, 봉봉2, 2019.
- \_\_\_\_\_, 대동학세계사상 4, 봉봉2, 2020.
- \_\_\_\_\_, 「칼 맑스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 『기호학연구』 제57집, 2018, 155~176 쪽.
- Coquet J. CL., *Le discours et son sujet 1*, Klincksieck, 1984.
- \_\_\_\_\_, *Le discours et son sujet 2*, Klincksieck, 1985.
- Dosse F., *Paul Ricoeur, les sens d'une vie*, Editions La Découverte & Syros, 1997.
- Carroll Quigley, *Tragedy and Hope: A History of the world in our time*, USA: Macmillan, 1966.
- Foucault M.,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Paris, 1990.
- \_\_\_\_\_,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Paris, 2008.
- \_\_\_\_\_, *Surveiller et punir*, Gallimard, Paris, 1993.
- Faye J.-P. *Theorie du récit*, France: Hermann p. 43, 1972.
- \_\_\_\_\_, *Langages totalitaires: Critique de la raison, l'économie narrative*, France: Hermann, 1972.
- Girard R.,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987, US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e Surface and Deep Structure of the Frame Structure on the Dominant Power

Sun, Mi-Ra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urface and deep structures of the frame structure potential to the dominant power.

The power is not produced, but it's a to be produced the basis of creation. However, in a contradictory structure centering on contro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it acts as a frame that reverses this relationship. Voluntary participation is lacking in such a society. So, it causes the shape to be sucked into the totalitarian frame, mainly for the products of the surface structure, and the signifiant disappears and lives in the signifier. Repression and control arising out of these structural contradictions produce boredom and vainness. And here, a willingness to find an exit to be happy while dreaming of the world of Idea is created. Through this will, the bridge of Idea is created and a device to communicat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s found.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that in social discourse and continuously suggest the symbolism of the idea by presenting the in deep structure.

Keywords : Surface structure, Deep structure, Power structure, Frame, Panopticon

투고일: 2020. 11. 27./ 심사일: 2020. 12. 09./ 심사완료일: 2020. 12. 10.





##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

송태미\*

###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
- III. ‘가능화된 주체’의 사례
- IV. 나오며

### 국문초록

전통적으로 파리학과 기호학에서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체와 그가 추구하는 대상의 존재 방식은 주체가 어떤 양태의 역량 - 의지, 의무, 지식, 능력 - 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의지’와 ‘의무’의 주체는 ‘잠재화’된 양태로 존재하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주체는 ‘현동화’된 양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수행>의 단계로 진입한 주체는 ‘실현화’된 양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1991년 『정념의 기호학』에서 그레마스과 폰타뉴는 주체의 역량에 ‘믿음’이라는 양태를 추가한다. 정념에 사로잡힌 주체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역량이 아니라 그의 주관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역량이 추가되면서 주체와 대상의 기호학적 존재 양식에도 ‘가능화’의 양식이 추가된다. 정념 주체가 그의 주관적 믿음에 따라 움직일 때 이러한 주체의 움직임이 의미생성행정의 심층에서는 고정된 가치체계를 재조정하도록 유도하는데 ‘가능화’는 바로 이렇게 한번 고정되었던 가치가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의미생성 이론 체계 속에 새롭게 등장한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레마스과 폰타뉴는 ‘가능화’를 서사 프로그램의 <수

---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강사, [taemi.song@gmail.com](mailto:taemi.song@gmail.com)

행> 바로 전 단계에 개입하는 상태로 보고 그 위치를 ‘현동화’와 ‘실현화’ 사이로 규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능화’는 기존의 의미생성행정 모델을 벗어나 있고 서사 프로그램에서도 벗어나 있음이 밝혀지면서 그 위치는 ‘실현화’와 ‘잠재화’ 사이로 재조정되고 의미생성행정 모델에는 선조건 층위가 도입된다. 우리가 보기에 이 재조정은 ‘가치 실현’의 서사에서 ‘가치 재조정’의 서사에까지 서사성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다. 본 연구는 ‘가능화’의 기호학적 위치가 재조정된 맥락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담화 사례를 통해 ‘가능화’가 ‘서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열쇠어 : 파리학파 기호학, 정념 기호학, 담화 기호학, 기호학적 존재양식, ‘가능화’, 의미생성행정 모델, 선조건 층위, 긴장도식, 리틀 포레스트, 미생

## I.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파리학파 기호학에서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체와 그가 추구하는 대상의 존재 방식은 주체가 어떤 양태의 역량 - 의지 *vouloir*, 의무 *devoir*, 지식 *savoir*, 능력 *pouvoir* - 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sup>1)</sup> 가치대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잠재화 *virtualisé*’된 양식으로 존재한다. 반면 대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주체는 ‘현동화 *actualisé*’된 양식으로 존재한다. 주체가 <수행>의 단계로 진입하여 대상을 획득하려는 계획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질 때 그는 ‘실현화 *réalisé*’된 양식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1991년 『정념의 기호학』<sup>2)</sup>을 발표하면서 그레마스과 폰타뉴는 주체의 역량에 ‘믿음 *croire*’이라는 양태를 추가한다. 정념에 사로잡힌 주체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역량이 아니라 그의 주관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1) A.J. Greimais & J.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Seuil, 1991, p.56.

2)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역, 강, 2014.

사람<sup>3)</sup>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 또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주관적 상상을 사실처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질투심에 사로잡힌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량은 의지도, 의무도, 지식도, 능력도 아닌 그의 주관적 ‘믿음’이다.

‘믿음’의 역량이 추가되면서 주체와 대상의 기호학적 존재 양식에도 ‘가능화’의 양식이 추가된다. 정념 주체가 그의 주관적 믿음에 따라 움직일 때 이러한 주체의 움직임이 의미생성행정의 심층에서는 고정된 가치 체계를 재조정하도록 유도하는데 ‘가능화’는 바로 이렇게 한번 고정되었던 가치가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상태를 가리킨다. ‘믿음’의 주체는 바로 이런 ‘가능화potentialisé’된 상태로 존재한다.<sup>4)</sup> 요컨대 기존에 잠재화, 현동화, 실현화로 구분되었던 기호학적 존재 양식은 ‘가능화’의 양식과 함께 아래와 같이 재정립된다.<sup>5)</sup>

	잠재화 mode virtualisé	가능화 mode potentialisé	현동화 mode actualisé	실현화 mode réalisé
주체 & 대상	의지 vouloir 의무 devoir	<b>믿음</b> croire	지식 savoir 능력 pouvoir	수행

[표 1] 주체의 역량과 존재양식

파리학파의 의미 이론 속에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었던 기존의 세 존재양식과 달리 새롭게 추가된 ‘가능화된 주체’의 경우 그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정념의 기호학』에서 그레마스

3) 같은 책, 259~457쪽.

4) *Ibid.*, pp.56~57.

5)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2003, p.179.

와 풍타뉴는 주체가 가치대상을 획득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행위를 가속화하거나 방해하는 조건으로 ‘정념’ 문제에 접근했으며 ‘가능화’의 자리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체의 ‘행위’, 이른바 서사 프로그램의 한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풍타뉴는 ‘정념’이 ‘행위’의 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보다 더 기저에 위치한 층위에서 담화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담화 기호학』에서 행위 주체가 아닌 정념 주체, 즉 ‘신체’를 심급으로 하는 세미오시스 이론을 정립하는데 이때 ‘가능화’ 양식의 위치도 서사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난 영역으로 재조정된다.<sup>6)</sup> ‘가능화’의 기호학적 위치의 이같은 재조정은 ‘가치 실현’의 서사에서 ‘가치 재조정’의 서사에까지 서사성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능화’의 기호학적 위치가 재조정된 맥락을 되짚어보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일본판과 한국판, 그리고 웹툰 <미생>의 사례를 참조하여 ‘가능화’의 위치 재조정이 ‘서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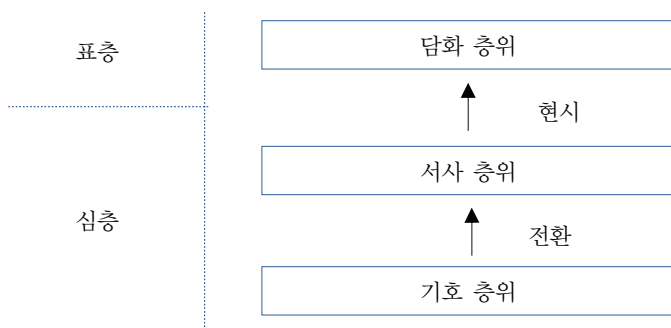
## II.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

### 1. ‘가능화된 주체’의 첫 번째 이론화

주지하다시피 그레마스의 의미생성행정은 기호 층위, 서사 층위, 담화 층위의 세 층위로 이루어진다. 랑그와 파롤의 구분을 적용하면 기호 층위는 심층의 랑그에, 담화 층위는 표층의 파롤에 상응하는데 심층 의미가 표층 의미로 발현되는 중간 단계에는 두 층위를 매개하는 서사 층위가 존재한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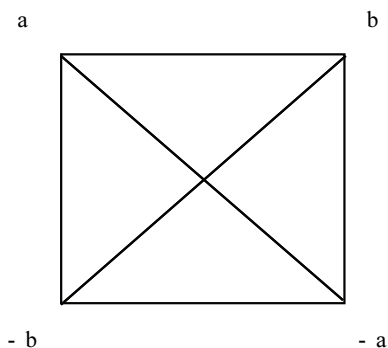
6) *Ibid.*, pp.81~145.

7)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200~250쪽.



[그림 1] 의미생성행정 모델

심층의 논리·의미론적 의미는 기호사각형이라는 모델을 통해 기술된다. 심층 의미는 반대( $a$  와  $b$ ), 모순( $a$ 와  $\neg a$  또는  $b$ 와  $\neg b$ ), 함의( $\neg a$ 와  $b$  또는  $\neg b$ 와  $a$ )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기호사각형은 바로 이 논리 관계를 사각형 꼴로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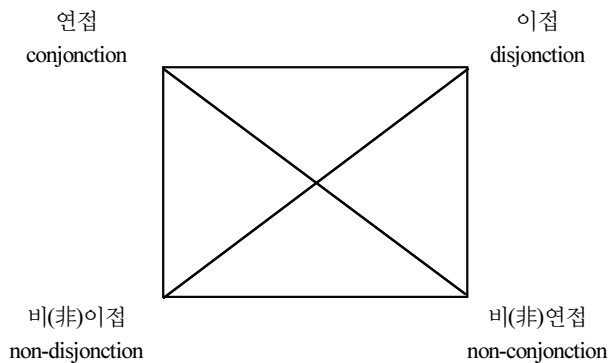
[그림 2] 기호사각형

심층 의미의 구조는 서사 층위에서 인형적 형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심층의 ‘선 ↔ 악’이라는 반대 관계는 서사 층위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결투로 나타날 수 있다. 심층 의미는 서사 층위에서 주체가 가치 대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행위로 기술되는데 이 행위는 계약contrat, 역량 compétence, 수행performance, 승인sanction의 순서로 전개되는 이른바 ‘서사 프로그램’으로 도식화된다.

계약 ➤ 역량 ➤ 수행 ➤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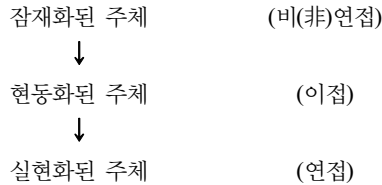
서사 프로그램의 전개는 심층의 기호사각형 모델에서 주체와 대상의 ‘연접’(주체가 대상을 획득한 상태)과 ‘이접’(주체가 대상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 사이의 통사적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접합’의 기호사각형

<계약>을 통해 ‘의지’ 또는 ‘의무’의 역량을 획득하는 단계에서 주체는 대상과 ‘비(非)연접’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주체는 ‘잠재화’된 양식으로 존재한다. ‘지식’ 또는 ‘능력’의 역량을 획득하면 주체는 대상과 ‘이접’된 상태에 있는 동시에 ‘연접’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그는 ‘현동화’된 주체가 된다. <수행>을 거쳐 대상을 획득한 주체는 대상과 ‘연접’된 상태에 있고 여기서 그는 ‘실현화’된 주체가 된다. 요컨대 잠재화된 주체, 현동화된 주체 그리고 실현화된

주체는 모두 서사의 전개를 재현하는 ‘접합’의 기호사각형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非)이접’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은 각각 하나의 존재양식에 상응하며 서사의 전개는 아래와 같이 주체의 존재 양식의 변화를 수반한다.<sup>8)</sup>



『정념의 기호학』을 계기로 ‘믿음’의 양태와 함께 등장한 ‘가능화된 주체’와 관련하여 그레마스와 폰타뉴는 처음에 기호사각형에서 하나의 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양식이 정해지지 않고 남아있던 ‘비(非)이접’의 항을 ‘가능화’의 양식과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Comme les modes d'existence du sujet de la syntaxe de surface se définissent en fonction de sa position au sein de la catégorie de la jonction, on peut considérer que la <non-disjonction> définit elle aussi une position et un mode d'existence du sujet qui n'auraient pas été repérés jusqu'à présent. On propose de dénommer ce rôle <sujet potentialisé> dans la mesure où il résulte d'une négation du sujet actualisé et où il est présupposé par le sujet réalisé.<sup>9)</sup>

표층(담화) 통사 주체의 존재양식이 접합의 범주 가운데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非)이접’ 역시 현재까지 파악되지 못한 주체의 위치와 존재양식을 가리킨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주체는 ‘현동화된 주체’를 부정한 결과로 출현하며 ‘실현화된 주체’에 의해 전제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자리를 ‘가능화된 주체’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8) A.J. Greimais & J. Fontanille(1991, p.56)

9) A.J. Greimais & J. Fontanille(1991, p.56)

이처럼 ‘가능화된 주체’는 기호사각형의 ‘비(非)이접’의 항을 차지하면서 처음에는 통사적 움직임 속에서 ‘현동화된 주체’와 ‘실현화된 주체’ 사이에 자리잡는다. 이것은 서사 프로그램에서 <역량>을 획득한 주체가 <수행>에 임하기 전에 개입하는 주체로서 하나의 서사 프로그램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삽입된 것이다. 여기서 기호학의 관심은 주체의 정념이 서사 프로그램의 수행 또는 수행의 실패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가능화’의 위치 재조정

‘정념’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면서 정념 주체가 기존의 서사 프로그램을 벗어나 있으며 정념이 드러내는 의미작용은 의미생성행정 모델의 범위를 벗어나 있음이 밝혀진다. 이에 따라 ‘가능화’의 기호학적 위치의 재조정도 불가피해진다. 그레마스과 폰타뉴는 정념 주체, 즉 ‘가능화된 주체’를 기술하기 위해 기존 의미생성행정 모델에 없었던 ‘선조건 충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후에 폰타뉴는 기호 충위의 기호사각형 모델에 버금가는 선조건 충위의 의미 모델로서 ‘긴장도식’ 이론을 구축한다.<sup>10)</sup> 본 장에서는 기호사각형과 긴장도식을 통해 기호 충위와 선조건 충위의 관

10) 최용호, 「긴장도식과 기호모델」, 『프랑스학연구』 55집, 한국프랑스학회, 2011, 355~372쪽 참조.



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가 어떻게 재조정되는가를 논할 것이다.

### 1) 기호사각형에서 긴장도식으로

기호 층위에서 논리·의미론적인 의미가 가치들의 체계로 존재한다면 선조건 층위에서 의미는 감각으로 존재한다. 모든 의미는 본질적으로 차이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때 기호 층위에서 지각하는 차이는 불연속적인 체계적 차이인 반면 선조건 층위에서 지각하는 차이는 연속적인 차이, 강도에 대한 차이다.

기호사각형은 ‘체계적 차이’를 지각한 결과 나타나는 두 항 a 와 b의 논리적 관계 - 반대, 모순, 함의 - 를 시각적으로 표상한다. 사각형 꼭지점이 가리키는 네 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움직임은 의미가 구축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평화’와 ‘전쟁’이라는 반대 관계의 두 항이 있을 때 ‘평화’는 ‘비-전쟁’이라는 모순향을 취하고 ‘전쟁’은 ‘비-평화’라는 모순향을 취한다. 여기서 ‘비-전쟁’은 ‘평화’를 함의하며 ‘비-평화’는 ‘전쟁’을 함의한다. 이 네 개 항은 계열체적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 항이 모순향의 매개를 거쳐 반대 항으로 이행하는 통사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평화’의 위치에서 ‘전쟁’을 ‘지향’하는 힘은 반드시 ‘비-평화’라는 중립향의 매개를 거치게 된다.

풍타뉴는 체계적 차이를 지각하는 기호 층위보다 기저에 위치한, 강도적 차이를 지각하는 선조건 층위를 기술하기 위해 상술한 ‘지향’과 ‘매개’의 움직임을 지각 주체의 ‘지향’과 ‘포착’의 활동으로 재해석한다. 기호사각형을 위상학적으로 고려하면 계열체들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문제 외에도 지향적 힘이 이동하면서 점유하는 위치의 값이 가시화된다. 기호 층위에서 지각하는 가치들의 체계는 구조적 의미의 가치를 가리키지만 이것은 서사 층위에서 주체와 가치대상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가치론적 의미의 가치로 바뀐다. 가치대상 a 와 이접상태에 있는

주체가 a 와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기호사각형 모델에서 a 의 위치에서 출발한 주체가 -a를 거쳐 b로 이행했다가 다시 -b를 거쳐 a 에 도달하는 행로로 재현될 수 있다. 만약 반대관계의 두 항을 긍정적 가치의 항 a 와 부정적 가치의 항 b 로 상정한다면 이는 (+)극과 (-)극 사이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a(+) \rightarrow -a \rightarrow b(-)$
(2) $b(-) \rightarrow -b \rightarrow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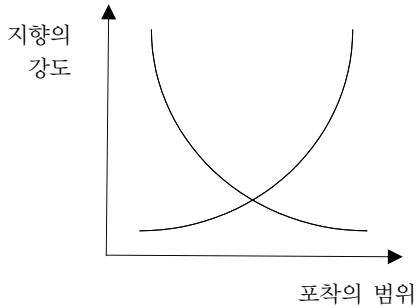
긍정 가치와 이접하는 행로 (1)과 부정 가치를 거쳐 긍정 가치와 다시 연결하는 행로 (2)는 모두 역동적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만약 두 흐름이 늘 활성화되어 있다면 하나의 행로는 반드시 반대 행로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 두 극 a 와 b 는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며 (1)번 행로와 (2)번 행로 사이에도 언제나 긴장성이 존재한다. 선조건 층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가치로 끌리는 이러한 힘은 담화 층위에서 정념 주체의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주체로 하여금 그의 주관적 상상에 붙들리도록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의미는 이러한 긴장적 힘의 효과로 출현하며 정념은 바로 이 긴장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정념주체는 긴장주체라고도 불린다.

## 2) 긴장도식

풍타뉴는 선조건 층위에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긴장적 에너지를 기호학적으로 정식화하여 ‘긴장도식’이라는 모델을 제안한다.<sup>11)</sup> 기호 층위의 논리·의미론적 의미를 재현하는 모델이 기호사각형이라면 선조건 층위의 긴장성을 재현하는 모델은 긴장도식이다. 긴장도식은 신체가 지각하

11) 홍정표, 「담화기호학의 긴장구조 - 선우희의 「불꽃」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2집, 한국기호학회, 2017, 191~216쪽 참조.

는 강도의 수준에 상응하는 ‘지향’의 수준과 지각하는 대상의 외연에 상응하는 ‘포착’의 범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4] 긴장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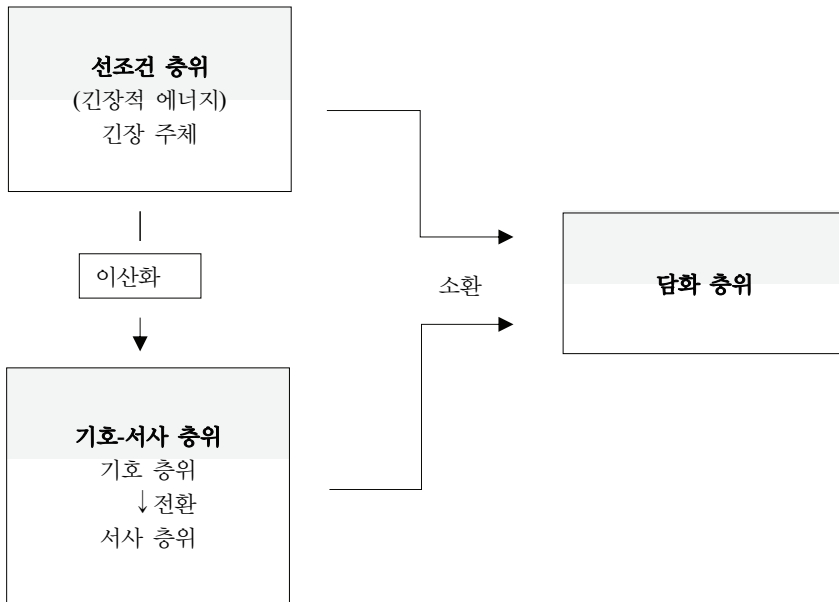
예를 들어, 신체가 과일이라는 대상을 지각할 때 과일의 ‘색깔이 얼마나 진한가’를 지각하면서 그 과일의 ‘익은 정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때 ‘색깔의 진하기’는 기호작용에서 ‘표현’ 층위에 해당하고 ‘익은 정도’는 ‘내용’ 층위에 해당한다. 지각하는 신체의 관점에 따라 표현 층위와 내용 층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익은 정도’와 ‘시간의 경과’가 상관관계에 놓이면 ‘익은 정도’는 표현 층위에, ‘시간의 경과’는 내용 층위에 상응하게 된다.

요컨대, 감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가능화된 주체’는 곧 ‘신체’이며 풍타뉴가 담화의 심급으로 규정하고 긴장도식으로 재현한 이 신체의 반응은 서사 프로그램이 주체에게 부과하는 역할에 저항하면서 가치실현의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작용을 담당한다.

### 3) 수정된 의미생성행정 모델

선조건 층위의 도입으로 의미생성행정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다. 선조건 층위의 긴장 구조는 담화 층위로 바로 소환되기도 하

고 기호-서사 층위를 거쳐 담화 층위로 소환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선조건 층위의 강도적 가치는 기호-서사 층위에서 체계적 가치로 ‘이산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선조건 층위가 기호-서사 층위를 거치지 않고 담화 층위로 바로 소환될 수 있다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서사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담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담화도 선조건 층위에서 일어나는 긴장적 에너지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면 담화의미를 기술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분석 사례는 이어지는 III.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그림 5] 수정된 의미생성행정 모델

선조건 층위가 담화 층위로 바로 소환되기도 하고 기호-서사 층위를 거쳐 소환되기도 하는 이러한 의미생성의 질서는 긴장 주체, 즉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를 정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위치는 긴장 주체가 서사 주체와 맺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Ce «presque-sujet» est bien de l'ordre du potentiel, susceptible à la fois d'être converti en sujet virtualisé/actualisé par une double négation-sommation et d'être convoqué directement lors de la mise en discours pour la réalisation du sujet discursif passionné. Mais cette affectation n'est pas sans poser problème, puisque, situé entre le sujet actualisé et le sujet réalisé dans la syntaxe établie à partir de la catégorie de la jonction, le sujet potentialisé prendrait place dans ce cas en début de parcours, avant le sujet virtualisé.<sup>12)</sup>

‘선-주체’(긴장주체)는 가능태의 영역에 속하고, 이중의 부정-감지에 의해 잠재화/현동화된 주체로 전환될 수 있는 동시에, 정념에 사로잡힌 담화 주체의 실현을 위한 담화화가 진행될 때 선-주체는 담화 층위에 직접 소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화된 주체의 이런 역할 설정은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집합의 범주로부터 정립된 통사에서 현동화된 주체와 실현된 주체 사이에 위치한 가능화된 주체는 이 경우에 행로의 출발점에, 즉 잠재화된 주체보다 앞선 지점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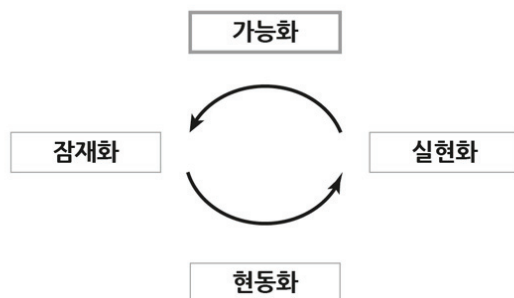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풍타뉴는 ‘가능화된 주체’의 위치를 실현화 이후, 잠재화 이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재조정한다.

잠재화 → 현동화 → 실현화 → 가능화 → 잠재화...

이렇게 재설정할 경우 기호학적 존재양식은 서사 프로그램의 실현 여부와 관계하는 선형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

12) A.J. Greimais & J. Fontanille(1991, p.57)



[그림 6] 기호학적 존재양식의 순환고리

다음 장에서는 ‘가능화된 주체’의 의미작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이치코의 사례와 웹툰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전자의 작품의 전체적인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후자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그 담화 의미를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특징을 짧게 논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 Ⅲ. ‘가능화된 주체’의 사례

#### 1.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일본판과 한국판의 주인공 이치코와 혜원<sup>13)</sup>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판본을 각색한 것이며 일본 판본 역시 원작 이가라시 다이ске의 만화를 2차 창작한 작품이다. 영화의 일본판과 한국판은 그 줄거리만 보면 유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판본을 나란히 감상하며 그 의미작용을 분석해볼 때 우리는 두 편이 매우 상이한 담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2014년 일본에서 개봉된 모리 준이치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2018년 한국에서 개봉된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그림 7] 일본판 영화  
〈리틀 포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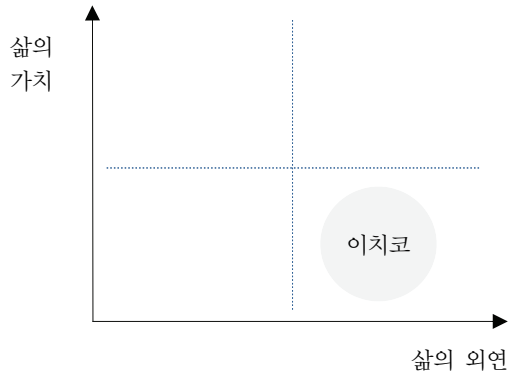


[그림 8] 한국판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일본판 영화의 주인공 이치코와 한국판 영화의 주인공 혜원은 어느 날 도심을 떠나 어린 시절 살았던 외진 시골마을로 들어간다. 그 곳에는 어린시절의 추억이 담긴 집이 빈 채로 남아 있다. 두 주인공은 모두 모를 심고 잡초를 뽑는 등 농사를 짓는가 하면 직접 채집한 나무 열매로 정갈한 음식을 만들고 오븐에 빵을 구우며 손수 술을 빚기도 한다. 언뜻 보면 두 사람은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또 두 영화는 모두 재료부터 요리까지 손수 준비하는 한 끼의 식사를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요리 프로그램보다 자세히 그 과정을 묘사한다. 그러나 이치코가 등장하는 일본판 영화에는 서사 프로그램을 구성할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든 반면 혜원이 등장하는 한국판 영화는 서사 프로그램의 전개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sup>14)</sup> 주인공 이치코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치대상을 추구하며 ‘내일’을 사는 삶 대신 주어진 환경이 제공하는 한 끼의 밥을 충실히 먹으며 ‘지금 여기’를 사는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기호학적으로 기술하면 주인공

14) 일본판에도 이치코의 서사를 상상하고 추측할만한 단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는 이 단서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이치코는 감각적인 세계를 필요에 따라 포착하지만 결코 그것을 고정된 가치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본 작품의 선조건 층위의 긴장성을 긴장도식으로 나타내면 약한 지향과 확장적 외연의 포착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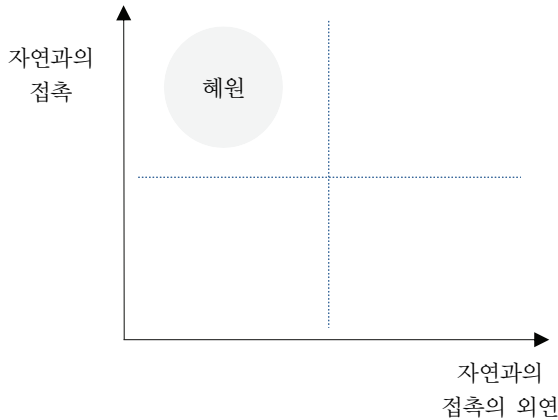


[그림 9] 영화 <리를 포레스트> 일본판에 나타나는 의미의 긴장도식

어떤 가치대상도 추구하지 않는 ‘가능화된 주체’ 이치코는 서사 프로그램을 벗어나 있으며 본 담화는 선조건 층위에서 기호-서사 층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화 층위로 소환되는 의미생성행정을 보여준다.

반면 이치코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한국판 영화의 주인공 혜원은 서사 주체로서 주어진 서사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녀는 몸은 편하지만 정신은 지치고 자기를 잃어가는 도시의 각박한 삶 대신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건강한 농촌의 삶을 선택한다. 이 담화는 자연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자급자족적인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이 담화의 선조건 층위를 긴장도식으로 나타내면 강한 지향과 제한적 외연의 포착으로 나타난다.





[그림 10] 영화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에  
나타나는 의미의 긴장도식

자연 속에서 육체노동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혜원의 이야기는 선조건 층위에서 기호-서사 층위를 거쳐 담화 층위로 소환되는 의미생성의 경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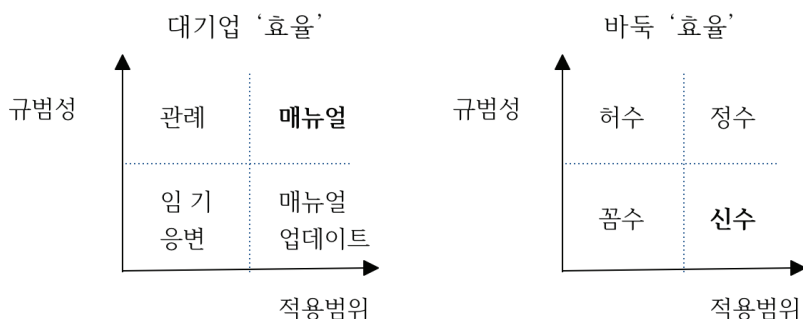
## 2. 웹툰 <미생>의 장그래<sup>15)</sup>

웹툰 <미생>은 바둑연구생 출신 대기업 신입사원 장그래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주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일상을 그리지만, 바둑연구생 출신 주인공이 바둑을 필터로 세상을 본다는 설정에 맞춰 바둑판 이미지와 함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데 본 작품에서 주인공 장그래의 의식은 흥미롭게도 서사 주체에 상응하는 ‘신입사원 장그래’와 발화 주체에 상응하는 ‘바둑기사 장그래’로 이중화되어있다. 이러한 의식과 함께 주인공은 텍스트 전체에서 서사 층위와 선조건 층위에서 해리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sup>16)</sup> 이러한 주체 의식의 이중성은 어느 하나의 의식으로는 불

15) 윤태호 글, 그림, 웹툰 <미생-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Daum 웹툰, 2013년 7월 19일 시즌1 완결.

가능한 작품의 의미를 구축한다. 무슨 말인가? 작품은 대기업이 추구하는 ‘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개성이 얹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대기업 ‘원 인터내셔널’이 추구하는 효율은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는 일처리 방식에 있다. 그런데 매뉴얼은 그 규범성이 커질수록 ‘관례’가 되어버린다. 만약 ‘관례’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혁신적인 개인을 통한 ‘매뉴얼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작품의 한편에는 기업의 왜곡된 관례 속에서 자신의 삶마저 어긋나버린 사원급, 과장급, 전무급 셀러리맨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주인공 장그래가 있다. 장그래는 업데이트해야만 이기는 바둑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기업의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 그는 관례에 매인 인물들의 어긋난 지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파격’을 통해 업데이트를 시도한다.

<미생>에 나타난 ‘대기업의 효율’과 ‘바둑의 효율’의 긴장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웹툰 <미생>의 선조건 층위

16) 자세한 분석 과정은 선행연구를 참조 : 송태미, 「<미생>에 나타난 신체-행위소의 이중성에 관한 고찰」, 『기호학연구』 57집, 한국기호학회, 2018, 211~255쪽.

‘신입사원 장그래’는 대기업 매뉴얼의 가치를 실현하는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만 ‘바둑기사 장그래’는 오히려 관례의 허점을 고발함으로써 매뉴얼의 가치를 해체시킨다. 요컨대 본 작품에서 주인공 장그래의 의식 속에는 선조건 층위에서 바로 담화 층위로 소환되는 ‘바둑기사 장그래’의 정체성과 기호-서사 층위를 거쳐 담화 층위로 소환되는 ‘신입사원 장그래’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가능화된 주체’가 현동화와 실현화 사이에 위치함과 동시에 실현화와 잠재화 사이에도 위치하면서 이중의 기호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IV. 나오며

지금까지 우리는 파리와 기호학이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요약하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일본판과 한국판, 그리고 웹툰 <미생>에 나타난 ‘가능화된 주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자는 ‘실현화’와 ‘잠재화’ 사이에 위치하는 ‘가능화’와 ‘현동화’와 ‘실현화’ 사이에서 기능하는 ‘가능화’의 차이가 담화 상에서 어떤 대비를 이루는가를 보여주었으며 후자는 두 지점에서 동시에 개입하는 ‘가능화된 주체’의 분열된 양상이 드러나는 담화로서 일단락난 듯한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가 여전히 문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가능화된 주체’는 고정된 가치대상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분열된 주체가 한편으로는 ‘현동화된 주체’가 되어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치를 해체하는 역설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 모두 기호학에서 전통적으로 정의해 온 서사성, 즉 ‘가치 실현의 과정’과는 다른 길로 나아간다. ‘가능화된 주체’는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목적성에 매여 있던 주체를 목적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분석 대상 작품

2014년 일본에서 개봉된 모리 준이치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2018년 한국에서 개봉된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윤태호 글, 그림, 웹툰 <미생-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Daum 웹툰, 2013년 7월 19일 시즌1 완결.

## 참고문헌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송태미, 「<미생>에 나타난 신체-행위소의 이중성에 관한 고찰 - 장그래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7집, 한국기호학회, 2018, 211~255쪽.

\_\_\_\_\_, 「미셸 우엘벡의 어느 섬의 가능성에 나타난 자아의 해리성 연구」, 『프랑스학연구』 90호, 한국프랑스학회, 2019, 67~97쪽.

\_\_\_\_\_, 「게임적 리얼리즘 재론 - 올 유 니드 이즈 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61집, 한국기호학회, 2019, 123~156쪽.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 · 최용호 · 신정아 역, 강, 2014.

최용호, 「긴장도식과 기호모델」, 『프랑스학연구』 55집, 한국프랑스학회, 2011, 355~372쪽.

홍정표, 「담화기호학의 긴장구조 - 선우휘의 「불꽃」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2집, 한국기호학회, 2017, 191~216쪽.

Fontanille J. & Zilberberg, C.,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Fontanille J.,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2003.

Greimas A.J., *Sémantique structurale*, puf, 1966.

Greimas A.J. &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Seuil, 1991.

## On the Semiotic Position of 'Potential Subject'

Song, Tae-Mi

In Paris School of Semiotics, traditionally there are three modes of existence, depending on which type of competence the narrative subject has - will, duty, knowledge and ability. The subject of 'will' and 'duty' exists in the 'virtual' mode, and the subject with 'knowledge' and 'ability' exists in the 'actual' mode. And the main body that has entered the "performance" stage with the necessary competences will be in a "real" mode. However, in the 1991 *Semiotics of passions*, Greimas and Fontanille add the mode 'belief' to the subject's competences. As the competence of 'belief' is added, the 'potential' mode is also added to the semiotic existence mode of subject and object. When the subject moves in accordance with his subjective beliefs, this movement induces a fixed value system to be readjusted in the depth of semiotic generation administration, and 'potential' mode refers to a state in which such once fixed values are likely to be readjusted in a new context. However,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semiotics position of the newly emerging "potential subject" in the signification generation theory system was not simple. At first, Greimas and Fontanille saw "potential" as intervening in the very previous stage of the narrative program's "performance," and the location was set between "actual" and "real". Soon after, however, the location will be readjusted between "real" and "virtual" as it turns out that "potential" is out of the existing signification generation model and is out of the narrative program, and the signification generation model will introduce a pre-condition layer. In our view, this rebalancing is an important event in the process of extending the boundaries of the narrativity from the narrative of "realizing value" to the narrative of "rebalancing value."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xt in which the semiotic position of 'potential' has been readjusted and discusses how

‘potential’ relates to ‘narrativity’ through examples of discourse analysis.

Keywords : Semiotics School of Paris, Semiotics of passions, Semiotics of discourse,  
Semiotic existence mode, Potential mode, The model of semantic  
generation course, Pre-condition layer, Tension graph

투고일: 2020. 11. 28./ 심사일: 2020. 12. 09./ 심사완료일: 2020. 12. 10.

# 전설 서사론 연구

## － 3항성에 기초한 서사 분석 모델 기획\*

오세정\*\*

### 【 차 례 】

- I. 서론
- II. 전설 연구의 전제
- III.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
- IV. 결론

### 국문초록

서사문학 연구에서 허구성을 문학성의 주요 기준으로 세움으로써 전설은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급한 형식의 서사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특정 기준으로 대상을 규격화시켜 바라보기 이전에 대상의 자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설이 갖는 서사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전설의 정체성은 문학의 다른 서사와 달리 언어적으로 형성된 텍스트가 현실의 실제 대상을 지시한다는 데에 있다. 전설 텍스트를 하나의 기호로 본다면, 전설은 지시대상과 물리적·직접적 관계를 맺는 지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 즉 전설 서사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탐색하려면 바로 이 점을 근간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자연의 대한 보편 범주로 제시된 퍼스의 1차성, 2차성, 3차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전설에 대한 서사 분석 모델을 기획하였다. 3항성을 참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3623).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ohsj@chungbuk.ac.kr](mailto:ohsj@chungbuk.ac.kr)

하여 분석 모델의 단위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차 분석은 서사의 내적 형식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 구성의 요소와 배열 규칙을 기술한다. 2차 분석은 텍스트와 지시대상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지시대상의 성격과 관계의 연결점을 파악한다. 3차 분석은 텍스트와 지시대상이 연결됨에 따라 형성되는 사유의 영역, 의미와 법칙을 파악한다.

이 서사 분석 모델에서 각 단위와 단계는 전설 서사의 형식 구조, 관계 구조, 의미 구조에 대한 분석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전설과 다른 서사와 변별되는 정체성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서사의 다양한 층위에서 구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열쇠어 : 전설, 지표성(지표적 자질), 서사 분석 모델, 1차성, 2차성, 3차성, 형식 구조, 관계 구조, 의미 구조

## I. 서론

전설(傳說)은 특정 지역의 증거물들, 즉 ‘자연’, ‘인간’, ‘문화’에 대한 기호적 형상물로 구술 전승된다. 기호적 형상화의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개별 인간의 역사, 집단적 사유와 관습을 포괄하며, 인간을 둘러싼 땅과 산, 하천과 바다, 각종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런데 종래 문학을 포함하여 인문학 영역에서 전설에 대한 시선은 별로 굵지 않았다. 전설은 서사문학의 장르적 이념에 충실하지도 못하였고 연구에 있어서는 이상적 모델에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였다. 과거의 문학 연구가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고 중심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중심을 이룰 때, 특히 존재의 지역적 한계나 제한이 뚜렷한 전설은 당연히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로컬리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전설은 여전히 문학 연구에서 철저히 비주류에 속해 있다.

전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문학 연구에서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인문학 영역의 다른 학문 분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역사학이나 철학, 종교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부차적이고 첨가적인 혹은 흥



밋거리 수준의 배경 이야기 정도로 전설이 활용되고 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전설이 갖는 존재론적 성격, 즉 정체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설은 역사학에서 중심 대상인 역사적 실제 사건을 다룬다고 할 수 없으며, 철학에서 다루는 실재나 실체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 세계이며, 종교학에서 중심이 되는 신화보다는 신성성이나 초월성이 한참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점, 정통 인문학 분야에서 전설을 비주류로 여기는 데에서 전설의 존재론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설은 신성한 실재나 현실 세계의 실체를 지시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곧 문학 용어로 ‘허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학 연구에서는 전설의 문학성 결핍에 주목한다.

한국의 구비문학연구에 있어서 정전이라 할 수 있는 『구비문학개설』에서 ‘전설’의 ‘문체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을 예를 들고 있다.<sup>1)</sup>

- ① 이태조李太祖가 고승高僧 무학無學에게 천도遷都할 땅을 구하라고 의뢰했다.
- ② 무학이 동야東野(지금의 왕십리汪十里) 근방에서 지세를 살폈다.
- ③ 밭 가는 노인이 “미련하기 무학 같은 소, 바른 곳도 버리고 굽은 길을 찾는구나!” 하며 소를 꾸짖었다.
- ④ 무학이 가르침을 청하자 노인은 10리十里만 더 가라고 했다.
- ⑤ 10리를 더 가서 무학은 서울의 터를 발견했다.
- ⑥ 눈이 쌓인 설[雪] 울[圍]을 경계로 성城을 쌓았기 때문에 ‘설울’이 변해서 ‘서울’로 되었다.
- ⑦ ‘10리만 더 가라’고 해서 그곳은 왕십리往十里라 부른다.
- ⑧ 무학이 처음 왕십枉尋한 곳이기에 왕십리枉十里하고도 한다.<sup>2)</sup>

1)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2, 72쪽

2)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서울과 왕십리」, 통문관, 1958, 15~16쪽.

여기에서는, 최상수가 편한 『한국민간전설집』에 실린 <서울과 왕십리>를 통해 전설의 문체와 구조를 설명한다. 전설의 문체는 ‘단순’하며 구조는 ‘이야기 자체로서의 유기적 짜임새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3)</sup> 위의 전설에서 ②, ③, ④, ⑦은 서로 유기적이지만, ⑥과 ⑧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⑥과 ⑧은 증거물 때문에 덧붙여져 있지만,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이유는 한 증거물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전설에는 ⑦과 ⑧과 같이 이야기로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이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sup>4)</sup> 또한 민담과 비교해서 볼 때, 민담은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문체”인 반면, 전설은 “난삽(難澁)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sup>

같은 책에서, 신화나 민담, 서사무가, 판소리 등 구비서사 문학의 하위 갈래들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해당 갈래의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비해 유독 ‘전설’에 대한 분석은 이처럼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지며 평가 역시 박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나 해설이 나온 이유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우선 ‘구비문학’에서 서사문학인 ‘설화’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은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sup>6)</sup>로 제한하였고 ‘꾸며낸’과 ‘이야기’에 중요성을 두었다. 따라서 전설은 허구적 서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며, 그러한 문학적 자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요한 ‘문체’나 ‘구조’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같은 설화 갈래 중 유독 전설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전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증거물’ 때문이다. 증거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의 논리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동인이 증거물과 관련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

3) 전설 텍스트 중에서 문체가 비교적 복잡하거나 이야기 구조가 유기적 짜임새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전설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민담의 성격이나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 <선녀와 나무꾼>이 대표적 예이다.

4) 장덕순 외, 앞의 책, 72쪽.

5) 같은 책, 72쪽.

6) 같은 책, 37쪽.

해 전설의 제보자는 그저 한 편의 옛이야기를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물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전설과 같이 다른 이야기(정보)가 불쑥 결합하여 이야기 자체의 인과성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다.

‘잘 짜여진 허구서사’에 필요한 이상적인 전제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는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전설의 부정적 성격을 실체인 양 부각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전통적인 서사 구성의 요소를 고려한 시각이나 인과성이 딱 맞아떨어지는 서사 규칙 등을 전범으로 내세우지 말고 전설 서사를 있는 그대로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설의 ‘문제’나 ‘서사구조’가 ‘단순’하고 ‘난잡’하고 ‘인과성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전설 연구의 전제

문학을 ‘서정’과 ‘서사’의 이분법의 시각으로 구분한다면, 전설은 분명 이야기로 서사에 속한다. 서사 갈래의 연원과 특성을 설명하는 논리 중 널리 알려진 것이 ‘사실성(역사성)’과 ‘허구성’의 대립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서구에서는 솔즈(Robert Scholes)와 켈로그(Robert Kellog)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통적 이야기인 ‘뫼토스’에서 사실성을 추구한 ‘경험적 서사’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 ‘허구적 서사’로 나누게 되었다고 본다.<sup>8)</sup> 근대의 문학 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항 대립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적이다. 문학에 잠재된 두 가지 충동을 ‘미메시스(mimesis)’와 ‘판타지(fantasy)’로 설정할 경우, 전자는 사실성(역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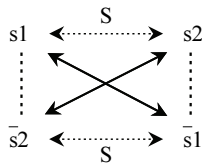
7) 지역에서 조사한 전설 자료들을 보면 특정 증거물을 중심으로 같은 표제의 이야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채록된 경우를 접할 수 있다. 전설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주요 증거물인 경우에는 뒤섞여 이야기되기도 하고, 관련 이야기를 구분하여 나열하기도 한다.

8) 로버트 솔즈, 로버트 켈로그, 『서사의 본질』, 임병권 역, 예림기획, 2001, 22쪽.

성)에 초점을 후자는 허구성에 초점을 둔 시각이라 할 수 있다.<sup>9)</sup>

그렇다면 이 사실성과 허구성이라는 대립체계를 전설에 적용해 보자. 전설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물과 같은 성격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분명 비현실적 사건과 상황이 빈번히 등장하며, 실제 세계의 법칙에 벗어난 것들이 있다. 동시에 전설은 증거물에 얽매어 있으며, 아무리 허구적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이 증거물의 구심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 증거물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분명 사실성 내지 역사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된 이야기, 사실주의에 충실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반면에 비현실적 재료와 논리로 이야기가 구성되더라도 그 이야기가 다른 증거물이 실재하거나 실재하였다는 측면에서 전설은 사실성(역사성)을 가진다. 전설이 갖는 이러한 사실성과 허구성의 복합적 성격은 그레마스(A. J. Greimas)의 도식<sup>10)</sup>을 통해 어느 정도 체계화할 수 있다. 그레마스는

- 9) 판타지와 미메시스의 대립 체계에 대한 정리된 논의는 캐서린 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Kathryn Hume, *Fantasy and Mimesis: Responses to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Methuen Publishing, 1984.
- 10)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학적 4각형을 제시했다. 이는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통해 이분법적 의소 범주는 반대 관계, 모순 관계, 함의 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기호 4각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기호작용 S는 s1과 s2의 의미범주 내지 의미축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이 관계는 한 사항의 존재가 다른 사항의 존재를 전제하고, 또 한 사항의 부재가 다른 사항의 부재를 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각선 관계인 s1과 s1-bar은 모순 관계로 두 사항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s1과 s2-bar, s2와 s1-bar의 상하 항목들은 함의 관계이다. 아래 항목들이 위의 항목들을 함의하는 것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Sémioique-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의미 관계에서 양항의 대립(반대) 관계뿐 아니라, 그것들을 모순 관계와 함축 관계까지 고려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전설이 다른 서사 갈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먼저 ‘사실 : 허구’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서사의 가장 원형적 형태로서 사실과 허구의 서사 유형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서사이다. 따라서 신화는 위 도식에서 특정한 항목에 위치시킬 수 없다. 민담과 전설은 사실을 추구하는 역사나 허구를 지향하는 문학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 혹은 그러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존재해 왔던 서사 갈래이다. 하지만 민담은 분명 사실과 거리를 둔 채 흥밋거리 위주로 이야기가 형성되며, 반대로 전설은 비록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증거물의 구심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민담은 위 도식에서 비사실의 영역에, 전설은 비허구의 영역에 충분히 위치시킬 만하다.

민담은 현실세계의 법칙이나 증거물과 같은 실재와 관련이 없이 자체적인 이야기의 세계를 구성하면 되기에, 허구성으로 대표되는 혹은 그것을 지향하는 ‘문학’으로서 정체성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 전설은, 실재한 사건이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성의 법칙에 온전히 부합하는 ‘역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허구성을 지향하는 문학과는 또한 차별점을 가진다.<sup>11)</sup> 국문학 연구 분야, 구체적으로 구비문학의 설

Hachette Université, 1979, p.29.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179~205쪽.

화 연구 영역에서 실제로 신화나 민담에 비해 전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어쩌면 전설이 갖는 비문학성 내지 역사성의 성격이 문학이 추구하는 정체성인 문학성, 즉 허구성과의 대립 관계에 놓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설의 설화 대상 혹은 전설 텍스트의 세계가 온전히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사실과 아주 강하게 연관되며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설 연구는 전설이 무엇을 표상하는가, 그리고 전설과 전설이 표상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설의 설화 대상인 증거물은 텍스트의 지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전설 텍스트를 하나의 기호로 보면 전설의 증거물은 그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기호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달리 말해 기표와 기의의 양항 관계로 이해된다. 소쉬르(Fredinand de Saussure)의 기호 개념에서는 기표가 지시하는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지시물이 아니다. 반면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기호를 ‘표상체(representamen)’와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가 맺는 3원적 관계로 설명한다.<sup>12)</sup> 소쉬르의 이론에서는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을 기의로

11) 전설의 연원을 볼 때 허구 지향의 서사와는 관련이 없거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에서 전설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설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legere(읽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예배 중에 낭독되는 성인(聖人)이나 순교자의 이야기가 그 근원이었다. 이것이 점차 사실(史實)이라고 믿어지는 이야기가 됨에 따라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의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북구 어원의 ‘saga’는 영웅전설을 의미하는 고어로, 독일의 saga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사건의 계승 설화로 수용되었다.

최인하, 「한국전설의 유형과 motif의 연구」, 『한국학연구』1, 인하대학 한국학연구소, 1989, 74쪽.

근대 설화 연구자의 대표적 인물인 그림 형제는 『독일 전설Deutsche Sagen』 서문에서 민담은 사적이고, 전설은 역사적이라고 두 서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였다. 전자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환상적 이야기로 막연한 옛이야기라면, 전설은 역사적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집단의 체험과 전통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손은주, 「민간전승문학의 갈래로서 신화, 전설, 민담」, 『뫼비우스와 현대문학』 25, 한국비평학회, 2005, 346쪽.

보았다면 퍼스의 이론에서는 표상체(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중 표상체와 대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세 개의 서로 다른 구별되는 기호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이다.<sup>13)</sup> 대상에 대한 기호의 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도상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형식성을, 지표는 대상의 실제 속성을, 상징은 대상의 추상적인 법칙성(추론)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는 단계적인 위계 속에 놓일 수 있다. 형식이 파악되고, 속성이 이해되고,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다.<sup>14)</sup>

지시대상과 기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를 살펴볼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현실의 실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대상물을 갖지 않기 때문에, 혹은 문학 텍스트는 자체의 텍스트 구성 원리로 직조되기 때문에 결코 지표가 될 수 없다. 문학 텍스트가 단순히 대상에 대한 형식적 속상만을 드러내는 데 그친다면 도상이 되겠지만, 문학은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반응을 특정한 법칙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당연히 상징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런데 문학 일반론이 아닌, 전설이라는 서사가 갖는 특징에 주목할 때 다른 시각을 도출할 수 있다. 전설은 증거물을 바탕으로 그 지시대상이 실재하거나, 실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설을 하나의 기호로 간주한다면, 전설은 실재의 대상을 갖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sup>15)</sup>

12) Charles Sander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ed.,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135.

13) *ibid.*, pp.143~144.

14) 퍼스 기호론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러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한 기호 분류가 단순하고 매끄럽게 정의되고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기호에는 도상의 성질, 지표의 성질, 상징의 성질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위계가 설정된 세 기호는 표상체의 측면에서, 각각 자질기호(qualisign), 실재기호(sinsign), 법칙기호(legisign)로 불린다. 해석체의 측면에서는 잠재기호(rhem), 사실기호(dicisign), 논항기호(argument)로 불린다. 이러한 위계 관계를 기호의 1차성, 2차성, 3차성이라 하였다.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83~90쪽.

15) 오세정, 「지표성으로 본 한국 전설의 유형론」,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회,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를 상정하면, 이러한 기호의 대표로 사진을 들 수 있다. 사진에서 표상한 것은 피사체로 이것은 사진 기호가 실제로 맺고 있는 지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진을 단순히 대상과 닮은 기호, 즉 도상기호로 파악하다가 이후에는 사진이 대상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닌 자체의 법칙이 있는 상징기호로 이해하였다.<sup>16)</sup> 그런데 최근의 주류 이론은 사진의 본질이 유사성이나 법칙성이 아닌 대상과의 물리적 관계에 주목하여 사진을 대상에 대한 지표기호로 파악하고 있다. 지표기호라 하더라도 사진이 어떠한 지표성을 중심으로 드러내는가에 따라 증명성, 지칭성, 유일성 등 여러 가지 자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이 같은 논점을 참조하면 전설이 증거물을 지시할 때, 어떠한 지표적 자질이 중심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전설이 대상이 새롭게 생겨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이때 전설의 지표성은 증명성, 대상의 소멸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심인 경우는 인과성,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의미부여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유일성(특이성)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의 널리 알려진 성격을 환기시키는 것은 환기성, 대상의 특정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성, 대상과 관련된 행위나 인식이 계속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유형화는 종래의 전설에 대한 분류나 유형화가 갖는 자의성 혹은 비체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설과 증거물과의 관계 자체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설 연구에 대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

---

2019, 44~45쪽.

16) 사진에 대한 접근 시각의 변화와 담론의 흐름은 아래 글 참조.  
오세정, 같은 글, 45~46쪽.

17) 사진을 지표기호로 간주하고 이것을 속성을 연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Göran Sonesson, "Post-photography and beyond: From mechanical reproduction to digital production", *Visio*. 4(1), 1999.  
로잘린드 크라우스, 『사진, 인텍스, 현대미술』, 최봉림 역, 궁리, 2003.  
필립 뒤바, 『사진적 행위』, 이경률 역, 사진마실, 2005,

18) 오세정, 앞의 글, 48~59쪽.



다면 전설이 지표적 자질을 가진 서사 텍스트임을 감안하고, 전설 서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방법론을 모색해 보자. 이는 전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서사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며, 서사로서 전설이 갖는 형태론적 구조와 의미론적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Ⅲ.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

#### 1. 서사 분석 모델

전설 텍스트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 도구를 갖추기 위해 퍼스의 기호이론에서 출발한다. 퍼스는 다양한 국면에서 기호의 성격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주의 개념이 중요하다. 퍼스는 인간의 사고와 자연에 대해서 일원론적 입장을 취했는데, 사고의 범주와 자연의 범주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관념이나 지각이 어떻게 외부의 대상을 표상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기호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퍼스는 이 범주를 기본적으로 1차성(firstness), 2차성(secondness), 3차성(thirdness)으로 포착하여 설명하였다.<sup>19)</sup>

1차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는 존재의 양식을 의미한다. 그것의 전형적 관념은 느낌의 자질들 혹은 단순한 외관과 같은

19) 퍼스는 이 세 개의 범주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모든 학파와 부류의 철학, 수학, 심리학, 물리학, 역사학, 사회학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체적 작업이 그것의 세부사항들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나타날 아주 포괄적인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았다.

Charlse Sanders Peirce, opt., cit. CP1, “Preface”, xii.

대상의 보편적 속성을 3개의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학문 분과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성, 2차성, 3차성의 범주 개념은 퍼스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해당 개념에 대한 퍼스의 미발표 원고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글 참조.

찰스 샌더스 퍼스, 제임스 홉스 편, 『퍼스의 기호학』, 김동식·이유선 역, 나남, 2008. 11장 “제 1성, 제 2성, 제 3성: 사고와 자연의 근본 카테고리”, 12장. “수수계끼에 대한 추측”

것들이다. 기억되거나 지각되는 것과는 독자적인 자질이며, 분석될 수 없는 전체적인 인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것들은 자질에 대한 나의 어떤 관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내 의식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극 정도로만 간주되는 것들이다.<sup>20)</sup>

2차성은 실존의 양상이다. 다시 말해 2차성은 개인에게 속하는 실재의 양상으로 결정적이고 특수하다. 대상은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실존을 증명해야 한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2차성은 경험에서 뚜렷하게 나타내는데, 경험은 일반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것이다. 또한 2차성은 이중적인데, 1차성과 비교를 통해 의미가 잘 드러난다. 1차성의 단자적 관계와 2차성의 양자적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차성은 즉자적 존재이지만 2차성은 대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3차성은 1차성과 2차성의 것에 정신적인 것이 주어진다.<sup>22)</sup> 1차성이 느낌에서 지배적이고 2차성이 의지와 지각에서 지배적인 반면, 3차성은 사유에서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3차성은 중재, 일반성, 질서, 해석, 의미, 목적이다. 3차성은 두 개를 관계로 맺어주는 중재(mediation) 또는 결속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계속성을 포함하고 계속성은 3차성을 나타낸다.<sup>23)</sup>

요컨대 1차성이 자질을 나타낸다면, 2차성은 존재나 행위를 나타내며, 3차성은 이를 종합하는 법칙이나 개념으로 나타낸다. 이 기호의 보편 범주는 달리 말하면 사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사고도 이들 범주의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퍼스는 이 범주들이 파악하기 힘든 것이어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념에 끼쳐진 어떤 기미나 분위기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sup>24)</sup>

20)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74쪽.

21) 정해창, 『퍼스의 미완성 체계』, 청계, 2007, 191~192쪽.

22) 송효섭, 앞의 책, 75쪽.

23) 정해창, 앞의 책, 192쪽.

본 논의에서는 퍼스의 1차성, 2차성, 3차성의 개념을 서사 텍스트의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서사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대상의 범주화를 위한 이 개념어는 각각 독립적이면서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수용할 것이다.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사유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전설 텍스트 독해의 과정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앞에 존재하는 전설 텍스트가 있다. 하나의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것으로의 특성이나 자질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분석 단위는 이러한 전설 텍스트의 1차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전설 텍스트는 구체적인 지시대상, 즉 증거물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설은 항상 증거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의미를 갖는다. 이를 파악하는 것이 전설 텍스트의 2차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다. 전설과 지시대상은 이제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며 의미작용한다. 나아가 이 전설 텍스트는 문자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전설 텍스트의 3차성에 해당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 개의 범주 내지 형태를 하나의 텍스트에서 분석을 위한 단위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있고, 그것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의미나 법칙이 있을 것이다. 각각은 독립된 성격을 가지지만 1은 2와의 관계, 다시 이는 3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위와 단계의 분석은 전설 텍스트의 구조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차성 분석은 텍스트 자체만의 자질, 즉 형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며, 2차성 분석은 전설 텍스트가 지시대상과 맺는 관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며, 3차성 분석은 전설 텍스트를 하나의 언어적 상

---

24) 송효섭, 앞의 책, 76쪽.

징물로 보고 의미 구조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점을 바탕으로 전설 서사의 분석 단위와 단계를 체계화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분석 모델이 퍼스의 3항성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기획한 것이지만, 3항성 그 자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1차 분석, 2차 분석, 3차 분석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분석 대상: 텍스트가 1차적으로 보여주는 성격</li> <li>* 지시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배제한 텍스트 자체만의 성격 찾기</li> <li>*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와 배열 규칙 기술하기</li> </ul>
2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분석 대상: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 대상과의 관계</li> <li>* 텍스트(기호)의 지시대상을 중심으로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의 분석하기</li> <li>*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 찾기, 텍스트와 지시대상과의 연결점 찾기</li> </ul>
3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분석 대상: 텍스트가 지시대상과 연결됨에 따라 갖게 되는 의미</li> <li>* 지시대상과 텍스트가 결합되어 새롭게 의미화된 것 분석하기</li> <li>* 전설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이나 관습적 의미 찾기</li> </ul>

1차 분석은 텍스트 내적 분석, 형식 분석이라 할 수 있고 3차 분석은 종합적·법칙적인 사유의 단계로 의미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설은 다른 서사와 달리 구체적인 증거물, 즉 실제 지시대상을 갖는 지표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 지시대상과 전설이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설 텍스트가 의미화되는 데 있어서 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제약은 단순히 텍스트의 열린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상과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의미와 기능을 수행하게끔 한다. 다시 말해 1차와 3차 분석 사이에 위치한 2차 분석, 즉 텍스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토대로 의미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민담을 비롯해서 소설과 같은 허구적 서사들은 이 전설의 서사 분석 모델에 나오는 2차 분석의 대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 2, 3차의 분석 단위나 단계로 이들 서사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제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허구 서사라 하더라도 유추할 수 있거나 상동성이 있는 특정 세계를 설정할 수 있다.<sup>25)</sup> 그렇지만 전설처럼 텍스트 내에서 지칭된 실제 지시대상은 없다. 따라서 전설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2차성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설 서사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전설 서사는 텍스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부기하기도 하고,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한 메타적 진술이 첨가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차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형태상 서사의 인과성이나 체계성을 해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래서 텍스트의 의미체계가 불완전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설 서사가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거나 텍스트가 현실 세계와의 관계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지 사족이나 잉여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은 2차 분석의 대상인 관계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전설 서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단위별, 단계별 분석 모델을 서론에서 언급한 <서울과 왕십리>에 적용하여 살펴보자. 우선 1차 분석에서는 서사 구성 요소와 그것의 연쇄 규칙을 찾는다. 즉 이야기의 소재 내지 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이 이야기의 표층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기술한다. <서울과 왕십리>의 경우, ‘이태조의 도읍터 구하기—무학대사의 탐색(동야 지역 탐색)—노인의 가르침—10리 더 가서 서울 터 발견—서울 명칭 소개—왕십리 명칭 소개①—왕십리 명칭 소개②’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의 주요 화소는 ‘서울(터, 명칭)’, ‘이태조(이성계)’, ‘무학대사’, ‘현명한 노인’ 정도가 되고, 전체 서사는 “이태조의 명에 의해 서울 터를 찾던 무학대사가 노인의 가르침으로 10리

25) 종래의 문학연구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이었던 문학 반영론은 문학 텍스트가 현실의 실제 세계를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지금도 여전히, 특히 한국 문학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점이 우세하다.

를 더 가서 서울 터를 찾았다.”로 요약 가능하며, 사건 기술 이후 서울의 명칭과 무학대사가 헤매던 장소의 명칭에 대한 첨언이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2차 분석에서는 지시대상인 증거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전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서울과 왕십리>는 도읍의 터로서 적합한 곳을 찾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무학대사가 현인의 도움을 받아 도읍으로 적합한 터를 찾았는데, 이 사건 진술에 대한 주요 증거물은 ‘서울’과 무학대사가 현인을 만난 곳인 ‘왕십리’이다. 특히 왕십리는 ‘10리를 더 가다’라는 주인공의 구체적 행위에서 그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이 전설은 이른바 지명 유래담이라 할 수 있다.

3차 분석에서는 전설 텍스트가 지시대상과 연결됨에 따라 의미화되는 것을 찾는다. <서울과 왕십리> 전설은 왕십리의 명칭이 1차적인 지시대상이다. 이 전설이 생겨나기 이전, 이 전설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해당 지역, 즉 물리적 공간은 실제 있었다. 그런데 이 전설이 생성되고 전승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새롭게 명명된 지역명으로 불리게 된다. 이제 해당 지역은 ‘무학대사의 사연’이 있는 곳, ‘서울에서 10리 떨어진 곳’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고 부각된다. 이 전설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서울’의 명칭이나 ‘왕십리 枉十里’의 명칭에 관한 대목이 있는 것은, 전설이 새롭게 의미화하고 부각하는 것을 논리화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설은 왕십리 지역의 다양한 의미 중 특정한 의미를 생성하고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전설은 지시대상에 대한 재의미화를 통해 그것이 갖는 특이성이나 유일성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 구성: 이태조의 도읍 터 구하기—무학대사의 탐색(동야 지역 탐색)—노인의 가르침—10리 더 가서 서울 터 발견—서울 명칭 소개—왕십리 명칭 소개①—왕십리 명칭 소개② ○ 특징: 사건 서술 이후 서울과 왕십리 명칭에 대한 첨언 부기
2차 분석	○ 증거물: 서울(서울의 명칭), 왕십리(왕십리의 명칭) ○ 증거물과 전설의 관계: 등장인물의 행위에서 온 왕십리의 명칭 유래
3차 분석	○ 의미: 무학대사의 사연이 있는 곳, 서울에서 10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 생성 ○ 법칙: 지시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그것의 특이성을 지시함.

## 2. 분석 사례

이제 전설 텍스트를 분석해 보자. 지면의 한계 상 많은 사례를 분석할 수 없기에, 본 논의에서는 한국 전설의 3대 증거물인 자연물, 인공물, 인물 전설 한 편씩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자료 1] 가창산<sup>26)</sup>

연산군 때 많은 선비들이 귀양가거나 낙향해버렸다. 갑자사화로 부모를 잃은 서울의 두 명문이 아들이 용문산에서 10년간 열심히 공부한 후 속세로 내려왔다. 이들은 벼슬 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자로서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고자 맹세하였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갈 길을 찾아 나섰다. 세월이 흐른 뒤 한 사람은 대장부로서 벼슬길에 나아가 높은 포부와 경륜을 펴 보고 싶었다. 때마침 연산군이 쫓겨나자 과거에 응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문득 약속을 어긴 자신을 깨닫고 옛 친구를 찾아 사과하려고 결심하였다. 전국을 수소문하던 중 친구가 제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친구가 벼선밭로 뛰어나와 반겨 맞아 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눈물만 흘리다가 약속을 어기고 벼슬한 것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하였다. 친구가 용서해 주고 정답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고 친구의 아내가 감복하여 가야금을 연주하였다. 한 여인이 지성으로 가야금을 타 친구를 즐겁게 해주었다 하여 가창산(歌唱山)이라고 불렸다.

위 전설은 충북 제천시에 전하는 전설이다. 이 전설의 증거물은 ‘가창

26) 디지털제천문화대전(<http://jecheon.grandculture.net>); 편찬위원회, 『제천시지』中, 제천시, 2004.

산’으로 제천시에 실제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 실재하는 산이나 하천, 바위 등을 증거물로 삼아 형성되고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는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흔히 발견된다. 이 이야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 구성: 연산군 시절의 어지러운 사회-친구 간 약속(출사하지 않고 후진 양성하기)-한 친구의 약속 위반/출사하여 부유한 생활-출사한 친구가 옛 친구를 찾음.-친구들 상봉함.-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와 용서-두 친구의 우정에 감복한 아내의 가야금 연주-가창산의 명칭 소개 ○ 특징: 구체적 시간 배경 등장
2차 분석	○ 증거물: 가창산(실제 존재하는 대상) ○ 증거물과 전설의 관계: 등장인물의 행위에서 온 가창산의 명칭 유래
3차 분석	○ 의미: 가창산은 신의(信義), 용서와 화해, 정성스러운 연주 등을 의미하는 공간이 됨. 연산군 시대, 세속적 출세 등과 대비되는 탈속적 공간으로서 의미 획득 ○ 법칙: 지시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그것의 특이성을 지시함.

먼저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에만 정진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기로 약속한 두 친구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다. 약속을 어긴 친구가 과거의 친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다. 인물들의 갈등이 봉합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두 친구를 축하하며 가야금 연주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배경 공간인 산의 명칭이 정해진다. 다음으로 이 전설의 지시대상인 증거물은 제천시에 소재한 가창산이다. 이 전설은 가창산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에 대한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제 이 전설이 형성되고 전승됨에 따라 전설과 상관없이 존재하던 자연물로서 산이 전설로 지시되면서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가창산은 단순한 자연공간이 아니라 ‘신의’, ‘용서’, ‘화해’, ‘정성’, ‘탈속’ 등을 의미하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자료 2] 거친 바람과 물살에 흔들림 없는 진천 농다리<sup>27)</sup>

굴터 임씨네 집안에는 남매가 있었는데 둘 다 훌륭한 장사라서 서로 죽고 사는 내기를 하였다. 아들이 굵 높은 나막신을 신고 목매기송아지를 끌고 서울로 갔다 오기로 하였고, 딸은 농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아들이 송아지를 끌고 서울로 떠나고, 딸은 치마로 돌을 날라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니 아들은 올 기미가 없는데 딸은 다리 놓기가 다 끝나갔다.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려고 딸에게 뜨거운 팔죽을 해다 주며 일을 늦추게 하였고, 결국 아들이 도착하여 내기에서 승리하였다. 딸이 화가 나서 치마에 있던 돌을 내리쳤는데 아직도 그 돌이 그대로 박혀있다고 한다. 약속대로 딸이 죽고, 딸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칸은 다른 사람이 완성하였다. 그런데 장마가 지면 이것만 떼내려간다고 한다.

이 전설은 충북 진천의 농다리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 구성: 오누이 장사의 힘 내기—아들이 이기기 바라는 어머니의 개입—딸의 패배—딸의 죽음—딸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돌다리—마지막 칸은 다른 사람이 쌓음.—비가 오면 마지막 칸의 돌만 떼내려감. ○ 특징: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된 오누이 힘내기 설화 유형
2차 분석	○ 증거물: 농다리(실제 존재하는 대상) ○ 증거물과 전설의 관계: 등장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세부 증거물이 존재함.
3차 분석	○ 의미: 여 장사의 뛰어난 능력과 억울한 패배, 그로 인한 돌다리의 미완성 등 농다리에 대한 정보를 확정함, 패배와 원한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침. ○ 법칙: 지시대상이 존재하게 된 것을 증명하며, 관련된 행위의 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됨.

이 전설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전하는 ‘오누이 힘내기’ 설화 유형에 속한다. 오누이의 대결과 어머니로 인해 딸이 억울하게 패배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전설의 지시대상은 농다리로 현재에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존재한다. 이 전설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어떻게 존

27)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충북학연구소, 『이야기 충북』, 충청북도, 2004.

재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지시대상은 마지막 칸의 돌만 고정되지 않고 떠내려가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전설에 나타나고 있다. 이 전설은 농다리라는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으며, 처음 이것이 생겨날 때 일어난 일과 관련된 영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농다리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 장사의 비극적 패배와 그로 인한 원한을 함축하고 현재화하고 있다.

[자료 3] 우암 송시열의 일화<sup>28)</sup>

송시열이 태어날 때 어머니 곽씨가 월이산을 통째로 꿀꺽 삼키는 꿈을 태몽으로 꾸었다. 송시열이 태어날 당시에는 월이산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많았다고 한다. 송시열은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하루는 서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연못에서 개구리와 맹꽁이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었다. 공부에 방해가 되자 송시열이 연못으로 가 개구리와 맹꽁이에게 호통을 치자 울음을 멈추었다. 송시열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컸다. 동짓날에 스승에게 따뜻한 팔죽을 대접하기 위해 화덕을 써서 먼 길을 달려가서 스승에게 직접 식지 않은 팔죽을 드렸다. 그는 열기가 많아서 죽을 때 사약을 두 사발이나 마시고도 죽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설은 17세기 서인 노론의 맹주였던 우암 송시열에 관한 일화로 구성된 것이다. 옥천군 이월면에 전하는 전설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 구성: 송시열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신이한 태몽을 꾸.—어렸을 때부터 비범함이 드러남.—두꺼비와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제압함.—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컸음.—열기가 대단하여 사약을 두 사발이나 마셔도 죽지 않음. ○ 특징: 인물의 행적을 병렬적으로 제시
2차 분석	○ 증거물: 송시열(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물) ○ 증거물과 전설의 관계: 유명한 인물의 언행 자체를 이야기함.
3차 분석	○ 의미: 지시대상인 송시열에 관해 새로운 특성을 드러내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법칙: 지시대상에 관한 이미 알려진 정보나 의미를 확인하거나 상기시킴.

28) 충청북도 문과공보담당관실, 『전설지』, 충청북도, 1982. 옥천군편, 이월면.

충북에서 태어났거나, 주요 생활 근거지로 삼았던 많은 역사적 유명 인물들이 있다. 이 중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대표적 인물인데, 충북의 각 지역에는 이 송시열에 대한 전설이 많이 전한다. 송시열은 외가인 옥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그래서 옥천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송시열 전설이 널리 전승되고 있다. 이 전설은 송시열의 비범함에 대해 다양한 일화를 특별한 규칙 없이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설의 지시대상은 송시열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가창산’이나 ‘농다리’와 같이 자연물이나 인공물이 지시대상인 전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연이나 인공물이 지시대상인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존재 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증거물에 특별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굳이 존재 증명을 할 필요도 없으며,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유명 인물에 관한 전설은 단지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전설은 역사적 인물인 송시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거나 알려진 의미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IV. 결론

종래에 서사문학 연구에서 전설은 허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이야기로서의 형식성을 고려할 때 전설은 단순하고 난잡하고 인과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문학 서사로서의 조건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허구성의 기준을 해체하거나 벗어나서 전설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준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존재해 왔던 전설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종래의 평가는 재고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는 전설이 갖는 서사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살피고, 이를 고려한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전설의 정체성은 다른 서사와 달리 언어적으로 형성된 텍스트가 현실의 실제 대상을 지시한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 텍스트는 역사와 달리 실재하는 지시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설의 유표적이며 고유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전설 텍스트를 하나의 기호로 본다면, 지시대상과 물리적·직접적 관계를 맺는 지표기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설의 서사 구성 원리, 즉 전설 서사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탐색하려면 바로 이 점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자연에 대한 보편 범주로서 제시된 퍼스의 1차성, 2차성, 3차성의 3항성 개념을 활용하여 전설에 대한 서사 분석 모델을 기획하였다. 1차성은 다른 것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는 존재의 양식, 2차성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실존의 양상, 3차성은 1차성과 2차성의 것에 정신적인 것이 결합된 것으로 사유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어들은 각각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전설 서사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와 단계로 수용하였다.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사유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1차 분석의 대상은 전설 서사의 1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텍스트의 내적 형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와 배열 규칙을 기술한다. 2차 분석은 텍스트와 지시대상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전설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과 그것의 특성, 텍스트와 지시대상 간의 연결점 등을 분석한다. 3차 분석은 텍스트와 지시대상이 연결됨에 따라 형성되는 의미를 분석한다. 지시대상의 의미가 어떻게 제한되고 재의미화되는지 살피고, 나아가 전설과 관련된 전승자의 인식이나 관습과 같은 법칙을 파악한다. 이 전설 서사의 분석 모델에서 분석의 대상인 전설 서사를 해석하고 의미화하기 위해서는 2차 분석이 중요한 매개 기능을 한다. 1차적으로 존재하는 전설 서사의 형식 구조가 잉여적이거나 메타적인 것

이어서 비체계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2차성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사유의 영역인 3차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전설 서사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요소가 된다.

각 단위와 단계는 전설 서사의 형식 구조, 관계 구조, 의미 구조에 대한 분석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항의 서사 분석 모델은 전설과 다른 서사와 변별되는 정체성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서사의 다양한 층위에서 구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 서사 구조 분석에서는 텍스트의 형태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그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추상화된 의미 구조를 추론하는 수준에 머문다. 형태적 구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맥락을 도입하여 의미를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이 때 맥락의 선택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3항성의 서사 분석 모델에서는 전설과 지시대상의 관계 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확정하고 텍스트를 통한 사유하기의 법칙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마련된 방법론으로 실제 사례를 더 많이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가설 단계의 방법론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손은주, 「민간전승문학의 갈래로서 신화, 전설, 민담」, 『뽕히너와 현대문학』 25, 한국비뽕히너학회, 2005, 343~362쪽.
-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오세정, 「지표성으로 본 한국 전설의 유형론」,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회, 2019, 39~68쪽.
-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2.
- 정해창, 『퍼스의 미완성 체계』, 창계, 2007.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 최인학, 「한국전설의 유형과 motif의 연구」, 『한국학연구』 1, 인하대학 한국학연구소, 1989, 73~115쪽.
- 충북학연구소, 『이야기 충북』, 충청북도, 2004.
- 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설지』, 충청북도, 1982.
- 편찬위원회, 『제천시지』 中, 제천시, 2004.
-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 로버트 솔즈, 로버트 켈로그, 『서사의 본질』, 임병권 역, 예림기획, 2001.
- 로잘린드 크라우스, 『사진, 인텍스, 현대미술』, 최봉림 역, 궁리, 2003.
- 찰스 샌더스 퍼스, 제임스 홉스 편, 『퍼스의 기호학』, 김동식·이유선 역, 나남, 2008.
- 필립 뒤바, 『사진적 행위』, 이경률 역, 사진마실, 2005.
- A. J. Greimas & J. Courtés, *Sémioique-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Université, 1979.
- Charles Sander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ed.,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Göran Sonesson, "Post-photography and beyond: From mechanical reproduction to digital production", *Visio*. 4(1), 1999, pp.11~36.
- Kathryn Hume, *Fantasy and Mimesis: Responses to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Methuen Publishing, 1984.
- 디지털제천문화대전(<http://jecheon.grandculture.net>)
-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A Study on Narratology of Legend:  
Designing a Narrative Analysis Model for Legend  
Based on Three Categories

Oh, Se-Jeong

In narrative literature research, as fictionality was established as the main criterion for literary value, legend has been regarded as low-level form of narrative that fail to reach this standar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rst grasp the identity of the object before looking at it by standardizing the object on a specific criter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legend as a narrativ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principle of the narrative composition of the legend.

The identity of the legend is that, unlike other narratives in literature, the linguistically formed text indicates the actual object of reality. If the legend text is regarded as a sign, it can be said that the legend has a strong characteristics of index that establishes a physical and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indicated object. Then, to explore the principle of the narrative composition of the legend, that is, how to form and understand legendary narratives, it must proce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ex.

In this paper, the narrative analysis model of the legend was designed using Peirce's concept of firstness, secondness, and thirdness, presented as a universal category of human thinking and nature. The first analysis is about the inner form of a narrative, and describes the elements of the story composition and the rules of arrangement. The second analy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xt and the indicated object and grasps the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character of the indicated object and the relationship. The third analysis identifies the domain of thinking, that is, meaning and laws, that are formed as the text and the indicated object are connected.

In this narrative analysis model, each unit and step is an analysis and process of the formal structure, relational structure, and meaning structure of the legend. This model captures the identity of a legend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narratives, and makes it possible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grasp the structure at various levels of the narrative.

Keywords : Legend, Characteristics of index, Narrative analysis model, Firstness, Secondness, Thirdness, Formal structure, Relational structure, Meaning structure

투고일: 2020. 11. 25./ 심사일: 2020. 12. 09./ 심사완료일: 2020. 12. 10.



# 한국 근대 질병에 나타난 문명 충돌과 교환 상상력의 신화성과 종교성 연구

－ 이해조 <구마검>의 ‘천연두’에 대한 기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표정옥\*\*

##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근대의 신화화를 위한 기호로써 종두법
- III. 은유로써 천연두와 종교의 충돌
- IV. 전통의 탈신화화와 근대 법의 신화화
- V. 나오며

## 국문초록

천연두 즉 마마는 퇴치 과정에서 신화성과 종교성이 깊이 관계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학과 법이라는 근대의 문화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질병과 문명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근대 신화화를 위한 기호로써 종두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근대라는 개념은 과학과 함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기의를 가진다. 이때 종두법은 유일하게 인간이 완전하게 정복한 질병인 천연두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보다 인간의 문명적 힘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천연두에 대응하는 무속과 유교는 일종의 은유적 속성을 가진다.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이라는 무속은 옳지 못한 가치 관념을 함축하면서 묘사되고 반대로 유교는 과학과 법의 의미망 속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옳음과 치료 가능성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3302)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부교수, [pyowu@sm.ac.kr](mailto:pyowu@sm.ac.kr)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적극적으로 동화되면서 정치화되었다. 셋째, 천연두 즉 마마를 둘러싼 다양한 무속의 굿이 사기와 거짓으로 서술되어 전통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멀어지면서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 탈신화화 되는 반면 법과 과학은 근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화화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우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감염성 질병은 인간과 근대의 문제로 환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이 질병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질병의 탄생이 문명의 충돌을 가능하게 하고 종교의 의미도 새롭게 재신화화 하면서 근대 문화의 지형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열쇠어 : 질병, 문명충돌, 교환상상력, 신화성, 종교성, 천연두, 무속, 유교, 법

##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질병이 과학성에 치중되어 연구되어온 그간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질병이 종교성과 신화성에 반영되어 문화에 역동적이고 융합적으로 작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필 필요성을 제기한다. 질병은 문명충돌과 교환의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문명의 충돌과 교환의 상상력은 자연과학의 환경사적인 용어에서 등장하는 콜럼버스의 교환(columbian exchange)에서 일부 착안한 것이다. 엘프리드 W. 크로비스는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구대륙과 신대륙 간 문명 교류의 역사에 착안해서 이 용어를 창안했는데, 선진국에서 신대륙 원주민에게 전달한 질병에 대해 환경 문화사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문명이 충돌하면서 교환하는 것 중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교환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황상익은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 도입 과정과 일제 강점기 질병의 역사를 다루면서 크로비스가 논의한 콜럼버스의 교환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2)</sup> 문명의 교류는 인간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질병과 같은 치명적인 것들의 교환으로 이어지기도

1) 엘프리드 W. 크로비스,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김기윤 역, 지식의 숲, 2006.

2) 황상익,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을유문화사, 2014.

한다.<sup>3)</sup>

본고는 ‘콜럼버스의 교환’에 대한 자연과학적 논의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확장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학제적 또는 융합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콜럼버스의 교환은 구대륙과 신대륙의 질병 교환이 주된 골자인데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넘어간 전염성 질병이 매독 정도로 논의된다면, 구대륙에서는 두창, 인플루엔자, 홍역, 장티푸스,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처음 질병에 노출된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괴멸적인 인적 피해를 보았다. 한국 사회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에 의해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염성 질병이 계속적으로 조선에서 발생하기에 이른다. 1877년 일본 해군 장교 야노가 만든 최초의 한국 근대병원인 부산 재생의원의 출현은 조선에 새로운 질병을 인식시켰다. 그에 따라 조선인들의 문화관, 문학관, 종교관, 신화관 등 가치를 담는 고유의 사고체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인문학적 논의가 상당히 부족한 부족하다.

본고는 근대 우리나라에서 문명 충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의 등장이 근대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완전히 퇴치한 전염병은 천연두 즉 두창이 유일하다고 의학자들은 말한다. 과거의 전염병인 한센병, 흑사병, 결핵, 학질 등은 아직도 진행 중인 전염병이고 해마다 새로운 전염성 질병이 등장해서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한다. 비교적 최근의 치명적 전염병으로는 에볼라,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광우병, 구제역,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병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현재형이다. 더욱이 인류는 최근에 발생한 COVID-19과는 지독

---

3) 여기서 설정하는 질병은 전염성 질병으로 pandemic, contagion, outbreak, epidemic 등의 번역어이다.

한 대치국면 중이고 인류는 위기의 코너에 몰려있다. 질병은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비롯해서 기초적인 인간관계와 인문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국 의학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의학이 조선 식민화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과 함께 역사의 신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신공황후 정복설, 칠지도 주장론, 삼국유사 부정론, 단군 부정론 등 조선 신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조선을 문화적으로 매우 열등한 위치에 놓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선진 문화의 표상으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던 일본 제국 의학은 조선의 신화를 말살하면서 자신들의 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고도의 신화 전략을 함께 구사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개화기 이후 등장한 한국의 신소설 중 이해조의 <구마검(驅魔劍)>에 나타난 제국 의학의 모습을 통해 문명 충돌의 신화성을 귀납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일제는 1910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10대 전염병을 지정하는 등 질병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했고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 통제 기제로 활용했다. 이러한 기제는 그들의 침략과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던 것이다.

문학사의 변동이 질병의 대응 방식과 무의식적으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질병은 공동체 집단의 동시대의 기억을 총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공포 체험이다. 또한 질병은 역사적 공포와 통제의 기제를 동원해서 공동의 기억을 재구축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질병의 통제와 공포에 맞서기 위해 혹은 피하기 위해 문학사는 공포와 직 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작동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순수주의 등의 문학사적 변동성은 질병과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헨리 지커리스트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학적 개체라기보다는 사회적 존재의 성격이 뚜렷해서 인간의 질병이 문명을 만들고 그 질병은 다시

인간의 역사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신소설 작가 이해조의 대표작 중 하나인 <구마검(驅魔劍)>을 통해 천연두라는 질병이 어떻게 문명 충돌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무속으로 대표되는 구문화와 법과 과학으로 대표되는 신문화의 교환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왔던 <구마검(驅魔劍)>에 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을 가지는 논의들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로 눈여겨 볼 연구는 우두를 정치와 근대라는 개념과 등치시키는 관점이다. 우두법이 등장하면서 질병의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sup>5)</sup> 둘째로 보아야 하는 논의는 <구마검>을 미신과 과학의 충돌로 보는 견해이다.<sup>6)</sup> 셋째로 참고할 수 있는 논의는 <구마검>의 ‘천연두’를 면역의 은유와 침범의 은유로 읽어간 관점이다.<sup>7)</sup>

천연두 즉 마마는 퇴치 과정에서 신화성과 종교성이 깊이 관계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학과 법이라는 근대의 문화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질병과 문명의 상관관계를 신화성과 종교성에 입각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변별점을 가지면서 질병과 문화사 논의의 깊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논의의 정교함을 위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첫째, 근대 신화화를 위한 기호로서 종두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근대라는 개념은 과학과 함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기의를 가진다. 이때 종두법은 유일하게 인간이 완전하게 정복

---

4) 헨리 지커리스트, 『문명과 질병』, 황상의 역, 한길사, 2008.

헨리 지커리스트는 질병이 모든 문명사에 관계되는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경제, 사회, 법률, 역사, 종교, 고고학, 문학, 미술, 음악 등 거의 모든 문명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진화했다고 본 것이다.

5) 장석만, 「‘근대성의 이면(裏面)’으로서의 점복, 그리고 그 너머」, 『종교문화비평』, 36(2019), 15~47쪽.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한국과학사학』, 한국과학사학회, 2000.

6) 광근, 「이해조의 <구마검>고-미신타파 문제를 중심으로」, 『경주대학논집』 9, 경주대학교, 2000, 35~53쪽. 이학영, 「현미경(顯微鏡)과 조마경(照魔鏡) - 이해조 소설에서 과학과 유교의 관계」, 『인문논총』 74, 인문학연구원, 2017, 35~62쪽.

7)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사상사, 2007, 18~47쪽.

한 질병인 천연두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보다 인간의 문명적 힘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천연두에 대응하는 무속과 유교는 일종의 은유적 속성을 가진다.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이라는 무속은 옳지 못한 가치 관념을 함축하면서 묘사되고 반대로 유교는 과학과 법의 의미망 속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옳음과 치료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적극적으로 동화되면서 정치화되었다. 셋째, 천연두 즉 마마를 둘러싼 다양한 무속의 곳이 전통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멀어지면서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 탈신화화되는 반면 법과 과학은 근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명적 신화화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정과리는 감염병이 커뮤니케이션을 유해한 방향으로 작동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감염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와 혐오와 배척을 자동적으로 일으킨다고 말한다.<sup>8)</sup> 이렇게 볼 때 근대 우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감염성 질병은 인간과 근대의 문제로 환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이 질병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질병의 탄생이 문명의 충동을 가능하게 하고 종교의 의미도 새롭게 재신화화 하면서 근대 문화의 지형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 II. 근대의 신화화를 위한 기호로써 종두법

역사 속에서 전염성 질병과 인간의 대결은 시대를 거쳐 반복되어왔다. 홍역과 두창은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종식시켰고 나아가 신대륙 원주민을 몰살시켰다. 특히 두창은 아즈텍 문화를 사라지게 하였고, 흑사병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하였으며, 발진티푸스는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했던 나폴레옹의 돌진을 막았고, 인플루엔자는 20세기 초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급기야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낳게 했다.<sup>9)</sup> 인류는 역사의 큰 변화의 장에서 질병이라는 거대한

8) 정과리 외,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머리말>.

장애물을 만나 그것을 넘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코로나 역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 등 다양한 시대변화의 용어들과 혼재되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함축하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천연두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마마 즉 천연두와 관련된 <마마신 강남국 손님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에게 마마를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승할망본물이>와 연결되어 이야기되곤 한다.<sup>10)</sup>

<마마신 강남국 손님네>의 이야기는 강남국에서 쉰셋 손님이 해동국에 방문한다는 설정으로 다분히 질병이 다른 문화와 문명의 충돌과 혐오의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씨가 좋으면 병을 약하게 하고 떠나는 것이 마마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되면서 마치 천연두 마마가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징벌적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마마신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대접도 하고 도망도 가고 땅 속으로 숨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직접 대면해서 싸워도 보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고운 마마를 부탁하는 삼승할망에게 마마신이 화를 내자 삼승할망은 마마신의 부인인 대별상 부인에게 아이를 점지하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안겨준다. 이때 마마신은 삼승할망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이야기가 마마신과 삼승할망 사이의 갈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마, 호구별성, 손님, 서신, 두신, 두창 등은 모두 천연두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 중기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어숙권의 『패관잡기』에는 마마귀신을 중요하게 여겨 “제사, 초상집 출입, 잔치, 성교, 외인 및 기름과 꿀 냄새, 비린내와 노린대, 더러운 냄새”를 금기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9)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권복규 역, 사이언스북스, 2001.

10)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세째거리-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참고한다.

목욕을 하고 빌면 죽다가도 살아나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sup>11)</sup> 조선중기 어숙권의 논의는 조선후기에도 비슷한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마마는 여전히 귀신이나 공포를 상징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외래에서 온 손님인 천연두 두신은 무당을 통해 잘 보내지는 배송굿이 진행되었다. 전근대적 마마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마마배송굿의 논의는 이해조의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의 이야기에 잘 보여지고 있다.

1798년 영국의 제너는 종두법을 사용해서 천연두를 퇴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후기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의 「마과회통」의 부록 <신증종두기법상설>에 우두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으며 현종 때에는 조선 정부 차원에서도 우두를 보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종두법이 근대 일본의 의학으로부터 들어온 근대적 의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석영의 종두법을 대대적으로 활용했다. 당시에는 우두 효과에 대한 불신감과 고가의 접종비로 여전히 무속의 세계에 많은 민중들이 머물기도 했다.<sup>12)</sup> 종두는 근대라는 탈을 쓰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 의술이 자행되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신동원은 일본의 지석영 신화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질병을 통치의 새로운 원리로 활용하는 것으로 질병 퇴치가 곧 정치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된다. 이종찬 역시 신동원과 비슷한 취지에서 종두법이 문명개화를 달성하기 위한 통치기술로 활용되었으며 근대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3)</sup>

1908년 발표한 이해조의 <구마검(驅魔劍)>은 ‘귀신을 쫓아내는 칼’이라는 의미로 당시 미신을 쫓아내는 과학과 법을 칼에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함진해는 부자이지만 처복과 자식 복이 없는 편이다. 첫부인과 재취부인이 죽고 세 번째 부인 최씨가 아들 만득이를 낳고 무

11)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사상사, 2007, 20쪽 재인용.

12)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한국과학사학』, 한국과학사학회, 2000, 163~166쪽.

13)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 지성사, 2004, 259~260쪽.



당을 불러 자주 굶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제 돌 지난 아들에게 첫부인과 둘째부인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사사건건 굶을 하게 된다. 무서운 천연두가 아들 만득이에게 찾아왔을 때 최씨의 행동은 매우 비과학적이어서 결국 아이를 죽게 한다. 최씨는 만득이의 마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에 의학이 발달 못 되어 비명에 죽는 병이 여러 가지로되, 제일 무서운 병은 천연두라. 사람마다 으레히 면하지 못하고 한 번씩은 겪어, 고운 얼굴이 짙어 매기도 하며 눈이나 귀에 병신도 되고 종신지질 해소도 얻을뿐더러 열에 다섯은 살지를 못하는 고로, 속담에 ‘역질 아니 한 자식은 자식으로 믿지 말라’는 말까지 있으니 위험함이 다시 비할 데 없더니, 서양 의학사가 발명한 우두법을 배워 온 후로 천연두를 예방하여 인력으로 능히 위태함을 모면하게 되었건마는, 누가 만득이도 우두를 넣어 주라 권하는 자 있으면 최씨는 열, 스무 길 뛰며 손을 뒤흔 내어젓고,

“우리 집에 와서 그대 말 하지도 마오. 우두라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그 까짓 것으로 호구별성을 못 오시게 하겠군. 우두 한 아이들이 역질을 하면 별성 박대한 벌역으로 더구나 중하게 한답디다. 나는 아무 때든지 마마께서 우리 만득에게 전좌하시면 손발 정히 씻고 정성을 지극하게 들어어서, 열사흘이 되거든 장안에 한글 나가는 만신을 청하고, 입담 좋은 마부나 불러 삼현육각에 배송 한 번을 찍지게 내어 볼 터이오. 우리가 형세가 없소? 기구가 모자라오?”<sup>14)</sup>

“역질 아니한 자식은 자식으로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언제라도 천연두가 아이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미 이 시대는 서양 의학사가 우두를 넣어 주면 예방하는 능력이 있어서 위태함을 면한다는 이야기가 일반화된 일부 개명된 사회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부인은 예로부터 무당에 의해 진행되어

14) 이해조, 『구마검 모란병 자유종 산천초목 화의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9쪽. 이후 작품 각주는 페이지만 기록한다.

오던 <마마배송굿<sup>15)</sup>>만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한다. 마마가 오면 손발 정히 씻고 정성을 들이고 열사흘이 되면 만신을 청하고 입담 좋은 마부를 부르고 삼현육각에 배송을 한다고 말한다. <마마배송굿>의 전통을 보면 짚으로 만들어지는 말을 만들어 마부가 끌고 가게 하는데 그 말은 상마(上馬)라고 불린다. 말등에는 세 개의 오쟁이가 달리는데 그 안에 메와 수고비와 과일이 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곳으로 아들 만득이는 죽고 만다. 천연두에 걸린 만득의 죽음에 대해 작가 이해조는 <구마검(驅魔劍)>을 통해 미신타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신에 경도된 어미 최씨의 귀신 섬김이 어리석게도 결국 아들을 잃어 버리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어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씨는 약은 비상국만치 여기고 밤낮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동의 정안수 뿐이니, 이는 자식을 아편이나 양젓물을 타 먹이지 아니하였다뿐이지, 그 죽도록 한 일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불쌍한 만득이가 지각없는 어미를 만나 필경 세상을 버렸더라.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에서 최씨 부인이 정안수를 들고 아들의 병을 간호하는 것은 양젓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한다. 부인 최씨는 남편 함진해가 가져온 탕약을 쏟아버리고 오로지 곳에만 정성을 기우린다. 이해조는 최대한 무속의 비과학성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에 등장하는 무당 판수와 풍수를 맡는 지관을 모두 비정상적인 사기꾼으로 등장시킨다. 속임수와 기만이 미신과 결합되면서 질병을 틈타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해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천연두를 근대적인 질병으로 인식하고 종두법을 받아들였다면 아들 만득이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사점도 함께 주고 있다. 즉 무당과 지관의 전근대적 기호를 부정적인 기의로 가

15) <마마배송굿>은 <호구본풀이>에 자세하게 등장한다. 호구별성을 대상으로 자식의 명(命)과 복(福)을 축원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득 채우면서 역으로 종두법과 서양 의학은 말하지 않아도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시키는 기호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천연두는 그 자체로 문명 개화기의 근대라는 기호를 함축하는 기표가 되는 셈이다. 그 기표 안에는 인간이 퇴치시킨 전염병이라는 의미가 실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과 의학의 효능이 실효성을 가진다는 성공적 기의를 함의한다.

### Ⅲ. 은유로써 천연두와 종교의 충돌

<구마검(驅魔劍)>은 당시 발표되던 다른 신소설에 비해 비교적 우연성이 적고 인과성과 논리성이 잘 드러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sup>16)</sup> 질병을 통해 문화의 충돌과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천연두를 치료하는 종두법은 문명개화를 달성하기 위한 통치 의술로써 기능을 담당했으며 근대라는 개념이 문명사에서 자리매김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질병 용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천연두는 근대를 상징하는 용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대대를 상징하는 은유적 기능도 담당한다. 이재선은 신소설과 근대소설에서 천연두가 침범의 은유론이자 면역의 은유론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재선은 이광수 소설 <무정>에서 박영채의 출현으로 김선형이 겪는 내적 고뇌를 마마와 같은 병이며 반드시 겪어야 하는 정신이나 사랑의 속환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착안해서 면역의 은유론이라고 평가했으며, 서양이나 중국으로부터 온 질병이라는 인식을 반영해서는 침범의 은유라고도 지칭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작품 안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은유적 기능은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본고는 무속의 문화 속에서 은유

16) 김성렬, 「이해조 신소설의 재평가 -소설미학적 성취와 한계 및 그 연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39, 2007, 221~255쪽.

17)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 지성사, 2004, 259~260쪽.

18)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사상사, 2007, 18~47쪽.

화되는 천연두는 대를 끊는 단절의 은유를 보여주고, 유교와 관련된 문화 속에서는 가계를 잇게 하는 연속적 은유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무속에 경도된 부인 최씨는 아들 만득을 잃고 나서도 여전히 굿타령만 한다. 죽은 아들의 명복을 위해 금방울이라는 새로운 무당을 불러서 대대적인 굿을 벌이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처음에는 무당의 굿이나 귀신이나 하는 것들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함진해도 죽은 두 부인이 빙의했다며 부인들을 흉내 내는 무당을 보면서 무당이나 귀신을 믿기 시작한다.

“에그 영감, 나를 몰아보오, 오? 아무리 유명이 달라졌기로 어찌면 그다지 무정하오오? 나 병들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하셨소오? 십 년 동거하던 정을 버리고 왜 죽으려 드느냐고 저기 저 창 밑에서 더운 눈물을 더벅더벅 떨어뜨리시던 양을 보고, 죽은 나의 뼈가 아프며 눈을 못 감겠더니, 이 눈이 꺼지지 않고살이 썩지도 않아(19)

“허허, 무당도 헛것이 아니로군. 내가 벼전 병문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난 것을 집안사람도 본 이가 없고 아무더러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여합부절로 말하는 양을 본즉 귀신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걸.”(21)

금방울이라는 무당에게서 죽은 두 부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서 함진해는 “본즉 귀신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점점 무속에 빠져드는 함진해는 급기야 집안 어른의 상가집에도 부정을 탄다는 이유로 가지 않게 된다. 작은 아버지 함지평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자 화가 난 사촌 함일평은 함진해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나 함진해는 함일평에게 미안하기보다 부인 최씨의 편에 서서 그를 집안에서 홀대하게 된다. 결국 천연두 즉 마마로 죽은 아들 만득이 때문에 함진해는 유교의 이념을 버리고 무속의 의식을 쫓게 되고 그로 인해 함일평과 충돌하게 된다. 함진해는 금방울이 소개한 임지관이라는 풍수쟁이를 만나 집안의 기울어 가는 운세가 조상의 묘자리를 잘 못 쓴 것 때문이라는 말

에 넘아가 급기야 가산을 탕진하고 만다. 묘자리를 바꾸고 아들이 생길 길 바라던 함진해의 집안은 더 빠른 속도로 기울기 시작하고 부인 최씨마저 병이 깊어지고 함진해는 칠십 노인처럼 보일 지경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조상의 뼈를 옮겼던 선산마저 사기를 당하고 다시 땅 주인에게 산을 빼앗기면서 가산이 완전히 탕진되고 만다. 이는 금방울, 임지관, 최생원, 강서방 등의 인물이 함께 만들어낸 속임극이었다.

무당과 판수와 지관의 농간으로 패가망신하게 된 함진해는 함씨 문중의 공개 비난을 받게 되고 사촌 함일청의 아들이 함진해의 양아들로 종가를 잇게 된다. 양아들 함종표는 극진히 함진해와 아픈 부인을 정성껏 보살피고 급기야 부인의 병이 차츰 차츰 좋아지게 된다. 최씨 부인은 종표를 학교에 보내게 하고 급기야 종표는 판사가 되어 사기와 속임수로 함진해의 재산을 탕진한 사악한 이들을 모두 심판한다. 이해조는 근본적으로 유교적 사상을 작품 전반에 깔고 있다. 무속의 주술성은 과학과 법의 합리성으로 탈주술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유교의 풍속이 이해조에 의해 취사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동일은 이해조가 <구마검(驅魔劍)>을 통해 유교 풍속을 취사 선택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하고 애국의 길로 연결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해조에게는 민담, 전설, 신화, 속신 등의 세계는 비과학적 세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풍수, 관상, 사주, 점술 등은 나라를 망치는 폐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법과 과학적 지식을 갖춘 합리적 인물이 유교적인 진리를 계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교는 근대화와 결합되는 근대적 질서가 된다. 유교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무교의 주술성은 칼로 잘라야 하는 마귀와 같은 것이다. 즉 이해조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근본으로 하늘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유교의 이념은 근대의 법이라는 질서 속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점복이 ‘근대성의 타자’라고 지칭한 장식만의 논의는 유

19) 조동일, 『소설사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본 신소설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52쪽.

의미성을 가진다.<sup>20)</sup> 당시 신소설 작가들에게는 검사와 같은 지위가 엇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형법적 사고에 입각하여 악인을 응징하는 서술기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sup>21)</sup> 또한 신소설에서 추구하는 세계가 초월적 원리가 아니라 세속에서 작동하는 현실적 원리이기 때문에 보다 대중적으로 유교적 세계관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함씨 종가는 무속으로 패가망신한 함진해의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유교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함일평이 함진해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10개의 잠언 중 유교와 무속의 대립을 나타내는 장을 다음과 살펴볼 수 있다.

이. 사람 구원하기는 의원만 한 이 없고, 세상을 혹케 하기는 무녀 같은 것이 없나이다.

육. 사람을 능히 섬기지 못하거든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기며, 산 사람도 모르며, 어찌 능히 죽은 자를 알리오? 귀신과 죽음은 성인의 말씀치 아니한 바니, 성인이 아니 하신 말을 내가 지어내면 성인을 배반함이다.

칠. 굿하고 경 읽음을, 자기는 당연한 놀이마당으로 여겨도, 지식 있는 사람 보기에는 혼암 세계로 아나이다.

구. 산을 뚫고 길 내기를 풍수에 구애가 될지면, 외국은 철도가 낙역하고 광산이 허다하건만, 어찌하여 국세가 저같이 흥왕하뇨? 풍수가 어찌 동양에는 행하고 서양에는 행치 아니하오리까?

십. 사람의 품은 마음을 가히 측량키 어려워 얼굴과는 관계가 없거늘, 상을 보고 마음을 안다 하니, 진실로 술사의 사람 속이는 말이니다. (74~75)

위의 내용은 함일평의 입을 빌린 작가 이해조의 개화사상이라고 할 수

20) 장석만. 「『근대성의 이면(裏面)』으로서의 점복, 그리고 그 너머」, 『종교문화비평』 36, 종교문화비평학회, 2019, 15~47쪽.

21) 조형래. 「『소설(小說)』의 사실, 법률과 재판 : 와사옥안과 이해조의 구마점, 구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57쪽.

22) 이학영. 「현미경(顯微鏡)과 조마경(照魔鏡) - 이해조 소설에서 과학과 유교의 관계」, 『인문논총』 74, 인문학연구원, 2017, 57쪽.

있다. 즉 세상을 혹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무당 판수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귀신은 성인의 말씀 즉 유교의 세상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무당의 굿과 경 읽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혼란한 것이며 동양의 풍수라는 것도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평한다. 서양에서 철도와 광산이 생기는 것을 보면 풍수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관상 역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해조는 작가의 전지적인 목소리를 활용해서 “무릇 나라의 진보가 되지 못함은 풍속이 미혹함에 생기나니, 슬프다! 우리 황인종의 지체도 백인종만 못지아니하거늘, 어찌다 오늘날 이같이 조잔 멸망 지경에 이르렀나뇨?(72)”라고 한탄한다. 풍속의 미혹함을 빨리 고쳐야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 IV. 전통의 탈신화화와 근대 법의 신화화

이해조는 신소설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소설적 양식을 실험적으로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고전을 변안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연성보다는 논리성과 인과성이 잘 배합된 근대적 의식을 작품 안에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인정받고 있다. 현실의 문제의식을 소설 안에 드러내려고 한 것과 국어문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해조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근거없는 부정적 인식은 오랜 세월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국 문화를 탈신화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근대적 법은 유교적 질서에 편승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얻는 제도권 신화화의 대상이 되었다.

예로부터 두창 천연두는 12일 동안 앓고 13일째 병을 보내는 곳을 한다고 전해진다. 피부반점 3일, 구슬돋움 3일, 구슬 안의 고름 맺힘 3일, 터진 후 딱지 떨어지는 것 3일 등 총 12일이 지나면 검은 곰보가 지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13일에는 두신을 배송하는 <마마배송굿>을 한다고 말한다.<sup>23)</sup> 그러나, 역사적으로 무조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무당의 배송굿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니었다. 허준은 <언해두창집요>에서는 두창에 약을 쓰지 않는 것을 지적했고 실제로 왕자의 두창과 수천 명의 두창을 살렸다고 기록된다.<sup>24)</sup> 1885년 지석영을 중심으로 국가 우두법이 시행되었고, 1894년 이후 우두법은 행정력과 결합되었으며, 1900년 이후에는 매년 몇 만명 이상이 우두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1908년 <구마검(驅魔劍)>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사회적으로 우두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이다. 천연두를 이르는 말인 역질과 마마는 개항이후 신문과 각종 매체에서 가장 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역질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천연두와 마마만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역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서양 의학의 천연두라는 이름과 무속에서 사용하는 마마만이 남게 되었다. 이를 두고 천연두와 마마는 서양의 문화와 무속만이 대립하는 극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합리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sup>25)</sup>

본고는 <구마검(驅魔劍)>이 지나치게 문명개화라는 주제의식과 법과 과학이라는 서양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지나치게 비상식적으로 전통을 탈신화화시키는 점에 주목한다. 첫째, 무속이 사기이며 가짜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해조가 창조한 인물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당으로 등장하는 금방울, 지관으로 등장하는 임지관, 자식을 치료하지 않고 굿만 하는 최씨 부인, 최씨 부인을 속이는 안잠자기 노파, 산의 주인인 최생원 등 모두 속임수와 사기를 일삼는다. 대표적으로 금방울을 두고 “저 계집도 사람은 일반인데, 무슨 노릇을 못 해서 흑세무민(惑世誣民) 하는 무녀 노릇을 하다가 이 지경을 당하노?(84)”라

23)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돌베개, 2013, 161~165쪽.

24) 신동원, 위의 책, 169쪽.

25) 신동원, 위의 책, 190쪽.



고 말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무속과 전통문화를 모두 속임수와 사기라는 부정적 극단의 평가를 내림으로써 근대에서 오래된 전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문화의 부정적 유산이 되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화 안에서 향유되어 왔던 친숙한 문화가 일순간에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이다.

둘째, 글 속에 등장하는 전통놀이 문화와 서사가 잘못 조합되거나 활용됨으로써 전통의 비과학적인 이미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단, 함진해의 첫째 부인 귀신과 둘째 부인 귀신을 『옥추경』으로 가두었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옥추경』은 도교(道敎) 계통의 경전이며, 첫머리에는 44신상(神像)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주로 『옥추경』은 조선 시대 전체에 걸쳐 가장 많이 읽히는 치병(治病)의 경전으로 유명하고 병곳이나 신곳과 같은 큰곳에서 독송되었다고 전해진다.<sup>26)</sup> 따라서 첫째 이씨 부인과 둘째 박씨 부인을 큰 물 독에 가두기 위해 독송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치에 어긋나게 들린다. 이는 전통의 비합리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의미로 상황에 맞지도 않은 경전을 읽고 효과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주술의 비신뢰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옥추경』이 가지는 치병적인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다.

셋째, <지노귀새남>과 <진배송굿>을 거의 동일하게 전달함으로써 굿의 고유한 전통적인 위안의 의미는 사기극으로 변질되면서 탈신화화하고 있다. 아들 만득이의 죽음 후에 최씨는 죽은 사람의 넋이 극락으로 가도록 하는 <지노귀새남> 굿을 하고 싶어한다. 이 굿은 지노귀굿보다는 큰 것으로 죽은지 49일 안에 치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죽은 아들의 극락행을 기원하고자 하는 최씨와는 다르게 안잠자기 노파는 <지노귀새남>보다는 <진배송굿>을 해야 다음에 낳을 자손이 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진배송굿>은 천연두로 죽은 아이가 그 다음 아이에게 그 병이 옮겨가지 못하게 푸닥거리를 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굿이 이루어지

26) 이해조, 위의 책, 6쪽 각주 활용.

는 장면은 금방울의 사기극이나 다름없게 전개된다. 무당 금방울은 “남의 눈치 잘 채우고, 남의 말 넘겨짚기 잘하고, 아양, 능청 온갖 재주를 구비하였다(13)”고 묘사된다. 굿의 장면도 함진해 집안의 재산을 탐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아래는 굿의 한 장면이다.

눈치 빠른 금방울이는 함진해의 하는 거동을 보고 새록새록 별소리를 다  
지어내어 번연히 제 입으로 말을 하여 제 욕심을 채우면서도 저는 아무 상  
관없는 듯이,

“이씨가 노자를 달라 한다.

박씨가 의복차를 달라 한다.

당집을 짓고 위해 달라.

달거리로 굿해 달라.”

하여 당장에도 빼앗고 싶은 대로 빼앗고 이 다음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거리까지 장만하는데.(22)

<지노귀새남>과 <진배송굿>은 죽은 후 영혼이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거나 후에 오는 아이에게 복이 오도록 하는 것인데, 금방울의 굿은 거  
짓과 탐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굿에 대한 전통적인 민간의 전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탈신화화하고 있다. <진배송굿>은 <마마배송굿>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의례였다. 16세기 이문건  
은 『양아록(養兒錄)』이라는 책에서 천연두에 걸린 손자를 위해 13일째  
얼굴의 딱지가 떨어질 즈음에 마마배송굿은 마마를 이겨낸 아이의 회복  
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로  
<마마배송굿>을 한다.<sup>27)</sup> 병이 걸린 후 13일쯤에 굿을 한다는 것 역시  
현대적으로 면역이 생기거나 이겨내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함진해와 부인 최씨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공을 들이는 <삼신맛  
이> 역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과장됨으로써 매우 불합리하게 서술된다.

---

27) 이문건, 『양아록(養兒錄)』, 태학사, 1997.

함진해는 작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도 부정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게 된다. 그에 분개한 사촌 동생 함일평은 함진해의 집을 찾지만 부인 최씨는 함일평을 향해 “두달 반이나 들인 공이 나무아미타불이 또 되었지, 삼신맛이를 하려면 번번이 이렇게 재앙이 드니, 우리 팔자에 자식이 아니 태었는지, 삼신제왕이 아무리 점지하시려니 이 모양으로 인간 부정이 있으니까 꽤심히 보시지 아니할 수가 있나?”(25)라고 쏘아부친다. 무속신화 <삼승할망본풀이>와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가 주로 삼신할미와 관련을 맺는데, 삼신할미의 자비로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지나친 금기만이 <삼신맛이>로 서술되고 있다. 이 역시 무속신화와 삼신에 대한 긍정의 전통적인 이미지보다는 지나치게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욕망을 제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전통을 근거 없이 비과학적 구속이라고 묘사하는 탈신화화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법은 매우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이미지로 신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진해는 임지관과 금방울과 최생원과 강서방이라는 인물들에 의해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로 하면서 모든 재산을 강탈당한다. 굶도 하고 모지도 이장했지만 함진해의 집안은 점점 쇠락해진다. 부인의 병은 더 깊어지고 함진해 자신도 칠십 노인처럼 늙어보인다. 그리고 금기야 함씨 종가의 종친회에서 사촌 동생 함일평의 아들 종표가 함진해 집안을 구하기 위해 양자로 들어온다. 함종표는 근대 교육을 통해 판사가 되고 함진해 집안을 망가트린 인물들을 모두 단죄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함종표는 법과 과학에 의해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죄인들을 처벌하면서 법의 근대적 신화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마침내, 부인 최씨는 종표에 의해 병도 낫게 되고 지금까지 믿었던 미신도 모두 태워버린다. 마지막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 모양으로 호령을 하여 두 년을 축출하니, 최씨부인이 그 아들 보기도 얼굴이 뜨뜻하여, 그 사지 어금니같이 아끼던 수하친병이 이 지경이 되어도

말 한 마디 두호하여 주지 못하고, 오직 아들의 뜻대로만 백사, 만사를 좇는데, 벽장 다락 구석에 위해 앉혔던 재석, 삼신, 호구, 구능, 말명, 여귀 등 각색 명목과 터주, 성주 동물을 모두 끌어내다 마당 가운데에 쌓아 놓고, 성냥 한 가지를 드욱 그어 불을 질러 태워 버리고, 다시 구기라고는 손톱 반머리 만치도 아니 보는데, 그 뒤로는 그같이 변할 날이 없이 우환이 잦던 집안 식구들 돌림감기 한 번을 아니 앓고, 아이들이 나면 젖주럽도 없이 숙성하게 잘 자라니.(89~90)

최씨는 자기를 속였던 금방울과 안잠자기 노파의 축출을 보면서 양아들 종표에게 매우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벽장 안에 있던 재석, 삼신, 호구, 구능, 말명, 여귀, 터주, 성주 동물 등을 모두 불태우게 된다. 그리고 식구들은 돌림감기 한번도 아니했다고 진술된다. 법으로 무당의 사기를 처벌한 것은 분명 근대적인 사고의 신화화이다. 그리고 그 신화화는 가족이 모두 건강했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나 과학을 이 소설에서는 논하지는 않았지만 법과 과학이 근대의 신화화에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 V. 나오며

본 연구는 신소설 대표작가인 이해조의 <구마검(驅魔劍)>을 질병과 문명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귀납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의 질병은 주로 과학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본고는 질병의 발생이 문명충돌의 후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 문명과 문화를 충돌하게 만들고 내부의 기존 전통문화와 외부의 서양문화를 교환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살피고자 했다. 특히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의 소재가 되는 천연두는 인류가 완전히 정복한 유일한 감염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천연두는 근대라는 기호를 담는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질병

은 한 문화권의 문화 속에서 종교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계층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천연두가 강남에서 들어온 이방인과 이문화 혐오성을 가지듯이 현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역시 다른 문화에서 유입되었다는 이문화 혐오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 역시 천연두처럼 각 문화권에서 종교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종교적 활동으로 전파성이 강해질 때 질병에 대한 논쟁은 종교적 갈등과 혐오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천연두가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질병 역시 언택트라는 새로운 문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인류를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고 있다. 본고는 근대의 신화화로써 활용되었던 종두법의 내용을 살피고 은유로써 질병의 기능을 읽어내고 기존의 전통을 탈신화화시키는 질병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우리 시대가 당면한 코로나라는 신종 질병이 우리 시대에 가지는 기호작용과 은유작용과 신화화의 방법들을 읽어내리게 해주는 타산지석의 초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계명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엮음, 『문명의 교류와 충돌』,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 고미숙, 『위생의 시대』, 북드라망, 2014.
- 고일홍 외, 『문명의 교류와 충돌』, 한길사, 2013.
- 곽근, 「이해조의 <구마검> 고-미신타파 문제를 중심으로」, 『경주대학논문집』9, 경주대학교, 2007, 35~53쪽.
- 김성렬, 「이해조 신소설의 재평가 -소설미학적 성취와 한계 및 그 연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39, 국제어문학회, 2007, 221~255쪽.
- 박재영, 『문학 속의 의학』, 청년의사, 2002.
-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 해안, 2005.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편저,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솔빛길, 2015.
-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08.
- \_\_\_\_\_,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출판사, 2008.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 \_\_\_\_\_, 『호환 마마 천연두』, 돌베개, 2013.
- \_\_\_\_\_,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한국과학사학』, 한국과학사학회, 2000.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의료정책연구소, 2012.
- 이문건, 『양아록(養兒錄)』, 태학사, 1997.
- 이민호, 『동서양 문화교류와 충돌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2009.
- 이재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사상사, 2007.
-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 지성사, 2004.
- 이학영, 「현미경(顯微鏡)과 조마경(照魔鏡) - 이해조 소설에서 과학과 유교의 관계」, 『인문논총』74, 2017, 인문학연구원, 35~62쪽.
- 이해조, 『구마검 모란병 자유종 산천초목 화의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장석만, 「‘근대성의 이면(裏面)’으로서의 점복, 그리고 그 너머」, 『종교문화비평』36, 종교문화비평학회, 2019, 15~47쪽.
- 정과리 외,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 조승렬 외,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솔빛길, 2015.
- 조동일, 『소설사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본 신소설과 시대의의식』, 새문사, 1981.
- 조형래, 「소설(小說)의 사실, 법률과 재판 : 『와사옥안』과 이해조의 『구마검』, 『

- 구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66, 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41~67쪽.
- 홍윤철, 『질병의 탄생- 우리는 왜, 어떻게 질병에 걸리는가』, 사이, 2014.
- 황상익, 『근대 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 \_\_\_\_\_,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을유문화사, 2014.
- 데이비드 B. 아구스, 『질병의 종말-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 김영설 역, 청림Life, 2012.
- 마크 해리슨,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영석 역, 푸른역사, 2020.
-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claim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김영사, 2016.
-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Illness as Metaphors)』, 이재원 역, 이후, 2002.
-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권복규 역, 사이언스북스, 2001.
- 엘프리드 W 크로비스,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김기윤 역, 지식의 숲, 2006.
-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Plagues and Peoples』, 김우영 역, 이산, 2005.
- 유세프 쿠르바즈 에미뉴엘 토트, 『문명의 충돌이나 문명의 화해나』, 이양호 역, 친디루스연구소, 2008.
- 타다 토미오, 『면역의 의미론』, 황상익 역, 한울(한울아카데미), 2010.
- 폴 W. 이월드, 『전염성 질병의 진화』, 이성호역, 아카넷, 2014.
- 헨리 지저리스트,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이희원 역, 몸과마음, 2005.
- \_\_\_\_\_, 『문명과 질병』, 황상익 역, 한길사, 2008.

A Study about the Mythology and Religionism of Civilization  
Clash and Exchange Imagination in Korean Modern Disease:  
Focusing on the Semiotic Meaning of the Smallpox in Yi Hae  
Jo <GuMaGum>

Pyo, Jung-Ok

The eradication processes of smallpox, that is, Mama, were deeply related with Mythology and Religionism, in which the aspect of clash with modern culture such as science and law was observed.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ree subjects to investigate correlations between disease and civilization. First, this study tries to verify that Jennerization was enforced as the sign for modern mythification. The concept of Modernism with science has the signified to control the disease. As this Jennerization has been the only remedy to exterminate the smallpox among diseases, it can imply more influence on human civilization than other vaccinations for disease. Second, Shamanism and Confusionism to cope with smallpox have metaphorical properties. Shamanism was described as being a wrong set of values that was unscientific and superstitious. On the contrary, Confusionism was harmonized naturally in the semantic network of science and law, and absorbed aggressively into the positive meaning of right and cure to become politicised. Third, Various Gut in Shamanism encompassing Smallpox(Mama) was narrated as fraud and lie, moved away from positive tradition, and eventually faded away in demythification. Meanwhile, science and law as the name of modernism were considered to make a road to new mythification. The infectious disease in Korean modern culture will be the door that revivifies the problems of human and modernism. Diverging from an absolute viewpoint of ruling diseases, this study takes note of the new geography of modern culture, where an occurrence of disease resulted in civilization clash and



newly re-mythified was the meaning of Religionism.

Keywords : Disease, Civilization Clash, Exchange Imagination, Mythology, Religionism,  
Smallpox, Shamanism, Confusionism, Law

투고일: 2020. 11. 25./ 심사일: 2020. 12. 12./ 심사완료일: 2020. 12. 12.



## 황순원 단편소설 「학」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홍정표\*

### 【 차 례 】

- I. 머리말
- II. 현상학적 접근
- III. 긴장 구조적 접근
- IV. 화용론적 접근
- V. 맺음말

### 국문초록

프랑스 기호학자 자크 폰타닐이 1999년 발표한 담화 기호학은 완료된 형식화 이전의 생성 중인 의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기호학은 활동 중인 담화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며, 문학적 담화를 개인적 발화행위로 접근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 「학」은 소설 기법이 탁월하고 작가의 휴머니즘이 밀도 있게 그려져 있어 황순원 소설의 한 축도라고도 일컬어진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현상학적, 긴장 구조적, 화용론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하려고 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 의식의 구조, 의식의 본질적인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회상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즉, 주체 성삼의 의식에 분리작용과 연동작용이 연달아 일어나며, 이러한 작용을 여러 번 거친 끝에 주체는 유년 시절 단짝 친구였던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 주어 자유를 되찾게 해준다. 긴장 구조적 접근에서는 지각의 두 차원인 강도와 범위를 알아본다. 이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긴장 도식은 긴장적이고 점차적인 차이를 도식화하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주체는 대상 덕재를 이끌고 마을→동구밖→고갯길→고갯마루→들판으로 이동하는데, 공간의 변화에 따라 처음에 고조되었던 긴장이 차

---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강사 역임, [cafecreme@hanmail.net](mailto:cafecreme@hanmail.net)

춤 이완되는 반면에 처음에 최소였던 범위는 점점 더 증가하는 치밀한 구조를 볼 수 있다. 화용론적 접근에서는 한 화자의 발화체 속에 여러 발화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현상인 다성성(polyphonie)과, 암시(sous-entendu)를 텍스트에서 분석한다. 다성성은 텍스트 해석의 깊이를 발화체 이면의 발화행위에까지 확대하여 해석의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암시는 설명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발화행위 상황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동심회복에 의해 극복하고자 한 작품 「학」의 내재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담화 기호학 이론의 정립을 시도해 본다.

열쇠어 : 강도, 긴장도식, 다성성, 범위, 분리작용, 상승도식, 암시, 연동작용, 하강도식, 화자

## I. 머리말

지난 세기 초 구조주의의 시조 소쉬르(F. de Saussure)는 현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소쉬르 이론을 바탕으로 그레마스(A. J. Greimas)는 기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 이 학문은 구조주의 기호학(이하 구조 기호학으로 약칭)인 서사 기호학과 정념 기호학을 거쳐, 1999년 폰타닐(J. Fontanille)이 발표한 담화 기호학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았다.

구조 기호학은 완료되고 고정된 의미집합의 기호학인 반면, 담화 기호학은 완료되고 고정된 의미 이전의 단계, 즉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특성을 지닌 불안정하고 생성 중인 의미집합의 기호학이다. 전자는 작품 내 불변의 규칙성을 추구하는 문학적 랑그에 대한 연구인 데 반해, 후자는 문학적 파롤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발화행위(énonciation)의 창시자 벤베니스트(E. Benveniste)는 발화행위를 구어적 발화 행위와 문어적 발화행위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어적 발화행위란 작가가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고, 그의 글쓰

기 내부에서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sup>1)</sup> 이에 따라 파롤 연구를 중시한 담화 기호학에서는 발화가 다시 연구의 중심이 되어 발화되고 있는 담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문학적 담화가 문어적 발화행위로 접근하게 된다.

인간은 말로 하는 언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담화 기호학의 분석 단위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 기호학은 의미의 출현을 찾아내고 이를 산출하는 조작들 즉, 인간 경험의 의미를 복원하고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 기호학이 의미의 최소 단위를 관찰하고 재단하는 것과는 달리, 담화 기호학은 최소 단위의 문제를 담화를 생산하는 유의미적 집합과 행위의 문제로 대체하고, 텍스트들과 의미를 나타내는 집합들 그리고 살아 있는 담화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리가 선택한 텍스트는 황순원 소설의 한 축도라고도 일컬어지는 단편소설 「학」<sup>2)</sup>이다. 황순원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 인간 신뢰의 태도를 견지하는 희망의 문학을 추구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의 작품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은 소설 기법이 탁

1)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p.88 참고.

2) 「학」, 『황순원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2014.

이 작품의 배경은 6·25전쟁 당시 남북한이 대치하던 삼팔 접경의 북쪽 마을이며, 황폐해진 마을에는 공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주인공 성삼(치안대원)이 유년 시절 단짝친구였던 덕재(농민동맹 부위원장)가 치안대에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 호송을 자청하여 연행자와 피연행자의 관계로 만난다. 성삼은 호송 도중에 덕재와의 옛 추억,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일,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 들켜 혼이 난 일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느낀다. 그는 덕재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아무 이념도 없이 빈 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이 되었고, 예전의 친구에서 변함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성삼은 삼팔선 완충 지대에 이르러 옛날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학 떼를 발견한다. 어린 시절 같이 학을 잡던 일이 생각난 성삼은 학사냥이나 한 번 하고 가자며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준다. 덕재는 처음에 이제 성삼이가 자신을 쏘아 죽이려나 보다고 생각하고 주춤했으나, 어서 학이나 몰아오라고 재촉하는 성삼의 말을 듣는다. 이 말에 덕재는 비로소 자신을 몰래 놓아 주려는 성삼의 의도를 눈치 채고 잡풀 사이로 도망친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가을 하늘을 날고 있다.

월하고 이념적 갈등이 우정이나 순수한 인간애를 파괴할 수 없다는 작가의 휴머니즘이 밀도 있게 그려져 있어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냉전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통로를 열어 주었고”<sup>3)</sup>, 이념의 장벽이 초래한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동심회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황순원의 문학 세계는 정신분석학적, 분석심리학적, 전통시학적 등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었다. 본고에서는 「학」에 대해 담화 기호학적으로 탐구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연구에 있어서는 현상학적, 긴장 구조적, 화용론적 접근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 세 관점은 모두 주체 성삼의 의식 혹은 그 변화를 다양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II.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은 인간 의식의 구조, 의식의 본질적인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는데, 의미가 지각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감각적 파악을 의미 세계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회상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즉, 주체 성삼의 의식에 분리작용(débrayage)과 연동작용(embrayage)이 연달아 일어나며, 이러한 작용을 몇 번 거친 끝에 주체는 유년 시절 단짝 친구였던 대상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 주어 자유를 되찾게 해준다. 분리작용은 과거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이접의 방향성을 띠며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 탐색되고 다른 행위소가 등장한다. 이렇게 개방된 새로운 담화 세계는 잠재적으로 많은 공간, 시간, 행위자를 포함한다. 반면에 분리

3) 정수현, 『황순원 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177쪽.

작용의 역작용인 연동작용은 연접의 방향성을 띠는데, 원래 위치로의 복귀를 지시하며 담화 현동태를 새로이 집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주체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향에 대한 추억은 대상에 관한 것이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맛은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 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깃눔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나.(52쪽)<sup>5)</sup>

인용문에서 주체 성삼은 담배를 피우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덕재와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기억이 현재로 의미화하여 의식의 표면으로 솟아오른다. 즉, 담화 현동태의 최초 활동인 위치 결정이 개시되는데, 신체의 위치 결정은 두 기호학적 세계(자연 세계와 언어 세계)의 감각적인 경계를 정한다. 여기서 신체는 자연 세계인 외수용적 세계와 언어 세계인 내수용적 세계에 동시에 속하는 자기수용적 세계라 지칭된다.

그 다음 주체는 담화 현동태의 두 번째 기본 활동인 시각적 분리작용으로 옛 일을 기억한다. 무의식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담배’는 외부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면>이며, 의식의 심저에 남아 있는 ‘어른들 몰래 담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기억은 내부 세계를 가리키는 <내용면>인데, 이 두 면은 자기수용적 세계인 신체에 의해 결합된다. 또한 표현면과 내용면은 지향과 포착으로 굴절하는데, 표현면인 ‘담배’는 <포착>된 것이고, 내용면인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과거의 기억은 <지향>된 것이다.

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흑부리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별안간 흑부리할아버지의 고함소

4)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p.97~99 참고.

5) 황순원, 앞의 책, 괄호 안의 숫자는 책의 쪽수.

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 (52쪽)

의식 작용은 어느 한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을 달리 하는 다른 의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옮겨 간다. 주체의 의식 흐름에는 앞의 인용문에서 대상과 함께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일’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연이어 대상과 ‘밤서리를 하던 일’이 의식에 되살아난다. 이때 이렇게 어떤 기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여기와 저기, 과거와 현재가 구분 없이 서로 겹쳐 나타난다. 훗설은 이처럼 과거에 대한 현재의 의식 작용을 <과거지향>이라 부르는데, 이 과거지향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은 주체 자신의 순수한 경험을 담고 있으며, 모든 판단이나 가치 평가 작용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이다.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소리’ 때문에 주체가 나무에서 미끄러져 엉덩이가 밤송이에 찔려 대상이 밤가시를 빼주던 일과, 도망쳐 밤을 따지 못한 주체에게 나중에 대상이 ‘밤을 한 줌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어 주던 일’과 같은 원초적 경험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주체의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작용이 일어난다. 이 일은 대상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던 주체에게 그의 심성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가치 평가 작용을 유발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된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주체는 저쪽 별 한가운데 학 떼를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학이 떼지어 있는 광경이 주체의 의식 세계에 등장하면서 지난 날 주체와 대상이 올라미를 놓아 학 한 마리를 잡은 사건이 떠오른다.

저쪽 별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쫓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떼였다. (...)



지난 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두어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라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 학이었다. (...)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 그 길로 둘이는 별로 내달렸다. (...) 둘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투쳤다. (...)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리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땔 줄을 몰랐다. .... (55쪽)

현재의 감각에 대한 지각은 과거의 무의식적 기억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연히 감각에 의해 촉발된 무의식적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명료한 의식의 표층에 과거의 일이 갑자기 떠오른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체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해 있던 ‘학’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현재 저쪽 별 한가운데에 있는 ‘학 떼’를 보자 의식의 표면에 솟아오른다. 이 때 담화 현동태가 첫 번째 활동인 위치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주체의 의식은 시각적 분리작용으로 대상과 단정학 한 마리를 잡아 놓고 갖고 놀던 일로 흐름이 이어진다. ‘학 떼’는 외부세계를 지칭하는 표현면이고, ‘올가미에 잡힌 단정학 한 마리’는 내부세계를 지칭하는 내용면인데, 두 면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각하는 신체이다. 이렇게 기억의 창조적 힘은 시각에 의해 촉발된 무의식적 기억으로 주체를 잃어버린 과거와 대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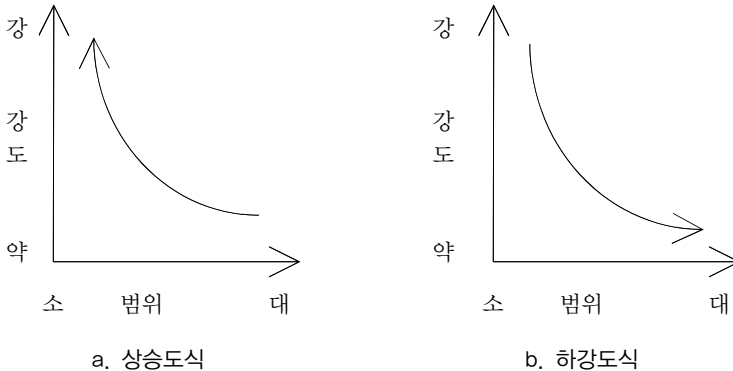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조로 생각하는 학은 텍스트의 절정 부분에 나타나는데, 우정 회복의 매체가 되어 손상된 우정을 치유하게 해준다.

### Ⅲ. 긴장 구조적 접근

담화 기호학에서는 긴장 구조가 현존과 관련이 있는데, 현존이란 지각의 첫 번째 기호학적 분절로 담화 현동태의 최소 특성을 말한다. 이것은 지각의 두 차원인 강도(intensité)와 범위(étendue)의 결합으로 획득되며,

이 결합이 현존의 정도를 결정한다. 신체가 현존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존은 주체의 지각을 강하거나 약하게 느끼도록 하는 강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범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도와 범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긴장도식은 긴장적이고 점차적인 차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체는 강도와 범위 두 영역을 공유하는데, 강도와 범위가 똑같이 상승하면 순행상관관계이며, 서로 반대로 상승하면 역행상관관계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례관계, 후자의 경우는 반비례관계가 된다. 역행상관관계에는 상승도식과 하강도식이 있으며,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텍스트는 현재의 상황에 몇 가지 과거의 기억을 삽입시키는 역순행적 구조<sup>7)</sup>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주체와 대상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야기의 발단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공간 이동에 따라 긴장의 강도가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이완되며, 범위는 좁은 상태에서 넓은 상태로 이동하는데, 그 변화가 매우 뚜렷하다.

6) L. Hébert, *Dispositifs pour l'analyse des textes et des images*, PULIM, 2009, p.70 참고.

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 상황을 제시한 다음 분리작용으로 회상 내용을 제시하고 다시 연동작용으로 현재 이후의 사건을 제시하는 구조.

주체 성삼은 대상 덕재를 이끌고 마을 → 동구 밖 → 고갯길 → 고갯마루 → 들판으로 이동하는데, 공간의 변화에 따라 처음에 고조되었던 긴장이 차츰 이완되는 반면에 처음에 최소였던 범위(정보의 양)는 점점 더 증가하는 치밀한 구조를 볼 수 있다.

이야기의 발단에서 주체는 자신이 호송할 포승줄에 묶인 사람을 보고 그가 어린 시절 단짝친구 덕재임을 알아본 순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반면에 대상 덕재에 대한 정보의 양은 극히 적어 <범위>는 최소이다. (마을)

주체는 자기가 피우던 담배가 매개체가 되어 대상과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일이 떠오르고, 연이어 밤서리를 하다가 들켜 도망친 후 대상이 자신의 밤을 한 줌 꺼내어 밤을 못 탄 주체의 호주머니에 넣어 준 기억이 의식의 표면에 솟아오른다. 이 기억은 대상의 심성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둘 사이의 우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긴장>의 강도는 마을에서보다 약간 이완된 반면, <범위>는 약간 증가하였다. (동구 밖)

고갯길에 다다르자 주체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상과 늘 풀 베러 다녔던 일이 눈앞에 떠오르며,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뺏이나 죽었냐?”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대상이 이 같은 반문으로 자신의 결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자, 주체는 가슴 한복판이 환해지며 막혔던 무엇이 풀려내리는 것을 느낀다.

“장간 안 들었냐?”

“그래 애가 뺏이나 되냐?”

이러한 질문은 사적인 것으로 주체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어 <긴장>의

강도가 동구 밖에서보다 더 이완되었고, 대상에 대한 정보의 양인 <범위>는 더 증가하였다. (고갯길)

고갯마루에서 대상은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농사를 버리고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려 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피난 못 간 사실을 이야기한다. 주체는 농삿일 때문에 피난을 끝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와 가족을 두고 혼자 피난 간 사실을 기억하며 대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대상에 대한 증오심은 점차 지난 날의 우정으로 바뀌면서 두 사람은 고갯마루를 넘는다. 주체는 <긴장>의 강도가 고갯길에서보다 더 이완되었고 <범위>는 더 늘었다. (고갯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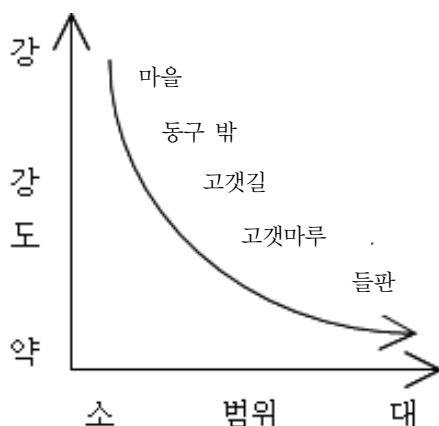
저쪽 벌 한가운데 학 떼를 본 주체는 어린 시절에 잡아 놓은 학을 살리기 위해 대상과 의기투합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주체는 학 사냥이나 한 번 하고 가자며 대상의 포승줄을 풀어 준다. 어서 학을 몰아오라는 주체의 재촉에 대상은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사이로 도망친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가을 하늘에 유유히 날고 있다. 이로써 주체의 <긴장>은 완전히 이완되고, <범위>는 최고로 증가한다. (들판)

텍스트의 공간 이동과 사건 전개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공간	사건	긴장	범위
마을	주체(치안대원)와 포승줄에 묶인 대상(농민동맹 부위원장)의 외적 갈등	강	소
동구 밖	주체가 대상과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일, 밤서리를 하던 일)이 우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됨	↓	↓
고갯길	주체는 대상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여 갈등이 많이 해소됨	↓	↓
고갯마루	사회적 책임과 우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체의 내적 갈등	약	대
들판	유년 시절 학사냥의 기억으로 주체는 대상을 풀어줌		

앞의 도표를 살펴볼 때, 고조된 긴장과 약한 범위에서부터 이완된 긴장과 확대된 범위로의 변화는 <마을>과 같이 인적이 있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공간에서부터 <동구 밖~들판>처럼 인적이 없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의 이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주체가 긴장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도표를 긴장도식에 표현하면, 긴장과 범위가 반비례하는 (긴장의 강도가 강할수록 범위는 적거나 혹은 긴장의 강도가 약할수록 범위는 큰) 하강 도식이 되며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는 텍스트에서 긴장 도식의 강도와 범위의 변화에 따라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의식이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IV. 화용론적 접근

### 1. 다성성

구조주의는 사람들이 시시각각 다르게 표출하는 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 객관성이 담화의 함축된 것과 암시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sup>8)</sup>, 주관성에 대한 연구인 화용론을 배척하였다. 반면에 파롤 연구를 중시한 담화 기호학에서는 화용론이 다시 연구되어 담화의 함축되고 암시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소설 텍스트의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발화체(*énoncé*)인 이야기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화행위<sup>9)</sup>의 발화내적(*illocutoire*)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화용론적 접근은 텍스트에 표출된 발화체와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화행위를 구별하여 다성성(*polyphonie*) 현상(한 화자의 발화체 속에 여러 발화자의 목소리 중첩이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성성 현상을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텍스트 해석의 깊이를 발화체 이면의 발화행위에까지 확대하여 해석의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즉, 발화체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서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화자의 감춰진 의도를 밝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뒤크로(o. Ducrot)는 발화 주체(*sujet parlant*)를 화자(*locuteur*)와 발화자(*énonciateur*)로 구분하고, 실제로 말을 하는 자를 화자로, 이면에서 발화내적행위로 발화행위를 하는 자를 발화자로 하였다. 화자와 발화자의 내용이 다를 때 다성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상대방으로서는 발화가 향해진 대화자(*allocutaire*)로, 발화자의 상대방으로서는

---

8) J. Fontanille, *Op. cit.*, p.12.

9) 발화체와 발화행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전자는 실현된 텍스트를 말하며, 후자는 텍스트의 언어적 생산 행위를 가리킨다. 발화체는 모두 발화행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자는 불연속적 단위로 분절될 수 있지만, 후자는 연속성과 주관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발화내적행위의 대상인 수신자(destinataire)로 지칭하였다.<sup>10)</sup>

다성성 현상의 예를 「학」의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주체는 체포된 대상을 청단까지 호송해 가는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올가밀 만들어놀게 너 학을 몰아 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쫓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55~6쪽)

앞에서 살펴본 대로 텍스트에서 주체의 어린 시절 회상 부분에 학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주체와 대상은 학을 잡아 놓고 있었다. 두 소년은 사냥꾼이 온다는 말에 학을 풀어 주어 자유롭게 된 학은 곧 <자유>를 상징하며, 그들의 따뜻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체가 학사냥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용서와 화해에 의 의지를 상징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성성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말을 하는 화자 주체는 대화자 대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쫓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하지만 이면에서 발화내적행위<sup>11)</sup>를 하는 발화자 주체는

10) 황석자, 『소설의 다성성 현상, 함의와 해석』, 한신문화사, 1989, 16쪽 참고.

11) 오스틴은 세 종류의 행위 즉, 발화행위, 발화내적행위, 발화수행적행위를 구별하였다.(J. L. Austin, *Quand dire, c'est faire*(traduction de Gilles Lane), Seuil, 1970, p.115)

“어서 빨리 도망가라, 어서”

라고 수신자 대상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발화주체인 화자와 발화자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고 상이한 다성성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로써 텍스트 해독에 있어서 발화행위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며, 화용론적 접근이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 중첩의 효과는 발화체의 의미와 해석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발화체와 발화행위 층위의 분석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더 깊이 있는 입체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고, 텍스트 해석의 폭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통사적으로나 의미 배합에 있어서 애매하고 불투명한 발화체일수록 발화행위 분석은 발화체 분석과 병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2. 암시(sous-entendu)

이것은 발화행위의 상황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추론하게 하는 것인데, “발화체에는 나타나지 않고 독자(혹은 청자)가 이 발화체에 대해 사후에 생각할 때만 나타난다.”<sup>12)</sup> 더불어 독자의 인지에 따라 추론되며 상황에 따라 더 첨가된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작가는 텍스트에서 작중인물의 성격을 해설하지 않고, 압축적인 서술과 대화를 통해 <암시>하는 수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설명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풍부한 <암시>를 전달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

이 중에서 발화내적행위는 발화자의 의도를 수신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추출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O. Ducrot, *Le dire et le dit*, Editions de Minuit, 1984, p.39)

12) O. Ducrot, *Op. cit.*, p.21.



어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51쪽)

위의 인용문은 텍스트의 첫 부분인데, 노인과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겁에 질린 얼굴들’을 통해 전쟁이 야기한 인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을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이 포승에 뽕뽕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51~2쪽)

인용문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는 전쟁으로 인해 마을에 젊은이가 없으며 전쟁이 초래한 삶의 비정상성을 <암시>하고 있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맛은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52쪽)

‘성삼이가 연거푸 담배만 피우는 것’은 유년 시절 친구인 덕재를 연행해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괴로움의 <암시>이다. 담배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애증의 심리를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주체는 대상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지만, 밑바탕에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정이 깔려 있다. 적대감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체는 담배를 맛도 모르고 피우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성삼이는 새로 불을 땡겨문 담배를 내던졌다.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는 붙여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 (52쪽)

주체가 ‘새로 불을 땡겨문 담배를 내던지는 것’은 담배를 나누어 피울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 몰래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단짝친구 대상과 지금은 담배를 같이 피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주체의 착잡하고 초조한 심정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뺏이나 죽였냐?” (…)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내리는 것만 같은. (53쪽)

주체는 대상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그동안 사람을 뺏이나 죽였는지 물어보지만, 이것은 대상에 대해 억지로 적대감을 갖고자 애쓰는 <암시>로 보인다.

대상은 주체가 사람을 죽여봤냐고 반문함으로써, 사람을 죽이지 않은 억울한 분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주체는 대상의 이 같은 대답으로 가슴이 환해지고 막혔던 것이 풀려내리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언어적 고백 대신에 신체적 고백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언어적 발화가 없더라도 신체적 표현은 하나의 발화행위이고 느끼고 반응하는 신체에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신체적 표현은 대상이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이 아니고,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안도에 대한 <암시>의 표현이다.

“장간 안 들었냐?” (…)

그래 애가 뗏이나 되냐?” (53~4쪽)

이제 주체는 대상에게 사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심리적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텍스트는 여러 대목에서 이념적 적대관계를 벗어나 우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구 했었어. (….) 그랬드니 아버지가 안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살 내버려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 그래 나만 밍구 농사일 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루 감겨드려야겠구, 사실 우리 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간땀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 …” (54쪽)

인용문은 대상이 피난가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데, 그는 가정과 농사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박한 농민일 뿐이고, 아무 이념도 없고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별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참 오늘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54쪽)

대상은 아버지와 농사일을 위해 남았으나 주체는 가족을 두고 혼자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을 외면하고 걷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떳떳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가을 햇별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는 것은 주체의 수치심에 대한 <암시>라 할 수 있다. 주체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과 마찬가지로 주체도 천생 농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소위 삼팔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학들은 인위적인 경계선에 불과한 삼팔선에서 전쟁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55쪽)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이란 6·25전쟁 동안을 <암시>하는 표현이며, 그 동안에도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56쪽)

소설의 마지막 문장인 이 대목은 대상이 학처럼 자유롭게 될 것을 학의 비상을 통해 <암시>하고 있으며, 두 사람 간의 이념적 대립이 소멸하고 지난날의 우정을 회복하였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열린 결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학이 상징하는 것은 백의민족인 우리 민족이다. 삼팔선 완충지대에서 옛날 그 모습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학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 민족도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벗어나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황순원의 「학」을 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현상학적, 긴장 구조적, 화용론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소설 텍스트 「학」은 사건의 전개보다는 주체의 의식 흐름, 외면과 내면의 갈등, 긴장의 변화, 발화체에 내포되어 있는 주체의 감춰진 의도, 설명을 배제한 풍부한 암시와 함축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작품이다. 이러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파물의 연구인 담화 기호학의 개념 장치와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의식의 본질적인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텍스트는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회상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체는 연동작용과 분리작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적대관계가 우호관계로 변화되어 대상에게 자유를 되찾게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연동작용과 분리작용은 주체의 의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긴장 구조적 접근에서 볼 때, 텍스트는 이야기의 발단으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공간 이동에 따라 긴장과 범위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며, 이를 하강도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긴장도식은 기존에 포착하지 못했던 비분절적인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화용론적 접근에서는 텍스트에서 다성성과 암시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작가의 창작적 의도를 조명한 것은 텍스트 해석의 깊이를 더해 주었고,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화용론적 접근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접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교한 분석 도구와 개념 장치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동심회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작품 「학」의 내재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담화 기호학 이론의 정립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05.
- 정수현, 『황순원 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최용호, 「긴장도식과 기호모델」, 『프랑스학 연구』 제55집, 프랑스학회, 2011, 355~372쪽.
- 홍정표,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담화 기호학의 긴장구조 -선우휘의 「불꽃」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52집, 한국기호학회, 2017. 09, 191~216.
- \_\_\_\_\_, 「동위성 이론을 통해 본 김수영의 시작품(「풀」, 「여름아침」) 분석」, 『기호학 연구』 제63집, 한국기호학회, 2020. 06, 243~272.
- 항석자, 『소설의 다음성 현상, 함의와 해석』, 한신문화사, 1989.
- 황순원, 「학」, 『황순원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2014.
- Austin, J. L., *Quand dire, c'est faire*, Seuil, 1970. (Traduction de Gilles Lane)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김현권 역, 한울문화출판, 1988)
-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I』, 황경자 역, 민음사, 1992)
- Ducrot. O., *Le dire et le dit*, Editions de minuit, 1984.
- Fontanille, J., *Les espaces subjectif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l'observateur*, Hachette, 1989.
- \_\_\_\_\_, *Sémiotique du visible*, P.U.F., 1995.
- \_\_\_\_\_, *Sémiotique et littérature*, 1998. (『기호학과 문학』, 김치수·장인봉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oma et Séma, figures du corps*, Maisonneuve & Larose.
- \_\_\_\_\_, "Sémiotique des passions",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 \_\_\_\_\_,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Corps et sens*, PUF, 2011.
- Fontanille, J., & Zilberberg, C.,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 Fontanille, J., & Zinna, A., *Les objets au quotidien*, PULIM, 2005.
- Géninasca, J., *La parole littéraire*, Paris, PHF, 1999.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Greimas, A.-J. &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Greimas, A. -J. &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Paris, Seuil, 1991.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 · 최용호 · 신정아 역, 강, 2014)
- Hébert, L., *Dispositifs pour l'analyse des textes et des images*, PULIM, 2009.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 P.U.F., 1979. (『기호학으로의 초대』, 홍정표 역, 어문학사, 1997)
- \_\_\_\_\_, *Narratologie -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 P.U.F., 1983. (『서사, 일반 기호학』, 홍정표 역, 문학과지성사, 2003)
- Hjelmslev, L.,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Editions de Minuit, 1971.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 Discourse semiotics Analysis on Hwang Sun-Won's Short Novel "*Hak(crane)*"

Hong, Jeong-Pyo

The Semiotics of Discourse, published in 1999 by French semiologist Jacques Fontanille, is a study of the signification being generated before the completed formalization. This semiotics seeks to establish the theory of active discourses, and approaches literary discourses as personal speech acts. The study subject of this paper, 「Hak(crane)」 is said to be one of the epitomes of Hwang Soon-Won's novels because its novel techniques are excellent and it depicts the author's humanism in-depth. We intend to study this text focusing on phenomenological, tension structural, and pragmatic approaches.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s intended to clarify the structure of human consciousness and the essential mechanism of consciousness. The text is progressing as current events and recollections of the past cross each other. That is, dissociations and interlocking actions occur in succession in the consciousness of Seongsam, the subject, and after passing through these actions several times, the subject unties the rope of Deokjae, his best friend in childhood, so that he regains freedom. The tension structural approach deals with the combination of intensity and range, which are two dimensions of perception, and the schema tension formed by this combination is a schematization of the tensional and gradual difference. In the text, the subject leads Deokjae and moves from the village to the outskirts of a village followed by the hill, the peak of the hill, and the field. Here, we can see an elaborate structure in which as the space changes, the tension, which was high at first, gradually relaxes, while the range, which was minimum at first, gradually increases. In the pragmatic approach, polyphony, which is the phenomenon of hearing a mixture of voices of multiple speakers in the speech flow of one speaker, and suggestion are



analyzed in the text. The polyphony extends the depth of text interpretation to the speech acts behind the speech flow so that the mechanism of interpretation can be grasped, and the suggestion is excluding explanations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 reader infers through the situation of speech acts. Through the study as such, we intend to attempt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concrete discourse semiotic theory by discovering the hidden meaning of the work 「Hak」, which was intended to overcome the destruction and loss of humanity through the recovery of the innocence of childhood.

Keywords : Intensity, Schema tension, Polyphony, Range, Dissociation, Ascending schema, Suggestion, Interlocking, Descending schema, Narrator

투고일: 2020. 11. 25./ 심사일: 2020. 12. 09./ 심사완료일: 2020. 12. 10.



# 한국기호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기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기호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지 발간
-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 4) 국제 기호학회와의 교류
- 5) 연구 문헌 수집
-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 제3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기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기호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 4)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 제4장 총회

제6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 2) 회칙 개정
- 3) 예산·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8조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5장 임원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0명 이내
- 4)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 중에서 총무·섭외·편집·학술·재무·정보이사를 둔다.

제15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수발 및 조직·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섭외이사는 언론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대내외 교류 관계는 물론 학술발표자의 섭외와 학회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진흥재단 지원신청 업무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정보이사는 본 회의 웹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1조 국제이사는 외국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제22조 연구이사는 각종 학술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기호학회 학술총서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23조 교육이사는 기호학 관련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제24조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사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심의·의결·집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3) 연구발표회(연례발표회·월례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기호학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 5) 외국과의 학술 교류
- 6)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부회장·총무이사·섭외이사·편집이사로 구성된다.

## 제7장 학회지

제29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기호학 연구』라 칭한다.

제30조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묶어 『기호학 연구』를 발간한다.

## 제8장 편집위원회

제31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7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4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제35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 제9장 연구 분과

제37조 본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 1) 문학 기호학 8) 종교 기호학
- 2) 언어 기호학 9) 철학 기호학
- 3) 연극 기호학 10) 신화 기호학
- 4) 음악 기호학 11) 문화 기호학
- 5) 시각 기호학 12) 커뮤니케이션 기호학
- 6) 건축 기호학 13) 영화기호학
- 7) 광고 기호학 14) 기타

제38조 각 분과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그의 주도 하에 주례발표회·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한다.

##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조성비

4) 사업 수익금

제40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 의결·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장 부칙

제4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 1) 본 회칙은 2001년 1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 한국기호학회『기호학 연구』편집위원회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기호학 연구』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기호학 연구』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진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제9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기호학 연구』를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편집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제12조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에 정함)

## 3. 논문 심사 절차와 기준

제13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6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는가
- 2) 논문 제목은 내용과 부합하는가
- 3) 초록은 적절한가
- 4) 연구 목적과 방법,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가
- 5) 연구 자료 및 인용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 6) 논문은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7) 내용 분석이나 해석에 응용된 방법론이 참신하거나 타당성이 있는가
- 8) 연구 내용은 독창성이 있는가
- 9) 연구 결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10)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제17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학회의 소정 양식(별첨 1)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 2)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
-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 4) 게재 불가: 59점 이하

제18조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수정 논문에 대한 교정지 제출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사항 확인)를 거쳐 당호의 『기호학 연구』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 다음호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편집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대로 진행 후 다시 투고한다. 끝으로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 4. 편집회의

제20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1조 편집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기호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제23조
- 1)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6)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7)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9) 본 규정은 2019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투고 규정

## 1. 투고 자격

- 1) 투고는 한국기호학회 회원에 한한다.
- 2) 한국기호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필자는 투고 가능하다. 단, 학회원의 자격인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혹은 전문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 3)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기호학과 관련된 분야로 이전에 다른 학술지, 저서 등에 발표된 적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 2. 게재 조건

- 1)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 2) 다른 논문집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재수록은 허용치 않는다.
- 3) 2회 이상 연속 게재는 불허한다(2회까지는 허용). 단,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투고를 의뢰했거나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3. 원고 규격

다음 사항들은 명시된 통일안에 따라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1) 편집구성

- ① 제목, 필자명, 국문초록(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주제어), 기타 외국어초록(기타 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구성한다.
- ②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150매를 넘지 못한다. 150매를 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용지 크기: A4(210×297)
- ④ 용지 여백: 위 20, 머리말 15, 왼쪽오른쪽 20, 제본 0, 아래쪽 15, 꼬리말 15
- ⑤ 글자 모양: 바탕체, 장평 100, 자간 0
- ⑥ 글자 크기: 제목 15, 장 제목 12, 절 제목 11, 본문 10, 각주인용 9
- ⑦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첫줄 보통, 본문 줄 간격 160, 각주인용 줄 간격 130, 문단 위아래 0
- ⑧ 주석은 각주로, K. L. Turabian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이도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기호학 연구』 25, 한국기호학회, 2009, 69쪽.
  - 이어령,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2007, 109~110쪽.
  - 움베르트 에코,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23~24쪽.
  -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153.
  - Maire-Laure Ryan, “Possible Worlds and Accessibility Relations: A Semantic Typology of Fiction”, *Poetics Today* 12:3, 1991, p.555.
  -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7~12.

- 바로 앞 주와 동일한 논저일 경우, 같은 책(저서일 경우) 혹은 같은 글(논문일 경우), 외국 논저인 경우 Ibid.로 쓴다.
  - 이미 인용한 논저 사이에 다른 논저가 있을 경우, 앞의 책(저서), 앞의 글(논문), 외국 논저인 경우 Op. cit.로 쓴다.
- ⑨ 참고문헌에는 국내논저, 국외논저, 기타(각종 자료나 웹사이트 출처) 순으로 한다.
- ⑩ 참고문헌에는 간행물에 실린 논문일 경우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밝힌다.
- ⑪ 논문의 본문에서 소제목에 붙이는 번호 표시는 I, 1, 1), (1)의 순서로 한다.
- ⑫ 국문초록과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문초록은 글자 수(띄어쓰기 포함) 800~1,500자,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은 2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 ⑬ 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필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기타 외국어 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초록 검수 및 분량은 영문초록 작성 방식을 따른다.
- ⑭ 논문의 첫 번째 각주에는 투고자의 역할(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이름, 소속(학교 및 학과, 단 학교 소속이 아닐 경우 단체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박사 후 연구원 구체적인 직위 등을 기록한다. 만약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록한다), 이메일을 기록한다.

## 2) 기타

- ① 논문 투고는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에 마감하며, 학회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간행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제1저자와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통상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일 앞에 명기한 저자가 제1저자로 간주됨)
- ③ 기타 모든 체제는 최근호에 준하고, 기타 편집상의 사안은 편집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문의한다.
- ④ 게재가 확정되면 반드시 학회 차원에서 영문 초록에 대해 원어민 감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추가 편집비가 부여될 수 있다.
- ⑤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려 혹은 다음호로 게재가 연기 될 수 있다.

#### 4. 원고제출

- 1) 논문 게재 희망자는 투고 마감일 전까지 제출한다.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스(윈도용)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후 메일로 송부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년도 및 직전년도 학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투고와 동시에 다음 계좌로 심사비 6만원을 송금한다.

송금계좌: 황인순 (하나은행 215-910533-83307)

- 4) 마감일자: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
- 5) 발일행자: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6) 제출처: <https://semiosis.jams.or.kr>



편집이사 : 윤인선 (가톨릭대) storyforwish@gmail.com

편집위원회 : koreasemiotic@hanmail.net

## 한국기호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기호학회는 우리의 삶과 문화, 우리가 만든 예술 텍스트들은 물론 사회현상과 자연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분석하여 그 질서와 구조를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소통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호학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호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기호학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기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윤리 및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들이 연구 논문의 작성과 학술지의 편집에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전직 회장이 상임위원은 전·현직 총무이사과 편집이사가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구성원은 직책 임기를 따르고, 임시 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제13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4)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 제1절 저자 준수 연구윤리규정

####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론, 모델, 연구 결과 등을 원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그 중 일부 문장이나 단어를 변조하여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 1)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
- 2)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의 역할은 실제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역할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연구와 무관한 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수행한 역할과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 3) 저자의 역할과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 4) 연구 및 논문 기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기여가 없거나 낮은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나 서문 등에서 내용을 밝힌다.

##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나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 제2절 편집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 제3절 심사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

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기호학회 임원

고 문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명예회장 : 김치수(이화여대), 김현자(이화여대), 전성기(고려대),  
신현숙(덕성여대), 송효섭(서강대), 박인철(연세대),  
송기정(이화여대), 김성도(고려대), 박여성(제주대),  
이도흙 (한양대)

회 장 : 오장근(목포대)

부 회 장 : 홍정표(한국외대), 이윤희(한국외대)

감 사 : 최용호(한국외대)

편집위원장 : 송치만(건국대)

총무이사 : 전형연(건국대)

### 분과 상임이사

섭외이사 : 오세정(충북대)

편집이사 : 윤인선(가톨릭대)

학술이사 : 이수진(인하대)

재무이사 : 황인순(인천대)

정보이사 : 태지호(안동대)

국제이사 : 김수환(한국외대)

연구이사 : 심지영(방통대)

교육이사 : 김민형(한국외대)

비상임 이사 : 조운경(이화여대), 이선화(영남대), 박수진(전남대),  
김상원(인하대)

편집위원 : 고경란(한국외대), 김민형(한국외대), 김남시(이화여대),  
김수환(한국외대), 김운찬(대가대), 박여성(제주대),  
백승주(전남대), 오세정(충북대), 윤인선(가톨릭대),  
이수진(인하대), 이윤희(한국외대), 김정희(선문대)

#### 해외편집위원

Lenone Massimo (이탈리아 토리노대학),  
Anne Henault (프랑스 소르본대학),  
Paul Cobley (영국 미들섹스 대학, 세계기호학회회장),  
Hamid Reza Shairi (이란 테헤란 국립대학),  
Jose Enrique Finol (베네주엘라 줄리아 대학)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이도흠(한양대)  
상임위원 : 오세정(충북대), 김민형(한국외대),  
전형연(건국대), 윤인선(가톨릭대)

#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 <Honorary Advisor>

Lee, O-Young (The Joongand Ilbo Daily)

## <Honorary President>

Kim, Chie-Sou (Ewha Women's U)

Kim, Hyeon-Ja (Ewha Women's U)

Jeon, Seong-Gi (Korea U)

Shin, Hyun-Sook (Duksung Women's U)

Song, Hyo-Sup (Sogang U)

Park, In-Chul (Yonsei U)

Song, Gi-Jeong (Ewha Women's U)

Kim, Sung-Do (Korea 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Lee, Do-Heum (Hanyang U)

## <President>

Oh, Jang-Geun (Mokpo U)

## <Vice-President>

Hong, Jeong-Pyo (Hankuk U of Foreign Studies)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Internal Auditor>

Choi, Yong-Ho (Hankuk U of Foreign Studies)

<Chair of Editorial Board>

Song, Chi-Man (Konkuk U)

<Secretary General>

Jeon, Hyeong-Yeon (Konkuk U)

<Excutive Board>

– Public Relation

Oh, Se-Jeong (Chungbuk U)

– Journal Edition

Yoon, In-Sun (Catholic U)

– Research

Lee, Soo-Jin (Inha U)

– Treasurer

Hwang, In-Soon (Incheon National U)

– Information

Tae, Ji-Ho (Andong National U)

– Internal Affairs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Investigation

Shim, Ji-Young (Inha U)

– Education

Kim, Minhyoung(Hankuk U of Foreign Studies)

<General Board>

Cho, Yun-Kyung (Ewha Women's U), Lee, Sun-Hwa(Yeungnam U),  
Park, Su-Jin (Chonnam National U), Kim, Sang-Won(Inha U)

– Editor

Koh, Kyung-N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Nam-Si (Ewha Women's U),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Woon-Chan  
(Catholic U of Daeg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Baik, Seung-Joo (Chonnam National U), Oh, Se-Jeong (Chungbuk U),  
Yoon, In-Sun (Catholic U), Lee, Soo-Jin (Inha U),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Jeong-Hee(Sunmoon U)

– Editor Abroad

Massimo Lenone (Università degli Studi di Torino, Italy),  
Anne Henault (Université la Sorbonne, France),  
Paul Cobley (Middlesex University, UK / IASS president),  
Hamid Reza Shairi (National Univ. of Tehran, Iran),  
Jose Enrique Finol (Universidad del Zulia, Venezuela)

– Research ethics committees

Chairman : Lee, Do-Heum (Hanyang U)  
Standing member of committee : Oh, Se-Jeong (Chungbuk U),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Jeon, Hyeong-Yeon (Konkuk U), Yoon, In-Sun (Catholic U)

## 기호학 연구 제65집

---

2020년 12월 30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오장근

발행처 / 한국기호학회

편집 · 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031-940-1118)

<http://www.kstudy.com>

학회지 표지·로고 디자인 / 박영원

한국기호학회

5855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 061-450-2691

<http://semiotic.cafe24.com>

